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외고 출신 여대생이 경험한 학업서열
변화와 자기불일치감에 관한 연구
- 생애사적 접근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안 지 영

외고 출신 여대생이 경험한
학업서열 변화와 자기불일치감에
관한 연구

- 생애사적 접근 -

지도교수 김 동 일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안 지 영

안지영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업적으로 높은 서열에 있던 학생이 평균 성취수준이 높은 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서열이 하락했을 때 심리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이것이 수행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서열의 하락을 경험하고 목표하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하게 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학업서열의 변화와 자기불일치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첫째, 특목고와 대학입시과정을 거치며 학업서열의 하락과 자기불일치감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둘째, 이러한 자기불일치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다.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연구참여자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여자 대학생 8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심층면담을 통해 유년시절부터 인터뷰 당시까지 생애 자료를 수집하였고, 입시의 결과로 나타난 학업서열의 변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불일치감이 현재 대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애사적 변화 패턴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초·중등 시절에 높은 등수와 주변의 인정,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재능으로 높은 학업서열을 형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고 입시에 성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외고 입학 직후에 학업서열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상과 실제의 자기개념간에 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변하지 않는 등수, 공부만을 강조하는 학교 시스템, 경쟁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자기불일치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키고 강화하면서 연구참여

자들은 불안, 열등감, 무기력감 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자기불일치감은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쳐 학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영역으로 회피하는 등 저조한 학업수행을 보였다. 하지만 자신이 외고 학생이라는 점이 학업적 자기개념을 유지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자신이 잘 하는 과목이나 분야에 몰입하거나, 내신보다는 수능점수를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면서 학업적 자기개념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고등학교에서 학업서열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대입에서 목표로 하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다시 한 번 자기불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초기 대학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있고 진로 목표가 뚜렷하며 현재 전공과 진로목표가 합치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적응과 학업성취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진로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와 유사한 부정적인 정서와 낮은 학업성취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외고 입학, 외고에서 학업서열의 하락, 목표하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자신의 학업적 능력에 대한 생각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의 형태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학업적 자기개념을 바탕으로 대학교에서의 학업에 있어서는 동기와 목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는 뚜렷한 진로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외고에서의 학업경험 자체가 연구참여자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왔고 대학에서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상담 및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소외되어있던 학업우수 학생을 위한 상담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목고와 같은 학업우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상대평가로 인한 학업서열의 하락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불일치감을 다룸으로써 이들이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에 빠져 자기개념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상담에서 학업상담은 진로상담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진행될 때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업우수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학업서열의 하락을 경험하고 반복되는 실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학업서열, 자기불일치감, 학업실패, 사회비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대학생활적응

학 번 : 2014-30481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6
1. 입시체제와 학업경쟁	6
1) 한국 입시체제의 특징	6
2) 학업경쟁과 실패 경험	8
3) 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11
2. 자기불일치감	15
1) 자기불일치의 개념	15
2) 자기불일치와 학업	17
3) 자기불일치감의 정의	19
3. 대학생활적응	20
1) 대학생활적응 관련 변인	20
2)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	22
3) 대학생활적응과 진로	23
III. 연구방법	26
1. 생애사	26
2. 연구절차	28
3. 연구참여자들의 교육적 배경	35
IV. 초·중등시절: 높은 학업서열의 형성	42
1. 높은 학업서열 형성의 맥락	42
1) 높은 등수와 주변의 인정	42

2)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재능	44
2. 높은 학업서열과 외교 진학	47
1)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47
2) 당연한 수순처럼	49
V. 외교에서의 경험: 학업서열의 하락	53
1. 학업서열의 하락과 자기불일치감	53
1) 초기경험의 영향	53
2) 변하지 않는 등수와 무기력	58
3) 학교 시스템과 대인관계	62
2. 견디게 한 보호 요소	67
1) 외교에 다닌다는 사실 그 자체	67
2) 잘 하는 것과 정시전형에 집중	70
3) 주변인의 사소한 관심과 소통	74
VI. 대학 생활: 학업서열의 변화 혹은 유지	78
1. 대학적응의 모습	78
1) ‘내가 원했던 공부를 하면서’	78
2)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요’	83
3) ‘나보다 잘 하는 사람이 많아서’	89
2. 자기불일치감과 대학적응	100
1) 대입결과에 따른 자신감 하락	101
2) 외교에서의 경험	104
3) 흥미에 대한 파악과 진로발달	111
3. 학업서열 변화에 따른 생각의 변화	114
1) 나의 능력에 대한 생각의 변화	115
2) 공부에 대한 생각의 변화	120

VII. 생애사 재구성	124
1. 이보람의 생애사	124
2. 류승희의 생애사	129
3. 전가영의 생애사	134
VIII. 논의 및 제언	139
1. 학업서열의 변화가 자기불일치감에 주는 영향	139
2. 우리나라 교육에서 학업서열의 의미	147
3. 상담 및 교육에서의 시사점	150
참고문헌	154
부록	171
Abstract	177

표 목 차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31
<표 2>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주요 특징 비교	37

I. 서론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입시와 취업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흔히 명문대라고 하는 서열의 상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고 대학교육을 통해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학문탐구와 지성의 장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 취업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는 대학에서 입시교육의 연장에서 취업을 목표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볼 수 있다(채진원, 2013). 따라서 이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대학입시가 최종 목표였다면 이제는 취업을 마지막 입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진로를 위한 첫 번째 입시인 고등학교입시와 두 번째인 대학입시, 그리고 마지막 입시인 취업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학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관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에 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인식되는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부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 입시의 중요성에 높은 인식은 특히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중학교에서의 성취수준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특목고는 학교에서의 성취를 기준으로 우수한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방식으로 일반고에 비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였고 이들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서 설립취지와 상관없이 대입에 유리한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노종희, 2001; 김영철, 2003; 박소영, 2009). 특목고에 입학하는 많은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 선택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로 특목고를 선택한다(김도진, 2011).

특목고는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기에 입학한 다수의 학생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 한 학업서열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김영빈, 2008; 전정원, 2017). 이러한 학업서열의 하락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

하며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성취와 관련된 자기개념에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과 실제 자기의 모습 간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을 ‘자기불일치(self-discrepancy)’라고 한다(Higgins, 1987). 자기불일치는 자신이 희망하거나 그래야만 한다고 여기는 모습과 현실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의미하며 그 차이의 정도가 크고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에서 발생할 때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Higgins, 1999). 중학교까지 높은 학업서열로 높은 학업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며 급격하게 하락한 학업서열로 인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학업적 자아개념이 현실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학업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학업에서의 자기불일치는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때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학업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의 경험은 학생의 정의적 특성 및 적응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김정남, 1991; 김정원, 김옥인, 2007; 문성운, 2000; 서상환, 1992). 학업성취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이 이후의 성공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Feather(1968)에 따르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이후 성공에 대한 주관적 기대확률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람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성공 기회를 예상할 때 비슷했던 과거 경험을 끌어내어 판단하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유사한 과제를 잘 해낸 경험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앞으로의 성공 기회도 높게 추정한다. 이렇게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행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행성과도 높아진다(Bandura, 1977). 반면,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은 학습자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어렵게 하여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Seligman(1975)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환경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이후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어도 이를 피하기 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Weiner 등(1971)은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을 귀인이론과 연관시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미래에도 실패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내적이고 안정적인 원인에 귀인하여 이것이 수

행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학업에서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 무기력한 학생은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귀인함으로써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자아가치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고도 실패하면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노력을 줄이게 된다.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수치심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반면 실패가 능력부족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면 수치심과 괴로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Covington & Omelich, 1979). 이러한 실패와 관련된 이론들은 학생들이 학업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개인의 정서, 자기에 대한 인식, 학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 반복적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목고에 진학하여 학업서열이 급격히 하락하고 반복되는 실패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현재 대입제도는 크게 정시전형과 수시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시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수시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크다. 다시 말해 수시전형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내신점수와 교내 활동, 수상실적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내신점수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2019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76.2%였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정시모집은 24%정도에 불과해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는 의미이며 상대적으로 좋은 내신점수를 따기 어려운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은 재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21%가 재수생이었으며 학교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특목고 출신 학생의 31.6%가 재수를 선택해, 일반고 졸업생 16%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이는 수시에서의 불이익과 정시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특목고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서울경제, 2018.12.08.).

이처럼 특목고에서의 학업적 서열의 하락 이후에 대입에서 원하는 결과를

언지 못한 경험은 또 다른 실패로 인식되고 자기불일치가 발생하여 대학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활은 청소년기를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시기이면서 삶의 다음 단계인 졸업 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진로목표를 구체화시켜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기이고(임수영, 2014; 박신영, 이동형, 2013; 정지은, 2017), 이러한 준비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와 자신의 삶에 있어 개발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대학교시절에 진로발달을 위한 과업을 충실하게 달성하여 사회에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이 학업, 사회환경 및 대인관계, 개인의 정서, 대학환경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요구되는 것들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Baker & Sirky, 1984). 이는 현재 대학에서의 생활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안녕감으로 평가될 수 있다(Diener, et al., 1985).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는데, 학습자의 인지적 변화를 측정하는 학점 등 실제적 성적과, 학습자가 학습의 결과로 지각된 성취이다. 다시 말해 학점이라는 객관적 수치와 성취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인 주관적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유선옥, 박혜영, 2016). 특히 청소년기에 학업적으로 우수했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대학에서의 학업과 이후 진로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하지만 특목고와 대입의 과정에서 학업적 서열의 하락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자기불일치감으로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대학생활과 이후 진로를 개발해 나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특목고 출신의 대학생이 특목고와 대학입시과정을 거치며 학업서열의 하락과 자기불일치감을 어떻게 경험하였고 이것이 현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연구 문제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목고와 대학입시과정을 거치며 학업서열의 하락과 자기불일치감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둘째, 이러한 자기불일치감이 대학생활적

응과 학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의 외국 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목표하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한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자대학생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시체계에서 학업적으로 우수했던 학생이 학업서열이 하락했을 때 개인내·외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경험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의 학습생애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을 따라가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업서열의 하락으로 인한 자기불일치감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입시체제와 학업경쟁

1) 한국의 입시체제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가 중심이 되어 시험과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이미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중등교육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주를 이룬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열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에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이상명, 2017) 현행의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교육개혁의 방향은 견해에 따라 매우 상반된다. 진보적인 학자들과 교육운동단체들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입시위주 교육과 대학서열화 현상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자율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비효율적 학교제도를 혁신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학교 간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며, 학교교육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어떠한 사회계층의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 설득력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황갑진, 2006).

입시란 그 주체가 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입신양명¹⁾을 위해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특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여기서 특정 학교는 일반적으로 명문학교를 의미하곤 한다. 명문학교는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명성과 사회적 인지도, 이에 걸 맞는 교사진 등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는 학교를 의미한다(최셋

1)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친다는 뜻이다. 원래는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이 강했다. 그러나 입신양명의 좋은 취지는 변질돼 이미 조선조에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출세주의를 뜻하게 되었다. 강준만(2007). 선샤인 논술사전. 서울:인물과사상사

별, 2001).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명문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시 그 다음 단계의 명문학교에 진학하기에 유리한 학교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원활한 취업으로 연결되는 학교로 그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서열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지만(전호정, 2017) 언론사의 대학순위평가와 대학입시에 활용되는 대학교 지원 가능 수능점수 배치표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명문대학의 순위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최대한 높은 서열의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경쟁한다.

과거 중·고등학교가 서열화 되어 있던 시절,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명문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극심한 입시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중학교 평준화가 시행되었으며, 1974년 고교 평준화의 시행으로 고교서열은 상당히 약화된 바 있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등장으로 고교 평준화가 사실상 무너지고 학업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으로 인해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학생들을 고교입시와 대학입시 뿐 아니라 취업이라는 또 다른 관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69%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고용률은 OECD국가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복녀, 2018).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높은 수치에 도달하였다(중앙일보, 2018.09.12). 입신양명의 시각이 기반이 된 현행 입시체제에서 취업은 모든 학교 공부에서의 최종목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입시, 대학입시 만큼 취업도 매우 중요한 인생의 입시로 여겨지고 있고 따라서 고등학교입시, 대학교입시, 취업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며 결국 고등교육은 이 ‘최종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겨져 흔히 말하는 명문학교 진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변수용 외, 2012; 양민석, 이호준, 2018). 이러한 명문학교의 강조는 특히 중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업우수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지가 있

기 때문이다. 학업우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곧 상위권 서열의 대학에 갈 수 있는 지름길처럼 여겨져 학업성취가 높은 많은 중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로의 진학을 고려한다.

하지만 특목고에 진학한 모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2007년 기준으로 서울소재 외국어고 졸업자의 'SKY대학'²⁾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대원외고 67.2%, 명덕외고 61.1%, 한영외고 58.8%, 대일외고 55.2%, 이화외고 46.7%, 서울외고 42.9%가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문화일보, 07.07.18), 약 30~60%의 학생들이 당초 목표했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던 학생들이 입학하는 특목고의 특성상, 많은 학생들은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고등학교의 성적 평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적 서열을 보이게 되고 이들 중 다수가 계속 낮은 서열에 머무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빈(2008)의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시절 전교 석차가 상위 23%이내(스테나인 등급 기준으로 1~3등급)에 속하던 학생들이 학업우수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이 중 95%가 중학교 성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등급을 받았으며, 80%이상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고교 1학년 1학기에 4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 중 등급별로 적게는 54.3%, 많게는 75.8%가 같은 등급을 유지하거나 더 하락하였다.

이처럼 중학교까지의 높은 성취를 바탕으로 상위권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업서열의 하락을 경험하고 대학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흔히 기대하는 명문 학교 효과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학업서열 하락과 대학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험은 부정적 정서와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게 할 수 있으며(김영빈, 2008; 김성식, 2008) 대학 생활을 넘어 그 이후의 진로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학업경쟁과 실패 경험

2)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교 장면에서는 평가는 피할 수 없다. 대부분의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대학 입학전형에서도 상대평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서열등급을 받기 위한 학업경쟁 상황이 쉽게 조성된다.

타인과의 비교는 문화와 상관없이 학교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인데(Huguest et al. 2001), 우리나라는 다른 문화권에 비해 특히 더 높은 교육열과 학업 경쟁 상황에서의 비교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한덕웅, 엄광은, 2002). 우리나라는 학업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과의 상향비교를 강요할 뿐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상향비교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한덕웅, 장은영, 2003). 한덕웅(1999)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개인의 과제 수행을 다른 학생과 비교하는 상황에서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하는 상향비교의 비율이 전체 대학생의 3분의 2에 해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eine과 동료들(2001)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타인과의 비교상황에서 하향비교가 우세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는 상향비교가 우세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서양문화에서 자기방어의 동기가 우세한 것과 대조적으로 동양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성장의 동기가 높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추측하였다. 자기 성장의 동기가 높기 때문에 사회비교 과정에서도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여 비교한다는 것이다.

Marsh와 동료들(1995)은 사회비교이론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이 다른 학생들보다 낮은 경우 학업적 자기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학업에서 성공 경험을 하면 자신의 학업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내적 동기와 과제지속력이 향상되는 등 학생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정윤경, 2007)과 대조적이다.

학업성취 경쟁에 대한 인식은 다소 상반된다. 내적 동기의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는 경쟁이 내적 동기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Amabile, 1982; McGlynn, Gibbs & Roberts, 1982). 사람들이 타인과 경쟁할 때 과제 자체보다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목표에 주의를 두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약해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이 수행을 잘 하려는 개인의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경쟁 상황이 실제로 사람들의 내적 동기와 창의적 반응을 증가시켜준다는 근거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Epstein & Harackiewicz, 1992; Raina, 1968). 부진희와 서용원(2002)은 학업 경쟁과 관련된 상반된 입장에 대하여 인지적 평가이론으로 설명하였다. 경쟁 상황에서 이겨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자신이 통제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데에서 오는 내적 동기의 저하 외에, 경쟁 결과에 대한 성공 피드백을 받는 경우 자신에 대한 유능성을 높게 지각하여 결과적으로 내적 동기와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은 통제적 요소와 정보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어떠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냐에 따라 사람들의 내적 동기와 창의적 수행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경쟁상황이 유발하는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시험불안과 경쟁불안이 높으면 학생은 경쟁상황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와 자아 존중감, 효능감에 상처를 받기 쉽다. 또한 경쟁 상황에서의 실패 경험은 성공 기대를 낮추고 외적 귀인을 하게 하여 이후 과제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정원, 1995).

학업성취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이 이후의 성공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Feather(1968)에 따르면, 성공, 실패 경험에 따라 이후 성공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이는 실험자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성공 기회를 추정할 때 비슷한 난이도의 과거 경험을 끌어내어 가정하기 때문이다. 과거 유사한 과제를 잘 해낸 사람은 자신의 성공 기회를 높게 추정한다. 그러나 잘못된 집단규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통계적 예측을 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다(김정원, 1995).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취수준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매우 높거나 낮으면 이러한 소속집단 규준에 영향을 받아 이후 성공여부를 편협하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취동기와 시험불안은 최초 수행에서의 성공, 실패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과제에 대해 성공 확률을 높게 추정할수록, 이후 과제수행에서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연속된 성공, 실패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연구들로 볼 때,

실패 경험이 연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체 집단 규준을 통해 타인과의 비교를 객관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상향비교를 선호하고 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하고자 노력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집단에 속했을 때 기대되는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평균 성취 수준이 높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더 나은 교육환경과 성취를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과연 평균 성취 수준이 높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개인의 성취에 혜택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이론이 있다.

Herbert Marsh에 의해 제기된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Big-Fish-Little-Pond Effect; BFLP)는 평균 성취 수준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의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학교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Marsh, 1987). 학교 평균 성취 수준이 높은 경쟁적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낮은 학업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가진 또래들과 경쟁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과 또래를 스스로 비교하고 학교의 평가에 의해 비교당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학교의 평균 성취수준이 보통이거나 낮은 학교에 다니는 동일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보다 자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Marsh, 1987; Marsh et al., 2007). 다시 말해 학교의 평균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적 자기개념은 낮아지고 학교의 평균 성취수준이 낮을수록 학생의 학업적 자기개념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연못 효과와는 대조적으로, 후광 효과(Basking in the Reflected Glory; BIRGing)란 학교의 높은 사회적 평판에 의해 소속된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개념이 긍정적으로 영향 받는 것을 의미한다. 후광효과는 사람들이 동일시하는 타인이나 집단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자존감의 반사이득을 보는 현상을 말한다(Cialdini, Borden, Thorne, Walker, Freeman, & Sloan, 1976). 즉,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거나 없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동일시하는 타인의

성취와 평판은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과 관련하여 Snyder, Lassegard와 Ford(1986)는 대학생들에게 집단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성공, 실패, 수행 정보 없음의 세 조건으로 나누어 집단수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후 이들이 집단을 상징하는 배지를 얼마나 가져가서 착용하는지 관찰한 결과, 집단의 수행이 성공했다는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이 수행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배지를 더 많이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ialdini와 de Nicholas(198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상식검사를 실시하고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성공, 나머지 절반에게는 실패했다는 정보를 주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대학 풋볼 팀의 경기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적은 문장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상식검사에서 실패했다는 정보를 받았던 학생들은 자기 학교 팀이 이긴 경기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는 표현을 사용해 자신과 학교 간의 관계를 강조한 반면 진 경기에 대해서는 “그들은 졌다”와 같이 자신과 학교를 분리하여 표현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자신이 상식검사에서 성공했다는 정보를 받았던 학생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정보를 받아 자존감에 위협을 느낀 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학교 팀의 성공으로부터 반사이득을 얻으려 하는 반면 팀의 패배 시에는 자기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이중 전략을 사용하여 자존감을 지키려 함을 시사한다. 즉, 개인이 위협 상황에 놓여있을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BFLP효과와 후광효과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독일의 Becker와 동료들(2014)이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성취 수준의 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하였고, 학교 불안(school anxiety)도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BFLP효과를 지지하였지만 후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Becker et al., 2014). 하지만 Becker와 Neumann(2016)의 후속 연구에서 종단적인 차원에서 학업적 자기개념에 초점을 두고 BFLP효과를 재검증해 본 결과, 독일 초등학생들에게 특정 시점에서 나타났던 BFLP효과가 이들이 중학교로 진학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uet와 동료들(2009)은 프랑스 공립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BFLP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수학, 프랑스어와 같이 특정 과목의 성적과 자기개념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나 전체 학급 평균과 학생들의 자기개념 간에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학급 평균과 자기개념간의 부적 관계에 있어서 학생의 성적이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적이 높을수록 BFLP효과가 약하게, 성적이 낮을수록 BFLP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BFLP효과가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Trautwein과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PISA 자료를 이용하여 연못 효과를 국가별로 탐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을 포함하여 예외가 되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BFLP효과를 지지하고 있다. Seaton과 동료들(2009)의 보고에 따르면, PISA 2003 수학의 경우 한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세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BFLP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PISA 2003의 언어능력 위주의 성취도 검사에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BFLP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BFLP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Marsh & Hau, 2003). 이와 유사하게 Nagengast와 Marsh(2012)가 PISA 2006 과학 점수에서 57개국의 BFLP효과를 조사한 결과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학교 평균과 개인의 학업적 자기개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고함으로써 BFLP효과를 지지하였으나 오직 한국만 예외적인 결과를 보였다. Seaton과 동료들(2009)은 한국의 경우, 학교 평균이 높은 학교가 주는 후광효과가 BFLP효과보다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예외적인 결과의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반면에 PISA 2012의 한국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김혜숙과 함은혜(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 평균이 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학업적 자기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BFLP효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평균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학생 개인의 성취 수준이 정의적 성취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학생 성취 수준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학교 평균 성취 수준이 소속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Huguet과 동료들(2009)과 Trautwein과 동료들(2009)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학생의 개인의 성취 수준과 학교 평균 성취 수준이 서

로 상호작용하여 학생 개인의 정의적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학교 평균 성취 수준의 높고 낮음과, 학생 개인 성취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BFLP 효과와 후광 효과가 혼합하여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비교효과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다소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임형신(2008)은 학업 우수집단(특목고) 학생들과 일반집단(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개념 및 정서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 변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일반고생의 학업 자기개념과 정서가 가장 높았고, 자아탄력성이 낮은 특목고생의 학업 자기개념과 정서가 가장 낮아 대체로 BFLP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장경호와 신혜원(2010)은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 학업성취도 및 흥미도의 변화를 추정하여 BFLP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사회과 학업 성취도와 흥미도의 변화에 BFLP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업과 관련된 경쟁이 덜한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학교 평균 성취수준과의 비교를 통한 개인의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BFLP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김보연(2012)은 집단 수행과 개인 수행의 상대적 차이가 개인의 상태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경험에 있어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BFLP효과보다는 후광효과를 지지하였다. 김희란과 이진희(2017)는 국내 중학생의 수학 성취 수준과 소속 학교의 수학 평균 성취 수준이 수학의 정의적 성취에 미치는 관계를 교육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그 결과, 평균 성취 수준이 높은 학교의 학생들은 평균 성취 수준이 낮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정의적 성취의 초기값이 더 높았으며 그 격차는 학년이 올라가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중학생의 경우 정의적 측면, 특히 내재적 동기 및 학업적 자아개념의 측면에서 BFLP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수학 성취 수준이 하위인 학생들이 상위 성취 수준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오히려 후광 효과가 영향을 미침을 경험

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자기불일치감

1) 자기불일치의 개념

자기불일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self)’ 혹은 ‘자기개념(self-concept)’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어왔다.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자기’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각자 나름대로 이를 정의 내려왔다. Freud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라는 세 가지 심리적 구조로 이루어진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을 발전시켰다. Freud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를 외부 현실을 고려하여 절충하는 자아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성격의 중심구조인 자아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Freud, 1923). Allport는 고유자아(proprium)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개인에 있어 독특한 어떤 것을 가리키며 ‘느껴지고 알려진 대로의 나’라고 칭하였다(Allport, 1961). Rogers는 자기와 자기개념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자기개념은 현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권석만, 2012). 자기개념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현실적 자기(real self)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존중(positive regard)을 받기 위해 추구하는 이상적 자기(ideal self)도 포함한다. 이러한 이상적 자기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 받기 위한 가치의 조건을 반영한다(Rogers, 1951). Rogers와 Dymond(1954)는 현실적 자기개념과 이상적 자기개념간의 격차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이들 간의 차이가 부적응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자기갈등 혹은 자기불일치가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 1980년대 초에 Higgins가 제안한 ‘자기불일치이론(self-discrepancy theory)’이다. 이 이론은 이전의 여러 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여 다양한 자기개념들의 기저에

갈린 변인들과 함께 각기 다른 종류의 자기불일치로부터 유발된 불편감의 정도와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임일모 외, 1995). Higgins(1987)는 자기불일치이론에서 서로 다른 자기상태(self state) 사이의 체계적인 상호관계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정서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관계가 인지적 과정임을 밝혔다. 자기불일치이론에서는 정서적 불편감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기표상을 자기영역(domains of self)과 자기에 대한 관점(standpoints on the self)으로 제시하였다. 자기영역은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모습의 표상인 실제자기(actual self), 자신이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하고 희망하는 모습의 표상인 이상적 자기(ideal self), 자신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 모습의 표상인 의무적 자기(ought self)로 구분하였다. 또 자기에 대한 관점은 자신을 판단하는 입장을 의미하며 자신(own)의 관점과 부모, 형제, 배우자, 친한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의 관점이 있다. 자기의 세 가지 영역과 두 가지 관점을 서로 조합하여 나오는 자가지위 표상(self-state representation)은 실제적/자신, 실제적/타인, 이상적/자신, 이상적/타인, 의무적/자신, 의무적/타인의 총 6가지 종류가 된다. 이 중에 처음 두 가지 자가지위 표상은 한 개인의 자기개념(self-concept)을 이루며 나머지 네 가지 자가지위 표상은 개인이 지향하는 기준이나 목표를 나타내므로 자기 지시적 기준(self-directive standards) 혹은 자기안내자(self-guide)의 역할을 하게 된다(Higgins, 1987; Strauman, 1992).

Higgins(1987)는 자기불일치이론에서 자기불일치 상태를 실제자기와 이상적자기의 불일치, 실제자기와 의무적자기의 불일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기불일치 유형에 따라 특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실제자기와 이상적자기간의 불일치로 현재 자신이 이상적으로 되고자 하는 자기표상과 불일치하게 되면서 긍정적 성공경험이 부재하게 되면 희망을 잃고 좌절하게 되어 자기낙담과 우울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실제자기와 의무적자기와의 불일치는 현재 자기가 사회적 기준이나 중요타인에 대한 책임감에 의해 당연히 되어야 하는 자기표상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책무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한 불안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정리하면 실제-이상적 불일

치로 인해서 낙담정서 및 우울정서가 유발되며, 실제-의무적 자기불일치는 불안 정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자기불일치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Higgins의 이론을 검증하고 있다. 임일모 외(1995)는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자기불일치와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자기불일치 중 실제-의무적 불일치가 대인예민성 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정신과적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Higgins(1987)의 선행연구 결과 뿐 아니라 Freud(1923)와 Sullivan(1953)의 주장, 다시 말해 개인의 실제적 자기와 그에게 중요한 타인이나 사회의 기준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처벌이나 상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 두려움과 위협감을 느끼게 된다는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실제-의무적 불일치가 특정한 심리적 불편감 보다는 모든 유형의 심리적 불편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특정성 가설보다는 일반성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 외에도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자기불일치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심리적 불편감이 차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불일치가 모든 유형의 심리적 불편감과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일반성 가설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박지선, 1999; 박현주, 조궁호, 2003; 최정원, 김영호, 1998). 표경식 외(1998)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입각하여 과제 수행 중에 불안수준이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 평가위협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평가위협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할 경우 수행불안이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행불안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평가위협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성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자기불일치와 학업

자기불일치와 학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불일치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허재홍과 조용래(2005)는 자기불일치

와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불일치가 학업적응에 직접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이는 현실적 자기상이 이상적 자기상보다 낮은 경우에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불일치가 학업성취와 부적인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자기불일치가 커지면 사회불안을 경험하기 쉽고 이러한 사회불안은 대인관계의 장애와 적응기능상의 손상을 야기해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자기불일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연구들은 실제-이상적 불일치가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학습된 무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정소희, 양성은, 2011; 박현주, 조궁호, 2003; 염주열, 2017). 영재교육기관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성적하락을 더 크게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할수록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시험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신혜린, 2002).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 다른 영재교육기관인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상에 손상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한 열등감과 낮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와(조두영, 1985), 의과대학에서 이전 유급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고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박찬원, 박상학, 조용래, 1999)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적당한 자기불일치는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불일치 수준과 시험불안의 관계를 살펴 본 박현희(2006)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준의 자기불일치는 긴장감을 유발하여 시험 장면에서 더욱 집중하게 만들고 시험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형정은(2015)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불일치와 중도탈락의 관계에 있어 우울과 진로미결정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기불일치는 우울, 진로미결정 등의 매개변인을 통해 중도탈락 의도를 증가시킨 반면 자기불일치가 매개변인 없이 직접적으로는 중도탈락 의도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자기불일치로 인해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중도탈락 의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현실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높은 이상적 자기로 인한 자기불일치는 오히려 자기실현에 적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친 불안 수준은 학습효과를 저해하지만 불안 수준이 적절하면 학습자들의 각성수준을 자극하여 학업성적에 도움을 준다는 Gage와 Berliner(1984)의 연구결과와, 완벽주의가 병리적일 뿐 아니라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기능과도 관련된다고 한 Hamachek(1978)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기불일치가 어느 적정선에 이를 때까지는 학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 수준을 넘게 되면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여 학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자기불일치감의 정의

자기불일치이론에 따르면 자기불일치는 현실에서의 자기와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자기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불일치가 항상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Higgins(1999)는 자기불일치가 언제 정서와 구체적인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기불일치와 정서 사이의 특정한 관계는 자기불일치의 자기규제의 유의성(self-regulatory significanc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불일치의 자기규제 유의성은 다음 4가지 변인인, 자기불일치의 강도(magnitude), 자기불일치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현재 맥락에서의 적용가능성(applicability)과 관련성(relevance), 그리고 자기불일치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 그것의 중요성(importance)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변인들은 자기불일치와 정서 간에 조절변인(moderator)으로 작용하여 자기불일치가 높은 강도, 접근가능성,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맥락에 적용가능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 정서와 특정한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기불일치의 정서적인 영향을 살펴볼 때는 이러한 조절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Higgins, 1999).

이러한 사실은 자기불일치가 발생하는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맥락적 요소들이 자기불일치와 관련되어 개인에게 어떠한 정서를 발생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학교까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학업서열의 상위에 있던 학생들이 외고에 진학하며 단기간에 학업서열이 낮아지는 상황에 처하면서 발생한 자기불일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는 서열화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 학업서열의 하락이라는 경험이 학생에게 개인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만드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낮은 학업서열에 머무르다가 목표하지 않았던 대학에 입학하고 그곳에 적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기불일치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자기불일치일지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서열의 하락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기불일치하는 현상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사회·교육적 맥락 및 개인적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유발시키는 정서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불일치감’을 ‘학업적 서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 대한 지각과 정서’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의 ‘자기불일치감’은 자신이 원하는 혹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와 현실에서의 자기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각과, 그것과 동시에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3. 대학생 활적응

1) 대학생 활적응 관련 변인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이 대학이라는 환경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인 측면에서 학생 개인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의 요구에 대처해나가는 과정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성경, 2003; 김효원, 2005; 이정

아 외, 2008). 대학생생활적응과 관련된 초기연구들은 높은 학업 성취 수준을 성공적인 대학생생활적응의 핵심으로 여겼지만(Gerdes & Mallinckrodt, 1994), 대학생생활에 대한 적응은 신체·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의 대학생생활적응의 개념은 다차원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도록 고려되고 있다(홍계옥, 강혜원, 2010).

Baker와 Sirk(1989)는 대학생생활적응을 개인의 내적 적응과 개인의 주변 환경과의 적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대학생생활적응을 크게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먼저 학업적 적응은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학업적인 요인에 대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인으로 학업에 대한 동기, 학업적 요구에 대한 반응, 학업환경과 관련된 일반적 만족감, 시간관리, 분명한 목적의식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적응은 대학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평가하는 요인으로 대학에서의 교우관계, 선·후배 관계, 교수와의 관계 등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능력이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태에 관한 요인으로 자기 탐색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반응과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대한 애착은 소속 대학에 대한 애착이나 전반적인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 등을 나타내는 대학만족도 뿐만 아니라 학업 목표에 대해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가를 포함하는 요인이다.

이 외에 한덕웅 외(1992)는 대학생생활적응을 전반적 대학생생활 적응, 소속대학에의 적응, 전공학과에의 적응으로 분류하였고, 최송미(2001)는 학교생활적응, 가정생활적응, 개인생활적응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황매향과 박혜영(2005)은 대학생생활적응을 학교생활, 대인관계, 심리·신체적 건강, 위기요소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과 전공이라는 새로운 환경, 교우관계나 교수와의 관계와 같은 다양하고 변화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전망, 학업,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깊다(김계현 외, 2005; 한덕웅 외, 1992). 이러한 대학생생활적응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었는데, 김은정 외(1992)는 대학생생활의 학업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네 가지로 제

시하고 있다. 첫째, 학업적 적응과 관련 있는 요인들에는 학습습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이 포함되며, 둘째, 사회적 측면의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들로 는 자기 존중감 및 통제 의 내외소재,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장성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것으로 입학 당시 대학생활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과 입학 후 실제 현실 지각 수준간의 괴리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심리적, 정서적 적응에 관한 것인데, 이는 주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한편, 민경화와 김계현(2001)이 타당화 및 표준화 한 대학생활적응 검사에서는 학업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 심리부적응, 신체적 건강문제, 위기요소 등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이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2)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는 지식수준에 의한 성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태도와 학업과제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과목이 제시하는 목표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다(신현중, 2012).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의 개념과 구성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형수(2001)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를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학업성취도는 학업 성적, 학점 이수율을 포함하며,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학업성취도는 학업에 대한 자기 평정을 의미한다. 조원기(2015)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학습태도, 학습과제에 임하는 자세,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 이해 정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서은선과 정경아(2015)는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학습결과가 아니라, 학습결과에 미치는 학습과정이나 학습작용으로 보았으며 이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높은 학업성취도는 성공의 경험으로 이어져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대학 졸업 후에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소연(2016)은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 요인이 학업성취도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대학생활적응 요인 중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학업적응은 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한 동기, 학업에 노력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정서적응은 대학에서 겪는 심리적, 신체적 적응 정도를 의미한다. 노해림 외(2015)는 군 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복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하락한 경우에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은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영아와 전우택(2004)은 북한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과 영어성취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고 그 결과, 학업적응이 높은 학생일수록 영어성취도가 높았으며 영어성취도에 대한 자신감은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대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서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연구한 정미숙(2011)은 대학생활적응 과정에서 교육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학업 성취감이 낮아지고 좌절, 긴장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은 학업동기가 낮아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학업을 중도포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수진(2011)은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대학에서 제시하는 학업적 요구를 얼마나 성취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학생활적응 요인 중 사회적응이 높으면,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활적응 요인 중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이 학업성취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 정도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대학생활적응과 진로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후기 청소년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며 사회적 적응의 발달 과업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이를 위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해야 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과업이 있다(이숙정, 유지현, 2008; 장계영 김봉환, 2011). 대학 입학 전에 이루어야 했을 이러한 과업은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중·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생활로 인해 대학 시기로 유보되는 경우가 많다(조혜정, 2012). 따라서 대학생들은 중·고등생 시기에 이뤘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을 대학 시기에 경험하면서 대학생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김은정, 1992).

대학생활적응과 진로 관련 변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지은(2017)은 4년제 대학의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진로역량과 학생 및 대학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학생 진로역량 수준은 자기효능감 수준, 진로포부 수준, 전공몰입 수준, 학생 참여(학문적참여, 사회적참여,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학생과 인턴십 경험이 있는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과 진로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숙정과 유지현(2008)은 대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옥과 조윤희(2011)는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 진로발달의 변인들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매향과 박혜영(2005)은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탐색하여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적응도와의 유의미한 상관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적응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분류하여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와 김홍석(2009)은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애리, 유순화, 류남애(2011)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

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장애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진로관련 변인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생애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시체계에서 학업적으로 우수했던 학생이 학업서열이 하락했을 때 개인내·외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경험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을 따라가 보았다. 생애사는 참여자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대한 구술담을 연구자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박성희(2004)는 생애사란 사회구성원인 개인의 행위와 체험이 사회의 가치지향과 어울려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지평과 계획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형성되며 구조화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평생교육자인 Alheit와 Marotzki는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으로 보며,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생애사 연구로, 이를 통해 급변하는 현대화 과정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박성희, 200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다. 김영천과 한광웅(2012)은 생애사 연구를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혹은 생애담을 통하여 사회현상이 생성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문맥 안에서 구성되어지는 과정을 밝혀준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행위 주체자의 관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행위 주체자로서 그 사람의 단일성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실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은 생애사 연구가 갖는 강점이다(류태호, 1999). 또한 생애사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만나는 과정이자 결과로, 한 개인의 지금까지의 삶을 이야기를 통해 의식과 행위를 재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제도의 관련성과 역동성을 밝히는데도 유용하다(최선주, 2013). 생애사 연구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성주의 시각을 강조하

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 이면의 메커니즘과 발달과정을 보여주기 어려운 양적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문제의 메커니즘과 과정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생애사의 연구결과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박성희, 2004). 이처럼 개인의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생애사 연구 방법은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같이 주체 스스로가 지각하는 생애 전환점이나 사회문화적·개인사적 맥락, 또는 타자와의 차이가 중요한 주제에서 이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강민수, 문용린, 2007)

이동성(2015)은 생애사 연구의 방법적 특징을 명료화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애사 연구의 방법적 특징은 맥락성, 내러티브, 관계성, 인간화로 압축됨을 확인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의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는 시간적 맥락에 주목한다. 특히 사회적 제약, 삶의 기회, 전환점 등 일련의 사건에 참여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슨 선택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성을 강조한다(한경혜, 2005). 생애사 연구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주관적인 내러티브의 형태로 전개하며 이 때 핵심은 이야기의 사실적 정확성이 아니라 내러티브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Dhunpath, 2000). 또한 관계성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연구자와 참여자의 진정성 있고 평등한 협력적 관계와 나아가 사회의 구조와 주체를 연결하는 관계적 잠재력을 의미한다(이동성, 2015). 마지막으로 인간화는 반영적이고 공감적인 연구 실천을 이끌어내는 특징으로, 생애사 연구가 침묵하는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거나 인간 정신의 진정한 성찰을 이끌어내며 자아를 반영할 수 있는 ‘거울’로 비유될 수 있게 한다(Dhunpath, 2000).

생애사 연구방법은 사회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정치, 문화, 심리학, 여성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 생애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현상을 탐구한 국내 연구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직 문화, 현장 경험, 직업정체성 형성 등 교사 발달에 관한 연구(김석례, 손민호, 2011; 김승호 외 1997; 김영천, 정정훈, 2003; 류태호, 2000)와 평생교육 분야에서 개인의 학습자로서의 교육생애사를 탐구한

연구(김지영, 2017; 배수옥, 2006; 변애경, 윤창국, 2017; 최라영, 2014; 최선주, 2013; 최영아, 고희일, 2012) 등이 주를 이룬다. 심리·상담분야에서는 상담자의 발달이나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공춘옥, 김봉환, 2014; 김승연, 이영희, 2003; 김혜정, 2012; 박현선, 2004; 양민숙, 2018; 이동훈 외, 2015; 전보영, 2015; 전현영, 손은령, 2014; 하정혜, 2014) 교육학 분야에서도 생애사 연구방법의 활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강숙희, 2013)

생애사 연구는 삶의 여러 양식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한 사람의 학습생애에 초점을 맞춘 학습생애사 연구이다. 학습생애사 연구는 학습자가 처해있는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환경과 학습자 간에 벌이는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변증의 과정을 규정하는 일이다(강대중, 2009; 이경희, 박경희, 2006).

본 연구는 생애사 방법을 통해 중학교까지 학업적으로 우수했던 학생이 특목고에 진학하며 학업서열이 하락했을 때 개인 내·외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자기불일치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문화·교육적 맥락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절차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중학교 때 학업적으로 우수했던 학생이 특목고에 진학하면서 학업적으로 낮은 서열에 처한 경험이 고교시절과 현재 대학생으로서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을 진행하였다. 의도적 표집이란 연구자가 관심을 둔 주제에 대해 통찰과 이해를 줄 수 있는 현장과 개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Merriam, 1998). 의도적 표집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 또는 무엇을 표본으로 추출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추출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나 현장을 표본으로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사전에 내

려야 한다(Creswell, 2012).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거를 설정하였다.

- ① 학업우수 고등학교(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②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속했던 학생
- ③ 고등학교에서 뚜렷한 성적의 하락을 경험한 학생
- ④ 목표하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한 학생
- ⑤ 현재 3학기 이상(2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
- ⑥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

이와 같은 준거를 설정한 이유와 선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우수 고등학교란 학업적으로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모이는 고등학교라는 의미이며 학생선발에 있어 특정 과목이나 전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여 선발하는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와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자율형사립고를 학업우수 고등학교로 설정하였다. 둘째, 중학교 성적은 등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대략 스테인인 등급으로 2등급 이내(~11%)의 학생들을 높은 학업적 서열을 가진 학생으로 판단하였다. 모집된 참여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20등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였던 학생들로, 학교와 가정에서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으로 인식되었던 학생들이었다. 셋째, 고등학교에서의 뚜렷한 성적 하락은 내신등급의 하락으로 판단되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평균 내신성적이 3등급 이상 하락하였으며 이는 중학교 성적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하락폭이었다. 넷째, 목표하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은 고등학교 입학 전 혹은 재학중에 본인이 목표로 하였거나 막연하게 갈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대학에 비해 더 낮은 성적으로도 갈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한 것을 의미하며 이에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섯째, 대학교 1학년 학생은 재수 등을 통해 학교를 옮길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현재 재학중인 대학으로의 진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3학기 이상 재학(2학년 이상)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신의

학업적 경험에 대해 반추하고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여 서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준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참여자로 모집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서울·경기 소재의 몇 개 대학의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신청한 지원자와 유선연락을 통해 참여자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참여조건에 부합되고 참여의사를 밝힌 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접 만나 서면과 구두로 다시 한 번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모집 당시에는 학업우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와 일부 자율형사립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모집된 13명의 참여자 중 1명의 국제고 졸업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어고 출신으로 모집되었다. 이 중 참여자 선정을 위한 준거 중 2번과 3번 준거를 명확하게 충족시키지 못 한 2명을 제외하고 참여자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고 졸업생 1명, 남학생 2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8명의 대학생이 연구참여자로 확정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표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출신학교는 총 8개의 외국어고와 4개의 대학에 분포되어 있으며 2학년 3명, 3학년 3명, 4학년 2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대학에서의 전공명이 특징적이어서 대학이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다 일반적인 전공명으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주요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제보자의 행동, 감정,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과 같이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필수적이다. 또한 반복 불가능한 과거의 사건과 이 사건이 개인이나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때도 유용하다(Patton, 1990).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이름 (가명)	성 별	고등학교/전공	대학/전공/학번	학 년
1	김소현	여	ㄱ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A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5학번	3
2	이보람	여	ㄴ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A대학교 국어국문&심리학과 16학번	2
3	박주형	여	ㄷ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A대학교 국어국문&사회복지학과 14학번	4
4	이미나	여	ㄹ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C대학교 경영학부 16학번	2
5	정영미	여	ㅂ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D대학교 국제통상학과 15학번	3
6	류승희	여	ㄴ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D대학교 법학과 15학번	3
7	장윤희	여	ㅇ외국어고등학교 불어과	B대학교 정치외교&광고홍보학과 14학번	4
8	전가영	여	ㅈ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D대학교 경영학부 16학번	2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 진행을 위한 심의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았다. 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각 인터뷰는 참여자의 위치와 가까운 곳의 조용한 공간을 섭외하여 1시간~1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초·중등 시절의 경험, 고등학교에서의 경험, 대학 진학 및 현재 대학 생활에서의 경험 등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대략의 질문은 사전에 제공되었으나 상황에 맞게 탐색을 위한 추가 질문이 주어졌다. 모든 면담 내용은 녹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면담 중 특징적인 사항은 연구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메모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심층면담 이전에 유선면담과 사전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명확히 밝힌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IRB 승인 도장이 찍힌 연구참여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모집과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이 경우에 따라 학업적인 실패의 경험과 그에 연결된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세심한 태도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에 인용될 때 개인의 사적인 정보나 상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한다는 점과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을 중도에 철회할 수 있고 철회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연구에 대한 참여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도구이므로 연구자의 훈련 및 준비가 중요하다. 연구자는 생애사 연구 진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수업 2개, 생애사 연구 방법론 수업을 1개를 수강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질적 연구 워크숍에 참석하여 생애사 연구 강의를 이수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질적 연구에 관한 교재, 학술지, 논문 등을 읽으면서 질적 연구방법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절차 및 자료 분석에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지도 및 조언을 받았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과정에서도 연구자가 연구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정, 편견, 선호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연구자의 편견(researcher's bias) 공개법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의 편견 요인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최선주, 2013).

연구자는 중등시절의 높은 학업성취를 바탕으로 외고에 진학하였으나 고등학교 내내 중하위권의 성적을 보이다가 목표로 했던 대학으로의 진학에 실패하고 그보다 평판이 낮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서열의 대학에 진학한 것이 개인적인 콤플렉스로 작용했던 시절이 있었고 고교 시절과 대학진학 과정에서 했던 선택과 결정들에 대해 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는데 있어 라포를 형성하고 면담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수월했지만 연구자가 과거에 했던 경험과 유사한 내용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있었으며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면담 초기에 연구자의 편견과 기대로 인해 유도질문을 하는 모습을 자각하고는 당시에 수강 중이던 생애사 연구 방법론 수업 시간에 이러한 경험에 대해 나누고 구성원들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의 특정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고 또 다른 특정 이야기는 배제하려 하지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참여자와 10년 이상의 나이차이가 나는 만큼 과거의 배경이 아닌 요즘의 사회·교육적 배경을 고려해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도중에 떠오르는 생각과 의문점을 메모하였으며 이는 다음 면담을 진행하는데 활용되었다. 앞선 면담자와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참여자와의 면담에서 집중할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는 자료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반영되었다. 녹음한 파일을 전사하면서 참여자의 이야기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 의문점 등을 같이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예비분석은 자료를 범주화, 구조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되었다.

구체적인 자료 코딩과 분석은 일정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활용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Merriam, 1998). 일정비교분석은 연구

자가 면담, 현장일자나 기타 문서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비교하여, 일시적인 특정한 범주를 형성하고, 범주들이 속해있는 역을 구성하고, 어떤 이론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주와 역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분석 방법을 말한다(Merriam, 1998). 개방 코딩의 결과 연구문제와 관련된 커다란 코드 덩어리는 초등·중학교 때의 학업 경험, 외고를 희망하게 된 계기, 외고에서의 경험, 그 자리에 머물렀던 이유, 변화를 위해 시도했던 것, 대입 과정, 대학 생활, 고등학교와 대입과정의 영향,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 양상 등 9가지로 범주화되었다. 각 범주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고려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는 합치고 범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위 범주 안에 공통으로 묶거나 하위 범주를 상위 범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는 학업서열의 변화에 그에 따른 학업 자아개념의 양상을 쫓아가고자 하였으므로 모든 연구참여자에 있어 공통적으로 그러한 변화가 크게 드러나는 인생의 세 가지 시점인 초·중등, 고등, 대학교 시절이 가장 중요한 상위범주로 최종 설정되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생애사의 방법으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므로 각 시기별로 개별화된 이야기들이 한 사람의 구체인 삶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 연구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판단되는 3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재구성 하였다.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이다. 삼각검증법은 다수의 연구조사자, 다수의 자료원이나 혹은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유기웅 외, 2012).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면담을 주요 자료 수집원으로 하였고,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학교를 다닐 때의 사회·교육적인 이슈와 관련된 뉴스, 입시 제도, 교육 정책, 통계 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및 해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타당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 확인법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혹은 연구를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말한다(유기웅 외, 2012). 이 연구는 각 연구참여자에게 연구결과의 본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연구자가 연구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하였는

지, 연구자의 표현이나 기술이 정확하고 공정한지, 연구결과의 주제가 참여자들의 견해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다.

3. 연구참여자들의 교육적 배경

1) 특수목적고등학교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인 외국어고(이하 외고)에 진학한 것이 학습생애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고로의 진학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외고 학생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후에 대학 진학 과정과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외고 졸업생이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목고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목고는 고교 평준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교육의 수월성과 영재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1973년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과열 과외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교입시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마련된 제도이다(김영철, 2003; 김정선, 정일환, 2003; 강영혜 외, 2007). 이러한 평준화 정책은 정책이 도입된 이래 중학교 이하의 학교교육 정상화, 중학생의 신체 발육 호전, 고교 교육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그동안 우리나라 고등학교 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김기석 외, 2005; 강상진 외, 2005). 그러나 한편에서는 학업 능력이 동질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효과적 교육 및 진로 지도의 곤란,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과 교육의 획일화 등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이른 바 ‘하향평준화’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동시에 수월성 교육을 약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계속되었다(이종태 외, 2006). 이와 같이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개인의 적성, 흥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 왔다는 비

판도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교육체제가 수월성과 적성에 따른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자 조기 유학, 홈스쿨링 등 공교육 체제를 이탈하여 학생 개인의 가치에 맞는 교육을 추구하는 경우도 생겨났다(김주아, 2009). 따라서 정부는 평준화 체제의 틀은 유지하되 학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시대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수목적에 따라 고교교육을 특성화하면서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임용 등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수월성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학교가 필요하였다(김영철, 2003). 평준화정책이 폐지될 경우 초래될 여러 가지 사회적, 교육적 비용을 고려하여 평준화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목고라는 명칭은 본래 평준화제도 도입 당시 설립 이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학교에 대해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연합고사에 의한 추천 배정에서 제외되었던 학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70년대 후반에는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적용되었다가 80년대에 들어서 과학, 예술, 체육 분야 영재의 조기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의 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1987년에 과학고등학교가 특목고로 지정되면서 오늘날의 특목고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1992년에는 당시 각종학교의 형태로 있던 외국어고를 특목고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의 특목고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준화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었던 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과학 및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들이 급증하였고 지방자치 단체별로 일반계열 특목고의 증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설립된 특목고는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수월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특목고는 첫째, 학교의 설립취지에 따른 각기 고유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가 일괄 추천방법에 의해 배정을 하는 것에 비해 특목고는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선발할 수 있는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고, 셋째, 학교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되며,

넷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등록금 책정권을 지니고, 다섯째, 교원임용에서의 특례를 적용받는다(김주아, 2009).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주요 특징을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특목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외국어고)/국제전문인재 양성(국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양성(예술고) 체육인 양성(체육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 2, 제 9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 2, 제 9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 2, 제 9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 2, 제 90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고(31개교) 국제고(6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개교(예술 25/체육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7개교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단위
학생선발	입학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 + 과학창의성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사립학교는 연차적으로 확대) 	-	-

	필수이수				
교육과정	단위 72	필수이수단위	필수이수단	좌동(학교	
(2009	단위	72단위	위 72단위	별 교육과	
개정교육	전문교과	전문교과 80	전문교과 80	정을 자율	
과정기준)	80단위	단위 이상	단위 이상	운영 가능)	
	이상				

이와 같이 오늘날 외고가 입시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시작된 것은 외고에서 해외명문대와 국내명문대를 많이 보내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평준화된 일반고와는 달리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좋은 면학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평준화 체제에서 문과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엘리트 학교’로 인식되었다. 중앙대 이성호 교육학과 교수는 2009년 인터뷰에서 “평준화 정책 때문에 외고 등 일부 특목고를 제외하고는 선택할 만한 특색 있는 학교가 없다 보니, 수재들이 그나마 제일 낫다는 외고로만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7.06.16). 또한 실제로 국내 대학 신입생 중 특목고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특목고나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메트로신문, 18.07.02). 이는 선발 과정에 의해 초·중등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특목고에 상당수 진학하며 수시모집 전형에서 특목고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시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능 성적에 대한 외고 효과에 대해 살펴본 변수용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수능에서 가정배경과 학생 및 학교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외고 학생들이 일반계고 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적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를 희망하는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특목고의 평균 지원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지만 최근 2~3년 사이 특히 외고 지원율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특목고의 진학률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입시 제도 변화에 따라 특목고와 일반고 진학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진학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진학사, 16.12.01). 이처럼 특목고의 지원율은 대입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여전히 초·중등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특목고에 대한 선호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특목고 재학생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송호열, 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유형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교 시설과 환경 만족도는 5점 만점일 때 과학고(4.38점), 마이스터고(4.13) 다음으로 외국어·국제고가 3.99점으로 일반고(3.60)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교사에 대한 만족도 역시 과학고(4.18), 마이스터고(4.08) 다음으로 외국어·국제고가 4.04점으로 일반고(3.80)점보다 높았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학교만족도, 수업태도와 같은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도 일반고보다 특목고 졸업생이 더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민석, 이호준, 2018).

이처럼 특목고는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한 수월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설립되었고 외고 역시 외국어영재의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선발제도로 인해 학업 우수 학생들이 몰리고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오늘날과 같이 입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학교로 그 본질이 흐려졌다. 이에 대해 외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여전히 특목고에 대한 선호가 있으며 실제 특목고학생에 대한 만족도도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학입시전형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당시에 대학입시제도는 다음과 같았다. 대학입학시험은 입학전형자료를 무엇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주요한 입학전형자료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 및 구술, 실기, 기타)를 활용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에 대학 입학 능력 평가의 목적으로 도입된 시험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업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교과적으로 고등학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이며 중등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의미 있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학입시제도에서 수학능력시험은 주요한 전형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의 총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원점수를 살펴보면 국어, 수학, 영어는 각각 100점이고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I 은 과목당 50점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한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의 경우에는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3년간 교과 성적, 학교에서의 특별 활동, 행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이는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담임 교사에 의해 작성되며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희망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기록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석차 백분율에 의해 9개 등급을 부여한다. 이 외 대학별로 논술, 면접 및 구술, 실기 등을 시행하며 어떠한 전형에 응시하느냐에 따라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의 종류와 비중이 달라진다.

대학입시전형제도는 크게 선발시기에 따라 수시와 정시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전형은 크게 네 가지로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위주전형, 실기위주전형이 있고 정시전형은 수능위주전형과 실기위주전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전형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주로 내신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며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활동(자치, 봉사, 동아리, 진로활동), 독서, 수상실적, 교과세부능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주로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논술전형은 대학별로 논술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 예를 들면, 내신 40%+논술 60% 등 가중치에 차별을 두어 평가한다. 실기전형은 음악, 미술, 체육, 수학, 영어,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다.

정시전형은 수능 위주전형과 실기위주전형이 있다. 보통 정시전형과 수능전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시전형에서 주로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중에서 어느 전형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방법은 학생부 내신과 비교과활동,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다. 내신성적, 비교과

활동과 모의고사가 우수하다면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 내신성적이 좋지 않지만 모의고사 성적만 우수하다면 정시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과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중점을 두는 대입전형이 다르다. 일반고 학생들은 많은 수가 학생부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부성적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그렇지 않고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 특목고 학생들의 대학입시 지원 방향은 이와 반대다. 특목고에서 내신점수를 1등급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이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한다. 대부분의 특목고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 성적+비교과 활동)에 지원하거나 논술전형에 지원한다. 특목고 학생들은 학생부 성적이 약할 수밖에 없지만 수능 최저기준은 기본적으로 넘긴다는 것이 전제이며 비교과 활동을 채울만한 기회나 환경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많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내신점수가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정시전형에 더 비중을 두어 수능시험 준비에 몰두하였으며 수시전형에 원서를 넣을 때에도 논술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을 활용하였다.

IV. 초·중등시절: 높은 학업서열의 형성

1. 높은 학업서열 형성의 맥락

1) 높은 등수와 주변의 인정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꾸준히 학교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보였고 주변에서 공부 잘 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스스로 공부 잘 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공부를 곧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막 그냥 저도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중학교 때도 전교 한 5~10등정도? 그 정도를 항상 했어요. (전가영)

전가영의 이야기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상대평가로 성적이 산정되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등수는 나의 학업적 서열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치이다. 학업적 서열이 높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객관적 수치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부를 잘 한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러한 높은 등수와 주변의 인정은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학업적 서열이 높고 그에 맞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되기 전에 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 배경은 조금씩 다르다. 이미나는 부모님이 맞벌이이신 관계로 초등학교 때 학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성적보다는 재미 위주의 공부를 하는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지고 즐기면서 하게 되었다. 공부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나 언니의 도움이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공부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었다.

초·중등 내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한 학년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

겠는데 대충 300명이면 그 중 항상 10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공부를 초등학교 때는 정말 좋아해서 했구요... 그니까 학원에서 재미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영어도 재밌게 했고 수학도 막막하게 문제 푸는 식이 아니고 약간 토론처럼? 말하면서 배우는 그런 거였어서 항상 초등학교 땐 재밌게 했었고 중학교 때도 잘 한다 소리 많이 들으니깐 그때 까지도 꽤 즐겁게 했던 거 같아요. 압박이 심해서 했다가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부모님도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저도 즐겨서 했어요. (이미나)

이미나와 마찬가지로 장윤희도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 잘 하게 된 경우이다. 장윤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성적이 꾸준히 잘 나오는 편이었고 중학교에 와서는 공부가, 배우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 성적도 항상 최상위 권이었다.

초등학교 때에도 반에서 1, 2등 맨날 하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막 한 게 아닌데 생각보다... 전 그냥 피아노, 미술학원 그런 거 다니고 초3 때부터 영어학원만 계속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잘 나오다가 저희는 무작위로 중학교에 갔는데 간 데가 제일 큰 데였어요. 근데 거기서도 잘 나왔어요. 그 때는 공부가 재밌다고 느껴져 가지고 2학년 때 제일 많이 올랐었고... (연구자: 그 때 공부가 재밌다고 어떻게 느꼈어요?) 그냥 배우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안 시켜도 막 새벽까지 혼자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교 뭐 5등 안에는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장윤희)

이미나와 장윤희 모두 공부가 즐겁게 느껴져서 주변의 강요가 아닌 자율적으로 원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높은 성적은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왔다. 하지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은 마찬가지로이나 류승희와 이보람은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껴 공부를 했다가 보다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에 더 치우쳤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우수한 편에 속했던 거 같아요. 지방에 살긴 했는데 서울 아니어서 그런지 상위권에 있었어요, 계속. 그 때 영재교육 같은 거 있으면 참여해서 하기도 하고 공부를 좀 했던 거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너무 머리만 믿고 공부를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꼈다고보다는 벼락치기식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암기과목 있으면 벼락치기해서 순간 점수 맞고... (중략) 그리고 학원 다녀서 선행학습을 해서 자만심이 생겼던 거 같아요. 난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흥미를 못 느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류승희)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는 원래 잘 하지 못하는 애니까 이번에도 잘 성적이 안 나온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때 저도 모르게 화가 난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그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초등학교 때는 평균을 따지잖아요? 평균이 거의 10점? 막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나도 뭔가 잘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되게 잘하게 됐고 되게 잘하게 된 이후에는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뭔가 강박? 이런 걸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왜 유지해야 될 것 같았어요?) 가장 컸던 이유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해주시고 인정해주시니까 약간 제 자존감이 그걸로 채워지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 성적이 떨어지면 뭔가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연구자: 중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였어요?) 성적은 학교에서 막 전교 1, 2등 하고 그랬었던... 정말 잘 했던 것 같아요. (이보람)

류승희와 이보람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높은 학업성취도를 유지하였으나 공부를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당시의 높은 학업성취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그로인해 부모님이나 주변사람의 인정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는 느끼지 못하였고 높은 성취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공부를 잘 했지만 공부가 좋다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이다.

요약하면 연구참여자들은 초·중등 시절에 높은 학업성취를 보여주는 등수라는 객관적 지표와 주변의 인정이라는 주관적 인식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학업적 서열이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업성취가 높은 이면에 공부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재능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영어학습을 경험하였고 영어나 외국어에 흥미를 느끼거나 특출난 실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장윤혜는 예체능 학원 이외에는 영어학원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꾸준히 다녔다. 중학교 성적이 좋아서 당시 살던 지역에 있는 다른 학업우수 고등학교에도 갈 수 있었지만 외고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영어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어에

대한 흥미와 실력은 어릴 때부터 계속 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었고 마침 당시에 다녔던 학원이 장윤희의 나이 대에 맞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계속 개발하던 곳이어서 다양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계속 배웠었으니까 그래서 더 흥미가 있었던거 같아요. 중학교 때는 영어연극 같은 것도 하고... (연구자: 다녔던 영어학원은 어떤 곳이었어요?) 처음 영어 배우는 애들부터 계속 하니까... 근데 그 원장 쌤 아들이 있었는데 개가 비슷한 나이여서 커리큘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원래 커리큘럼은, □□□아세요? 그 영어학원 체인점 같은 건데 거기 교재로 하다가 학년 올라가니까 CNN뉴스로도 하고 문법도 그래머 교재 쓰고 그랬어요. (장윤희)

이처럼 초등학교 때 받았던 영어교육에 의해 영어에 대한 실력과 흥미가 쌓이고 훗날 외고 진학을 생각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김소현은 초등학교 때 우연히 받았던 영어 원어민 수업이 매우 재미있었고 당시에 하고 있던 중국어 학습지도 재미있어서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외국어 관련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였다. 외고와 대학에서는 중국어전공을 하였는데 이는 중국어를 배우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제가 초6 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영어 원어민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 걸 들었었어요. 근데 그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영어를 쓰고 같이 하는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서 ‘아, 나는 나중에 고등학교를 외고를 가야 되겠구나. 왜냐면 영어를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되가지고 중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중1 때 담임 쌤한테 저는 외고에 갈 거라고 이러면서 쪽 지냈거든요, 중학교 3년 내내... (중략) 그 당시에 중국어도 같이 학습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연구자: 진짜 외국어에 관심이 있었나봐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어서... 중국어도 할 때는 힘들었는데 이제 학교수업이나 이런 거 하면 재밌으니까... 그래서 ‘아 나 중국어과 가야지’라고 고등학교도 중국어과 갔고 지금도 중국어과 간 거거든요. (김소현)

정영미의 부모님은 어릴 때에는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영어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화영어와 미군부대에서 원어민 아이들과 함께 영어를 배웠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문법 위주의 영어공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학교에 올라와서 영어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영어를 좋아하고 또 잘 했지만 중학교에서 영어 성적이 내
내 1등급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학원을 보내달라고 부모님을 조르기도 하였
다. 마찬가지로 이미나도 영어 학원을 오래 다니면서 영어를 좋아했고 잘하
기도 했지만 중학교 올라와서의 영어공부는 암기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였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초등학교 교사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 하세요. 근데 그거를 소위 스파르타식으로 공부 관련
학원을 과목별로 돌리고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중략) 근데 한 가지
좀 강조 하셨던 거는 영어를 강조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화영어랑, 미군부대가 △△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
게 아는 분을 통해서 미군부대 들어가서 또래 애들이랑 영어를 배우
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매주 가라해서 초등학교 때 미군부대에
가서 미국 애들이랑 영어를 하면서 그렇게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영어학원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다니진 않았어요. 잠깐 다니긴
했는데 지금 제 영어가 거기서 배웠던 것들은 아닌 거 같아요. (중
략)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학원을 권장하시는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부족함을 느끼는 수학이나 영어... 약간 취미로
하는 영어랑 학교에서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해서는 제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졸라서... 그 정도였어요. (정영미)

(연구자: 영어에 특별히 더 관심이 있다든지 이러기도 했어요?) 영어
에 워낙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학원을 오래 다녔고... 재밌
기도 했는데 또 학원에서 그런 활동들이 재밌어서 재미를 붙인 거기도
해요. 근데 영어를 중학교 들어서는 좋아한다고 말하긴 좀 그랬던 게
내신 영어점수 따려는 게 영어를 아무리 좋아해도 외우는 거 위주로
해야 잘 따지니까... 재밌게 공부한 게 아니라서 좀 마음이 식었던 거
같아요. (이미나)

이처럼 많은 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
고 이는 어렸을 적 경험했던 영어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모
든 과목에서 좋은 성취를 보였지만 특히 스스로 영어를 잘 한다고 여기고 이
것이 나중에 외고를 진학하는데 밑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중에는 처음부터 특별히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영
어를 어려워했던 참여자도 있었다. 초·중등 시절에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재능
은 자신의 외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반
드시 외고 입학의 필요조건이 되지는 않았다.

2. 높은 학업서열과 외교 입학

1)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늦으면 중학교 3학년 때 외교 진학을 결심하였다. 외교 진학을 생각하게 된 데에는 외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서, 장래 희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학원을 다니다가 외교에 대해 알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등 다양하다. 외국어 학습이 특화된 학교라는 점이 외교의 대표적인 특성인 만큼 연구참여자들의 외국어에 대한 강점이 외교 선택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어와 관련된 꿈을 가진 경우에 외교는 진로 목표를 위한 하나의 단계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 꼭 진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외국어를 더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외교는 매력 있게 여겨졌다. 장윤희는 당시의 성적으로는 지역에서 명문으로 알려진 사대부고를 갈 수도 있었으나 사대부고는 ‘빡빡한’ 분위기일 것 같고 외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외교 진학을 선택하였다. 당시에는 SKY³⁾가 뭔지도 몰랐다고 할 만큼 대입을 염두에 둔 선택은 아니었다.

중3 때 저희가 고등학교 추첨이 아니고 시험을 봐요. 저는 선택이 외교 아니면 사대부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가고 싶으니까 외교 써보자 해서... (연구자: 그래서 외교에 가고 싶은 이유가 사대부고 가기 싫어서?)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가라면 갈 수 있는데 여기 이런 분위기보다는 나는 더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연구자: 보통 특목고 선택할 때 대입을 많이 염두에 두고 하잖아요? 당시에 혹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은 좀 큰 도시라서 어릴 때부터 막 영어만 하는 이런데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대입 때문에 온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때까지 뭐 SKY가 뭔지도 몰랐어요. (웃음) (장윤희)

김소현 역시 처음에는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서 외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중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외교

3)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줄인 말

관의 꿈을 갖게 되었고 외교관이 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다가 외교를 가면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에 중학교 1학년 때 외교 진학으로 계획을 구체화 하게 되었다. 그 이후 중학교 3년 내내 외교를 가기 위해 어머니의 도움을 바탕으로 내신 관리를 하였다. 처음 외교 진학을 생각한 것은 자신이었지만 고입을 준비하는 데에는 어머니의 관심과 지원이 컸다.

그 때 외교관이란 꿈을 하고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찾다가 ‘외교관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외교를 진학하면 유리하다 이런 식의 정보를 제가 접해서 아 그럼 외교를 가면 더 쉬워지겠구나 싶어서 외교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연구자: 중1 때 외교를 가야겠다고 구체화되면서... 어떻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셨어요?) 음... 거의 ebs를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육열이 되게 높으셔서 그 때부터 ebs를 엄청 챙겨봤죠. TV로 보고 TV 안 되면 엄마가 녹화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성적이 상위권이었던데요... 전교권이었는데 3학년 때는 외교준비를 해야 되서 1년만 학원을 다녔었어요. ‘너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거 같다.’ 엄마가 판단을 내리셔서 가지고 1년만 학원을 다녀라 해서 다녔어요. (김소현)

정영미도 어릴 때부터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 당시 TV에 나오던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보며 외교관의 꿈을 꾸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이 외교를 비롯한 특목고 진학을 고려하게 한 가장 큰 이유지만 구체적으로 학교를 탐색할 때는 집에서 떨어져 살고 싶다는 생각에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 이는 진로에서 추구하는 바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어머니와의 마찰을 피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컸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함이었다. 집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일반고를 가면 불가능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외교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중3이 되면 고등학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때 한창 반기문 UN 사무총장 나오고 그랬어서 뭐 외교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꿈을 꾸기도 했었어요. (중략) 근데 한 중학교 2학년 후반 3학년 쯤 되면서는 약간 집에서 떨어져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기숙사 학교 가야겠다 그래서 △△외고를 고른 것도 공립인데 기숙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학 동기에는 그냥 학습에 대한 열정 이런 것만 있었다기 보다는 약간 엄마가 평소에 말씀을 하실 때 좀 저랑 마찰이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게 되게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숙사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진학이 학업적인 면이 크긴 한데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정영미)

이처럼 외고를 선택한 데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외고에 입학하기 전에 외고에 대한 인식은 공부만 하는 ‘빡빡한’ 분위기 보다는 외국어를 더욱 심화하여 배울 수 있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원하는 진로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외국어 특성화 학교라는 특징 보다는 일반 학교와 달리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특별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외고의 실제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보았을 때 외고에 대한 이미지는 외고 진학을 선택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때로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기숙사와 같이 부차적인 이유가 중요한 경우도 있다.

2) 당연한 수순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즉 성적이 좋다보니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외고 진학을 권유하였고 자신도 그 길을 생각하게 되었다. 공부를 잘 하면 당연히 특목고에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존재하고, 가족, 친구, 이웃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진로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더욱 의심의 여지없이 자신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여겼다. 이 때 외고에 대한 이미지는 단순히 ‘공부를 잘 하면 가는 곳’ 이고 자신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었기에 큰 고민 없이 외고 진학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인식되는 자신의 상태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없을 때 오히려 목적이 명확하고 고민의 요소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외고로 진학하게 된 건 제가 중학생 때 공부를 잘 했어서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너는 특목고에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친오빠가 특목고를 갔거든요? 그리고 사촌들이 다 외고를 갔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당연히 외고를 가야한다’ 이런 거였고, ‘너는 공부를 잘 하니까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는 가야지’ 이런 게 있어서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보다’ 해서... (이보람)

제가 □□□쪽 사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외고라고 그냥 공부 잘 하면 막연히 여기 가겠지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막연히 나도 ○○외고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중2 겨울방학 때 외고 준비 하려고 외고 준비하는 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갈 수 있는 고등학교 리스트를 주면서 가고 싶은 희망 순위를 3순위까지 정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 1로 적고 나머지를 어디 쓸까 알아보다가 그 때는 지역이 걸려있어서 지역제한이 있어서 경기도에 살면 경기도권 밖에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외고가 제일 좋더라고요. 거리는 멀지만 전교생 기숙사여서 갈 수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외고 가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전가영)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부터 경험한 사교육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실력을 키운 것 외에 직접적으로 특목고에 대해 안내하고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는 특목고에 대한 선호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와 학원의 수입을 올리려는 상업적이 목적이 합쳐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박주형은 단순히 영어 성적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영어학원에 등록을 하였는데 그곳이 마침 특목고 입시 학원이어서 외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학원들은 외고에 가면 차별적인 커리큘럼으로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며 입시준비를 부추기고 이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제안이다. 특히 박주형처럼 공부를 더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가며 하는 학생에게는 더욱 관심이 가는 이야기일 것이다.

중학교 올라갔을 때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했는데 다른 과목은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영어는 혼자 안돼서 엄마께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엄마께서 저를 특목고 입시 학원에 보내셨어요. 거기는 특목고 입시학원이다 보니 평균이 80점이 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원이고 시험을 봐야했는데 붙어가지고... (중략) 중학교 2학년 말 쯤에 학원에서 상담을 해요. 중3 때에는 외고 갈 사람이랑 안 갈 사람이랑 나눠서 준비 시키고 그랬는데 학원에서 약간 외고를 가면 좋다는 식으로 어필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학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말 같은데 그냥 ‘아 가면 좋구나’ 이러면서 준비하게 됐어요. (연구자: 가면 뭐가 좋을 것 같았어요?) 그 때 학원에서 했던 말은 외고에 가면 일반 인문계와는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인문계 가면 분위기 잘 타는 애들은 오히려 더 수업 못 듣고 성적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외고 가면 아무래도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등등등... (박주형)

이미나 역시 내신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해 학원을 갔는데 그곳이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원이었다. 외고반을 선택하게 된 것도 자의가 아닌 우연으로 사실 이과쪽에 관심이 있었지만 관련 선행학습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외고반에 오게 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외고 입학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성적이 좋았고 학원에서 외고반에 있었다는 이유로 외고 입학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생각되었고 부모님의 기대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외고에 대한 로망이 외고 진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당시 살던 지역이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없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근데 그게 사실 특목고 입학을 위해서 들어간건 아닌데 그냥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내신 성적 관리하려고 들어간 거였는데 (중략)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그 학원 다니면서 친구들도 같이 외고 입시 희망하고 선생님들도 그 쪽으로 지도하시고 이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준비 했던거 같아요. (중략) 부모님께 외고 얘기를 3학년 돼서 지원하게 될 때쯤 얘기를 했는데 약간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신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그랬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지원할 때 어머니께서는 꼭 너가 혹시 가고 싶지 않은데 가는 거면 안가도 된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실 되게 기대 하신거 같고... (중략) 제가 진학할 때 딱 저희가 평준화가 되가지고 좀 걱정도 들고... 외고 말고 다른데 생각을 안 해보기도 했었는데, 다른 학교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될지 선택도 못하겠고... 또 외고에 대한 워낙 좋은 말만 많이 들어서... 그런 로망 같은 것도 컸고... (이미나)

이러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은 류승희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목고 진학을 떠올리게 된다. 더욱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더욱 지역 고등학교를 기피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류승희는 자신이 공부를 잘 한다는 자존심 때문에 일반고를 가는 것이 더 아쉽게 느껴졌다.

중학교 때 □□에 살았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가 무슨 □□고였나 그게 있었는데 애들 상태랑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였어요. 복도에서 담배연기 나오고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데를 가보자 생각했고 제가 성적이 되니까 부모님이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데

가면 어떻겠냐 하셔서 알아보다가 성적이 계속 최상위권이면 모르겠는데 자사고까지 가긴 쉽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어서... △△△고인가 그런데 가려했는데 계속 1등한 친구가 거기 가게 되고 저는 그 밑에 특목고 알아보다가 ○○외고 지원했어요. 근데 중국어과 가게 된거는 제가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영어를 별로 안 좋아 했어서 영어성적이 한 2등급 대 이렇게 됐어가지고 나머지는 괜찮았거든요. (연구자: 그럼 그 때 부모님이 권유하신 것도 있고 본인도?) 네, 동네 고등학교는 안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약간.... 자존심도 있었던 거 같아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는데 일반고 가기는 그렇지 않나 그런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어린 마음에... (류승희)

요약하면, 외고로의 진학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인 조건은 성적이었다. 좋은 내신점수가 뒷받침이 되어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고 공부를 잘 하면 자연스럽게 특목고의 진학을 고려하게 하는 사회·교육적 분위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외국어교육 특화 고등학교라는 외고의 이미지가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외국어 기반의 진로를 고려하는 학생들을 이끄는 유인이 되었고 고교평준화로 인한 교육환경 선택권의 부재가 양질의 교육을 바라는 학생들에게 주요한 유인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사교육계의 특목고 이상화는 많은 학생들에게 특목고에 가면 일반고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위의 모든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자신이 목표로 한 외고에 가면 경험하게 될 교육과 환경이 어떠한고 그 안에서 어떠한 학업적 경험을 하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지 못했고 고려되지도 않았다. 간혹 그곳에 가면 잘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 정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외고 진학을 재고할 만큼 커다란 요소는 아니었다.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교를 고려하고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좋은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자신의 높은 학업적 서열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처럼 여겨졌다.

V. 외교에서의 경험: 학업서열의 하락

1. 학업서열의 하락과 자기불일치감

1) 초기 경험의 영향

외고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모든 학생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에는 달라진 시간표, 수업 분위기, 물리적인 환경 등이 포함된다. 외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 뿐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따라가기 어렵다’, ‘나보다 잘 하는 친구가 많다’, ‘내가 못 한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과 정서는 입학 후 매우 초기부터 경험되고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의해 나의 학업적 위치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렬한 정서를 유발시키고 이것이 긴 시간 동안 유지되기도 한다.

김소현은 외고에 입학하기도 전인 중학교 3학년 때 외고 진학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에 다니면서부터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 김소현은 중학교 시절 전교 5등 안에 항상 들었을 만큼 성적이 좋았지만 여러 학교에서 외고 진학 준비를 위해 모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자신보다 잘 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보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 전까지는 딱히 경쟁심을 느껴보지 못하며 공부하다가 나만큼 잘 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다. 김소현은 이를 “세계관이 깨지는” 경험이라고 하였는데 평소 자신이 인식하고 있던 학업적 능력의 위치와 현실적으로 확인되는 위치가 다른 것에서 오는 혼란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약간 외교를 체험한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경험이었는데요?) 약간...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죠. 학교에서 있던 것만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외고 준비반에 들어갔는데 저만한 비슷비슷한 애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저보다 잘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위축됐었거든요... 왜냐면 약간 제 세계관이 깨지는 것도 있고. (김소현)

고등학교에 대한 초기 기억을 물었을 때 연구참여자 8명 중 2명은 좋았다, 재밌었다고 대답한 반면 나머지 6명은 힘들었던 기억을 먼저 떠올렸다. 외교 입학 후에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학교를 경험하는 것은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다녔던 모든 외교에서는 3월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학생들의 수업 준비도를 보기 위해 진행한 테스트나 예비수업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달라진 수업 난이도나 분위기로 인해 압박을 느끼기도 하였다. 박주형은 초기 기억을 선생님이 무서웠다고 기억하고 있다. 박주형의 이 기억은 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때까지 영향을 주어 아직도 선생님을 어려워하는 편이다. 정영미는 첫 중국어 수업시간에 못 읽었던 중국어 단어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며 당시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기억하고 있다.

저희는 먼저 OT를 했어요. 2월 달에 일주일 동안 학교에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때 학교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적응하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오자마자 기억이 났던 게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100개를 주더니 내일 시험을 볼 테니까 모르는 단어가 많았는데 내일 시험 볼 테니까 내일 까지 외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약간 무서웠던 게 기억이 나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들이 무서웠어요. (박주형)

(OT 때 진행한 수업에서) 첫 중국어 수업시간에 돌아가면서 단어를 읽으라고 시켰었어요. 시켰는데 제가 그때 성조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쌤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시 말해보라고 그러면서 그게 저는 솔직히 약간...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면 조금은 약간 그랬나봐요. 단어도 지금 생각나요. 막 이러니까 여러 번 저한테 시켰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자괴감 아닌 자괴감을 느꼈었어요. (정영미)

3월 입학 후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수업 난이도 뿐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하고 수업을 잘 따라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보람은 외교 입학 후 첫 기억을 묻는 질문에 나보다 잘 하는 애들이 많았고 그것이 진단평가에서 등수로 확인 되었을 때 전학까지 떠오를 정도로 힘들었다고 대답하였다.

(연구자: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느낌이나 기억이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제일 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잘 하는 애들이 많고 이미 선행 학습이 너무 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너희 이걸 이미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적응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 처음이라는 게 얼마나 처음?) 그 처음에 들어가면 진단평간가 배치고 산가 그런걸 봐요. 거기서 또 엄청 하위권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어땠어요 그 때?) 전학을 가야하나? (웃음) 진짜 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전학을 가야하나... (이보람)

이처럼 자신이 학업적으로 뒤쳐지는 경험은 특히 영어수업에서 두드러졌다. 영어를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던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영어 실력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외고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외국어 능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외고의 특성상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국내에서 영어공부를 해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친구들의 높은 영어 수준에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저는 유학을 다녀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막연히 애들이 되게 잘 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다 버리고 입학을 했는데 세상에 절반 이상이 다 살다온 애들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처음 1년, 저는 고 1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중략) 영어를 그래도 그 동네에선 잘했지만 외고를 가면 부족할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겪으니까 좀... 아... 막 박탈감, 자괴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 유학 안 보내줬지 막 이런 것들... 애들이 이제 너무 다 이것저것 잘하고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전가영)

반면, 나보다 잘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박주형과 장운혜의 경우, 외고는 잘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입학했을 때 등수가 떨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 자신의 학업적 능력에 대해 현실적으로 파악하였거나 굳이 높은 등수를 받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입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낮은 등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충격 받지 않았다.

근데 저는 딱히 놀랍지는 않았던 게... 제가 ○○(지역)에서 공부를 막 엄청 잘 해서 그 학교에 간 게 아니라 그 중학교에서 내에서 어느 정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성적이 갈린다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인식하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딱히 충격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박주형)

거기에는 되게 이미 선행학습을 많이 한다는 소리도 듣고 갔고 내가 엄청 잘해야지 이런 욕심이 원래 없는 사람이라서 (웃음) 이 정도하면 됐다 생각도 되고 열심히 재밌어 해서 한 거는 잘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구자: 다른 과목 성적이 어땠어요?) 그냥 한 4, 5등급 정도? (장윤희)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이르면 외고 입시를 준비하면서부터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 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미 첫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수업에서 느껴지는 수준 차이로 인해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못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는 영어나 외국어 수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러한 경험은 처음 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충격, 자괴감, 박탈감 등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이를 미리 예상하고 들어갔거나 이전부터 등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잘 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입학 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인지하게 되고 이것이 학교에 대한 첫 인상으로 기억에 남을 만큼 큰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입학 초기의 경험은 이후의 학교생활에서 학업에 임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미나는 원래 영어를 좋아했고 잘 한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외고에 입학하고 나서 다른 학생들의 뛰어난 영어 실력을 보며 “기가 죽어서” 영어 자체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생긴 일이었지만 영어를 멀리하는 것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어졌다. 이처럼 특정 과목에 대해 자신이 못 하는 사람이 되는 경험은 해당 과목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었다.

일단 제가 가서 좀 더 확고해진 게, 들어가서 저는 거의 영어 말하기나 듣기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데 잘 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가 너무 죽어서 입학하고 얼마 안 되서부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애정 같은 게 되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대학교 입학해서는 좀 나아졌지만 3년 동안 계속 사라지지 않았던 게 있어요. 또 그래서 그 때 친구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수학과목인데 저는 원래 두 과목 다 좋아했었는데 좀 더 수학에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영어를 더 멀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미나)

학기 초반에 학업적으로 위치가 낮아지는 경험은 앞날에 대한 불안을 야기 하기도 한다. 이보람은 입학 직후에 친구들이 자신들이 한 선행학습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는 자신은 이미 늦어서 좋은 내신을 딸 수 없고 그러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데까지 생각이 증폭되어 위축되고 막막함을 느꼈다. 직접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 나는 이미 늦었고 경쟁에서 질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학기 시작 할 때, 3월 초에, 리더십 캠프? 모 그런 거라서 무슨 강의 를 듣고 밤에 같이 잠을 자고 이러는 건데 밤에 잠을 잘 때 애들이 자기는 학원에서 얼마나 선행을 했고 이미 수학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미 나는 늦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되게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중략) 되 게 묻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도 대학은 가야 하는데... 왜냐 하면 외교에서는 대학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엄청 말씀을 하시잖아 요? 대학을 가야하는데 나는 이미 내신으로는 이 친구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정말 나는 대학을 좋게 갈 수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보람)

이러한 불안과 위축은 실제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전가영은 같은 반 에 외국에서 살다 와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알고는 위축되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영어 발음을 들려주는 것이 망설여졌 다. 그래서 영어수업 시간에 참여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제임에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창피해서 아예 점수 받기를 포기하였다. 자신감 하락으로 일상적인 학업 수행마저 위축이 된 경우이다.

처음에 이제 같은 반 된 애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디서 공부를 했었냐”, “나는 LA 쪽에”, “캐나다 쪽에...”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한국에만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고1을 보냈죠, 되게 힘들어하면서... 1학년 때 영어과목이 4개였는데 그 중 하나가 영어소설을 읽고 자유롭게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근 데 그게 2번 이상 발표를 해야 참여점수가 안 깎이는 건데 그 두 번 을 못 채워서 깎였어요. 막 발음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원어민 발음은 아니잖아요. 그런게 뭔가 창피하고... 자유롭게 막 의사소통 이 될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막 프리토킹 하는 애들 사이에서 못하 겠는 거예요. (전가영)

이처럼 1학년 초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자신의 학업 능력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험은 자신감 하락과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해당 과목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실제 학업 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길게는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까지 계속될 정도로 그 여파가 크다. 자신의 능력을 비교할 대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특히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외국어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에 일 치감치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식간에 낮아진 자신의 학업적 위치로 인한 절망감, 불안감 등의 정서에 압도되어 학업에 대한 열의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 변하지 않는 등수와 무기력

자신의 학업적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등수와 과목의 등급이다. 중학교 시절 자신의 등수를 기억하고 있던 연구참여자들 중 가장 높은 성적은 전교 1~2등, 가장 낮은 등수는 전교 17등 정도였다. 중학교 내신 등급은 모두 1, 2등급 이내였다. 하지만 외고에 진학한 이후에는 모든 연구참여자가 급격한 성적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보람은 고1 첫 중간고사에서 가장 잘 본 과목은 6등급이었고 대부분의 과목은 7~8등급을 받았다. 이미 학기 초부터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혼날 것이 걱정되었다. 또한 잘 해내지 못 할 것이라는 불안과 우울감으로 공부가 잘 안 되었고 어쩌다 공부가 평소보다 잘 되었을 때도 친구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성적을 받아 절망감을 느꼈다.

과목 등급이 7, 8... 9까지는 없었구요, 7, 8이 정말 많았구요. 6이 제일 높은 거였는데 6이 몇 개 없었고 7하고 8이 제일 많았던 기억이 나요. (중략) 당시에는... 뭔가 아무것도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 공부를 해도, 정말 열심히 했었을 때도, 사실 외고에 가고 나서 우울함이 심해지다 보니까 학습하는 기능도 많이 떨어져서 집중할 수 있을 때가 많지 않긴 했는데 개중에 집중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잘 나와도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잘 해서 제 성적이 너무 낮게 나오는 적이 많아서 되게 절망적이었고... (이보람)

이보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실력과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주변에 워낙 뛰어난 학생들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나의 학업등급이 낮아지는 경험은 더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전가영도 낮은 성적에 좌절했지만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않았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등급을 보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적당히” 하게 되었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단 한 문제를 틀리고도 등수가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경험은 나보다 높은 친구들의 학업능력 수준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근데 막 아예 버린 것까진 아니고 그래도 ‘아 해보자’ 해도 이거고, 안 해도 이거고 너무 되게... 예를 들면 기말고사를 한 개 틀렸어요. 아 진짜 잘 봤다 이래도 4등급인거예요. 그런거 보면서 아 진짜 그냥... 딱 어느 정도로만 했어요.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대학가기 힘들니까 정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내신까지만 하자해서 그냥 적당히 했어요. (중략) 애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수능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반등수가 나오는데 영어를 97점이나 98점 이렇게 하나를 틀리면 32명중에 28등으로 뚝 떨어요. 그니까 애들이 다 맞는 거죠. (전가영)

박주형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도 크게 변하지 않는 등수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주형은 외고 진학 전에 일반고에 가는 것 보다는 내신에서 자신의 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였지만 모의고사에서 조차 같은 점수를 받아도 훨씬 더 낮은 성취로 인식되는 외고의 분위기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자신이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과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주위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잃기도 하였다.

성적은 죽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공부 안 했을 때는 하위권이었다가 공부했을 땐 중위권이었다가. (중략) 스트레스를 확실히 많이 받기는 하는게...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서 보통 3등급을 받으면 그래도 일반 인문계라면 중상위권인데 3등급은 거기에서는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내신은 원래부터 어려웠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나중에 방향성 잃고 좀 성적도 더 떨어지고 한 것도 있었거든요.(박주형)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모이는 외고의 특성상, 학업능력이 훌륭한 학생도 상대평가에 의해 성적의 하위 그룹에 속하게 되는 학생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학기 초에는 친구들과의 대화나 수업에서 주관적으로 자신의 낮아진 위치를 인식하다가 중간고사나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시험 등수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자신의 낮아진 위치를 확실하게 확인하였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거나 실제 시험에서 한 문제밖에 틀리지 않는 등 좋은 성과를 내어도 상대적인 평가에서 여전히 낮은 위치에 머무르는 경험을 하다 보니 절망감을 느끼거나 “그냥 적당히” 하자는 생각으로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열심히 해도 오르지 않는 등수는 그 상태에 안주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의욕상실과 무기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정서는 수행을 저조하게 하고 이는 다시 자책과 낮은 성적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겪기도 하였다.

김소현은 외고에 입학했을 때 자신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선행학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당시 집안 사정 상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고군분투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 과목에서 누적되다보니 수학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고 결국 공부 자체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정영미 역시 잘 하는 친구들과 나의 사이에 이미 큰 갭이 존재하고 노력해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업을 따라가는 정도가 다른 거죠. 물론 그 아이들은 예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일 텐데 저는 예습을 안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수준 정도도 저한테 조금 높았어요. 그런데 그걸 커버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과목이 많으니까... 저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르치는데 그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부터 약간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죠. 그리고 제일 그랬던 게 수학인데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중략) 그 당시에는 제가 제 감정을 제대로 읽을 줄을 몰랐는데 그냥 ‘아씨 나는 나고 재는 재니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1학년 땐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약간 회피형이죠, 그 상황을 바로 직면 안하고 그냥 그렇지 하면서 회피했던 거 같아요. (김소현)

(연구자: ‘공부를 왜 더 치열하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왜 그랬던거 같아요?) 음... 약간 충격? 도 있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항상 상위권이었고 내신도 산출 했을 때 그 때 그 지역에 있는 제일 높은 학교도 갈 수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잘하는 애들도 엄청 많이 만나고... 그래서 개네를 내가 따라 잡으려면 깎이 크잖아요. 그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영미)

류승희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회상한다. 자신은 이과 쪽 과목에 더 자신이 있고 오히려 영어는 힘들어했었는데 일반고는 가기 싫고 자신의 점수를 맞는 특목고에 지원하다보니 외고에 오게 되었다. 또한 집안 환경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빨리 돈을 안정적으로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고 생각했기에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만 생각했을 정도로 목표도 컸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의 적성과는 맞지 않는 학교 커리큘럼과 학업에서 반복되는 좌절감이었고 이러한 정서는 학교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쳐 고등학교 생활 내내 큰 무기력감에 시달렸다.

무기력함이 엄청 학습이 됐었어요. 어쨌나면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거의 집에 안가요. 2주에 한번 갈까?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전 매주 갔거든요. 늘 똑같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학교에) 돌아와요. 근데 이제 저녁에 오면 주말에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다가 금요일만 되면 마음이 뒤숭숭해져요. ‘어서 집에 가야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집에 가서 주말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살았어요. 너무 무기력 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구요. TV 보거나 놀고 싶지도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서 시체처럼 있고... 밥 먹고 화장실만 가고 진짜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자책감을 느껴요. 내가 그래도 수능 봐야 되는 사람이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되지 않나 하며 다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려 노력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그걸 매주 하다 보니 미련하게 살았죠. (류승희)

이처럼 참여자들은 학업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 방법을 강구하기 보다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계속되는 무기력으로 더욱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학업적 서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실패를 겪으며 무기력이 학습된 결과이다. 이

처럼 정서적으로 함몰되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참여자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연구참여자도 있다. 이미나는 어느 시점부터 공부를 안 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지 않았다.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도 있었고 자습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다 공부할 때 혼자 책을 읽으면서 나름의 일탈을 즐기는 것에 대한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안 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나중에 고3 돼서 열심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마음을 다잡고 그런 게 별로 없었고... 그리고 워낙 딴 친구들이 다들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또 그런 뭐라 해야 하지... 저 혼자 막 안한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또 그 느낌이 싫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 때 그래서 그냥... 별로 그렇게 막 매달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때 자습시간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 그 시간에 책을 읽었거든요. 그게 공부 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래서 그냥 다른 애들 공부할 때 난 책 읽는 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일탈을 즐긴 것처럼... (이미나)

요약하면, 연구참여자들은 외고에 입학하면서 불시에 낮아진 자신의 학업적 서열로 인해 자신이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던 자신의 학업능력과 현재 성적으로 확인되는 현실적인 위치 사이에서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학업서열이 하락한 이후에는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등수로 인해 반복적인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의욕상실과 무기력을 가져와 현실을 회피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였다. 학습된 무기력은 또 다시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저조한 학업수행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 중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존감 하락, 위축, 좌절감, 박탈감등의 자기불일치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학교 시스템과 대인관계

외고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일반고에 비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이런 자율성이 외국어 학습에 특화 된 학교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지만 수업의 난이도를 높게 설정하거나 자습 시간을 더 확보하는 등 학습을

강조하는 체계를 만들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8명 중 4명은 이러한 학교 체계로 인해 학업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김소현은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외부 자원을 이용해 보충학습을 해야 했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과 의욕 저하로 인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었다. 이러한 부분이 외국어 과목에서도 계속 되다보니 어릴적부터 가지고 있던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사라지게 되었다.

저희 학교가 되게 시키는 게 많았어요. 과제를 막 준다거나 그런 게 많았어서... 제가 그걸 견디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 물론 다른 학교도 많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난이도가 있잖아요. 난이도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충학습이 필요했는데, 보충학습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별로 의욕이 없었기에 안한 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라고 인정해요. 원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서 이 길을 간 건데 오히려 고등학교 와서 떨어졌죠. (김소현)

류승희는 단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자습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시간동안 계속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도록 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밥을 빨리 먹고 자습실에 들어가야 했는데 소화기능이 약한 류승희로서는 무리였다.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장시간 앉아서 하는 공부 스타일은 자신과는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되었다.

점점 학년 올라갈수록 점심시간에 자습을 시키는데 이제 거의 3학년 되면 때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3학년은 먼저 먹게 하거든요, 배식을. 그럼 10분-15분 내 먹고 이 닦고 겨우 들어가야지 자습실 안에 들어가서 자습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공부하는 애들 방해된다고 문 잠가요 그래서 해보려 했는데 소화가 안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혼자 있는데 부모님도 없는데 아프면 서럽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밥을 돌았어요. 일부러 안 들어가고.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몸이 이러다보니까 단시간에 베풀치기하거나 그런 타입인데, 약간 양치기라고 하잖아요, 공부시간이 길어야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아니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억지로 그 시간 앉혀놓고 그런 게 힘들었어요. (류승희)

이보람은 하루 13시간을 공부해야 하는 학교의 시스템을 전형적인 특목고 시스템이라고 칭했다. 남들은 고3의 1년간 느끼는 수험생활을 본인은 3년 동안 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시기 동안은 계절 변화도 느끼지 못 할 정도로 갇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축제나 동아리 등 기분전환을 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던 것도 갑갑한 기분이 들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학교는... 전형적인 특목고 시스템?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부해야 하고 저희가 축제, 체육대회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동아리도 예체능 동아리 2개? 이 정도 밖에 없고 뭔가 기분 전환 할 만한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더 갑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따로 자습실이 있어요. 정말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있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정말 뭐라고 해야 하지... 그냥 되게 갑갑해지지는?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시간들이 안 끝날 것 같고... (웃음) 왜냐하면 저희는 거의 3년을 수험생처럼 공부를 하니까 되게 길게 느껴졌던...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1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계절에 민감하지 않잖아요? 실내에만 있으니까. 에어컨 켜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를 정말 스무살이 돼서 체감을 한 것 같아요. (이보람)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강조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학업 지도도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졌다. 장윤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재미있어서 공부를 했고 좋은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던 스타일이다. 중학교 시절에 밤을 새서 공부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서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듯이 했던 말이 장윤희에게는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경쟁을 꺼리는 장윤희의 특성 때문에 선생님의 그런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만 더 가중시켰다.

2학년 때 쌤이 모든 학생들한테 공부 자극을 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면은 어디밖에 못 간다, 더 열심히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연구자: 어떻게 느껴졌는데요?) 그럼 난 이 학교밖에 못 가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야 되지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중략) 자꾸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거에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 이런 게 느껴지니까 공부가 재밌어서 하게 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약간 경쟁해

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심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경쟁에 치열하고 이런 거를 그냥 꺼려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겠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 어떡하지?’ 스트레스처럼... 그렇다고 공부를 놓은 건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열심히 하는데 나만 안하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장윤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부와 대입이 강조되는 학교의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학업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고 수업의 수준이나 시간표의 배분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외고의 특성상 이러한 부분은 더욱 강조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공부가 특히 강조되는 외고의 특성은 학업 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더욱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숙사는 외고가 가질 수 있는 학교 시스템 상의 또 다른 특징이다. 연구참여자 8명 중 6명은 기숙사 생활을 경험하였다. 기숙사는 전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인 경우도 있다. 보통은 4인 1실을 사용하며 자신이 속한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도 섞여서 룸메이트가 된다. 이러한 기숙사 생활은 짧으면 5일, 길면 한 달 가까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하루 24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며 오직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만 교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숙사생활을 즐겁게 여기고 만족했던 연구참여자도 있는 반면, 기숙사 생활이 가져오는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졌던 연구참여자도 있다. 여기에서 폐쇄적인 환경이란 정해진 공간에서 바뀌지 않는 구성원과 거의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굳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학년이 올라가도 반 구성원이 거의 바뀌지 않는 외고의 특성은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게 만들기도 하고, 학업적으로 비교 대상이 한정되다 보니 경쟁적은 구조 내에서 낮아진 자신의 학업적 서열이 더욱 비가역적인 것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역할도 하였다.

박주형은 외고의 특성 상 같은 전공 내에서만 반이 바뀌는데다 기숙사 생활까지 하며 좁은 대인관계 풀(pool) 내에서 ‘부대끼는’ 것이 힘들었다고 기억한다. 때로는 맞지 않는 친구도 있는데 환경 특성 상 3년 내내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지내야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기숙사 학교이다 보니까 소문이 빨리 퍼지는 것도 퍼지는 건데 애들이 계속 부대끼고 살잖아요... 과 특성상 일본어과가 2반이고 48명이었는데 그 안에서 3년 동안 계속 반만 바뀌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랑 맞는 애가 있고 안 맞는 애가 있는데 그 애들은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3년 동안 있어야 하니까 그것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많이 안 사귀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왜냐하면 애들 성격도 잘 안 맞고 해서 그래서 소수로 다녔는데... 근데 소수로 다니는 게 계속 3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인간 관계가 그 안에서만 돌아가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기숙사에서 계속 마주보고 살아야 되니까 참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박주형)

류승희는 외고와 일반고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주입식 교육이 주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외고가 일반고보다 좀 더 경쟁이 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성적으로 사람이 판단되는 것 같은 인상도 받았고 아이들이 학업 성취가 높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을 모아 놓은 환경 내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 보이지 않는 왕따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일반고처럼 집에서 통학하는 환경이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러한 대인관계가 더 힘들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특히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아니고 치열하게 하는 애들이고... 또 마냥 순하게, 착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서로 가릴 거 가리면서 잘되려고 서로 하고 좀 이기적이고 특히 기숙사 생활했을 때 그런 게 많았죠. 그래도 이제 애들이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애들을 왕따 시키고 이런 건 아닌데 알게 모르게 차갑게 대하고... 오히려 더 은은하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정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전학을 가기도 했어요. (류승희)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부가 더 우선시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며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에 오히려 나의 공부에 집중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보람은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사람인데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힘들었다. 또한 나와는 달리 자존감이 매우 높아 보이는 친구들과 있을 때는 열등감도 느껴졌다.

저희 외고가 잘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자존감이 되게 낮은 편이었다 보니까 자존감이 엄청 높은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 열등감도 있었고... 저는 좀 뭔가 다 받아주는 스타일인데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는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니까 친구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니까 친구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하면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고... (이보람)

요약하면, 많은 외고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기숙사 생활은 집과 학교의 거리가 먼 학생들의 통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생들은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는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3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 반편성과 24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 시스템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잠시 떨어져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학업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는 만큼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다보니 관계보다는 성적이 더 중요시 되는 분위기도 있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학업 서열의 하락과 더불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부정적 정서의 해소를 어렵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 견디게 한 보호요소

1) 외고에 다닌다는 사실 그 자체

외고에 입학한 후에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서열의 하락에 따른 자기불일치를 경험하며 불안, 우울, 위축감, 무기력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존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보호요소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보호요소는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학업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고 상황을 견디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보호요소의 하나로 외고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작용하였다. 김소현은 외고 입학에 자부심을 가졌는데 입학 당시 부모님이 매우 좋아하셨고 외고는 성적으로 선발과정을 거치는 만큼 아무나 입학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학교에 계속 남아서 상황을 견디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연구자: 입학하고 합격 확인하고 나서 어땠어요?) 그 때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니가 갈 줄 몰랐다고, 니가 간다고 간다고 했는데 진짜 갈 줄 몰랐다고.” (연구자: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네, 되게 자부심 있어 하셨어요, 다니는 거에 대해. 저도 초반에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중략) 학기 초였는데 4번 애가 남자애였거든요, 근데 개가 엄청 특이한 애였는데 개가 1주일인가 2주일 쯤 자퇴인가 전학을 갔어요. 개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아 애는 여기가 안 맞아서 갔나보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 학교까지 들어 와놓고 왜 자퇴를 하지?’ 생각 했었어요. 이 학교를 들어 와놓고... 왜 힘들게 들어 와놓고... (김소현)

학업적으로 매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을 가지 않은 이유는 외고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장점과도 관련이 있었다. 여기에는 외고만의 장점과 특별함이 있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연구참여자의 마음이 담겨있다. 이 미나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생각하면 전학을 가는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학교를 떠나는 게 아쉽게 느껴졌다. 쉽게 들어 온 외고가 아니었고 일반고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외국어교육 이라든지 학업적으로 뛰어난 친구들과 경쟁하는 것, 외국어로 장난하는 것도 외고가 아닌 곳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이러한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연구자: 전학 갈까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 때도 했었는데 제가 막상 가보니까 수학을 더 좋아하게 되다보니까 이과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그럼 전학을 가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 같은거예요, 성적도 더 좋아 질거고...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전학 가는게. 학교에 남아서 버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있어서도 크지만, 쉽게 외고에 들어온 게 아닌데 온 김에 좀 버티고 싶고 또 그런... 특별함이 있잖아요. 기숙사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외국어 공부를 특히 더 하고 잘하는 친구들과하고 경쟁하고 이런 거를 기회 같은 거를 버리기 싫었었어요. (이미나)

외고는 대입을 생각했을 때에도 메리트가 있었다. 외고에서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일반고 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통념이었다. 외고이기 때문에 낮은 내신도 참작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대입에서 외고생은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이러한 것은 실제 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전가영은 외고 입학 전에 입학 설명회에서 전교생의 70% 까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간다는 통계를 들었다. 이것은 본인이 현재는 외고에서 중하위권에 속하지만 결국에는 서울 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였고 이러한 낙관주의가 고등학교 3년 내내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학은 가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 그 문제도 있었어요. 일반고에 가면 이미 제가 외고에서 내신이 너무 낮는데 일반고에 가면은 일반고에 가는 메리트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니가 외고에라도 있어야 이 내신으로 대학을 갈 때 수시로 갈 수 있을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근데 결국 정시로 왔죠. (이보람)

이제 중3 때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가면 대학 진학률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서연고 서성한 요기까지 진학률이 거의 한 6-70%인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안에는 드니까 가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중복합격자랑 재수생 다 합친 결과였는데... 그런거 까지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리고 되게 낙관주의에 찌들어있어서 ‘하하하 나는 잘 될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난 잘 될거야. 열심히 했고 뭐 잘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죠. (전가영)

요약하면, 외고에 입학해서 학업적으로 뒤처지는 경험을 하면서 무기력과 불안감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외고에 머물렀던 것은 외고가 주는 특별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요소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어느 정도는 유지시키고 성취와 관련된 자기불일치감을 감소시켜주는 보호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소에는 외고입학에 성공했다는 자부심, 일반고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학업 환경과 뛰어난 친구들, 특목고가 대입에서 유리하다는 생각 등이다. 외고는 일반고보다 학업적인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준도 함께 높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잘 하는 것과 정시전형에 집중

외고에서 학업적인 어려움은 공부 자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공부가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겨지게 하였다. 이는 과목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외고의 특성 상 영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다보니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몇몇 연구참여자의 경우 이렇게 떨어진 자신감을 본인이 자신이 있거나 좋아하는 공부 또는 활동에 집중하면서 되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미나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하고 잘 했지만 외고에 와서 영어에서 부진하면서 수학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수학 문제가 풀렸을 때 쾌감으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수학을 잘 한다는 사실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흥미는 줄어들고 점점 수학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영어가 제가 평소에 잘했다고 생각한 과목인데 거기 가서 그렇지 않으니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수학을 하게 된 것도 있고 약간 영어에 대한 도파 느낌으로... 제가 수학을 원래 좋아하는 게 있기도 했고요. 막 수학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연구자: 수학 문제 풀면서 어떻게 풀었어요, 스트레스를?) 일단... 다른 공부 할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다들 얘기하지만 확실히 수학 문제 풀었을 때 쾌감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됐고 친구들이 저한테 문제를 물어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 한다고 확신이 드는 게 좋았어요. (이미나)

정영미가 다닌 외고는 다양한 교내 활동이 많았다. 동아리 활동, 공모전, 해외 봉사활동 등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학업 외 활동들이 많았고 정영미는 어린 시절부터 했던 다양한 예체능과 해외여행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고등학교 1, 2학년 여름방학에는 몽골로 교육봉사를 갔고 학생회 활동과 동아리는 부장까지 했다. 학업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잘 하지 못한다는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이러한 학업 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출구가 되었고 덕분에 고등학교 생활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래도 이것저것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와중에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역사 되게 좋아 했어서 역사공모전 이런 것도 나가고 외고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활동 되게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동아리 뭐했어요?) 사물놀이 했었어요. 근데 약간 그거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건 더 하고 싶어 하고 안 좋아하는 건 안 하잖아요. 저는 근데 학업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나 그런 걸 받아서 더 심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영미)

장윤희도 전반적인 등수는 좋지 않은 편이었지만 경쟁을 싫어하고 재미가 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격이었기에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별로 비교하지 않았다. 국사, 체육, 프랑스어처럼 내가 재미있어서 열심히 한 과목은 학업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잘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과목을 잘 하고 저 친구는 과목을 잘 한다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친구들이랑 비교했다면 ‘재는 ○○고 준비하다가 와서 수학을 잘 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 국사나 체육처럼 재밌어 하는 과목은 나름 잘 하고 그랬어가지고요. 그리고 프랑스어도 1학년 때 공부하면 자격증을 따잖아요. 근데 그걸 탄 사람이 4명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제가 있고 그래서... 재밌어 하는 거는 잘 해요. 그래서 딱히 그런 비교를 안 했던 거 같아요. 내가 불어를 잘하고 재는 다른 거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윤희)

이처럼 자신이 무언가를 잘 하고 좋아한다는 느낌은 자기 자신이나 학업에 대한 자존감을 지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중학교까지 자신이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이 자아개념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환경에서 불일치감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잘 하는 것, 즐길 수 있는 것을 찾게 되고 그것이 불일치감을 완화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이 외고에서의 낮은 학업적 서열을 견딜 수 있게 한데에는 대학입시에서 정시전형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시전형은 전형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신의 비율이 정시전형보다 높은 반면 정시전형

은 주로 수능점수로 학생을 선발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내신 성적이 중하위권이었고 3년 동안 내신 점수에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에서 내신점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반고로 전학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능점수가 높으면 정시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내신점수 올리는 것을 단념하고 수능준비에 더 몰입하였고 모의고사 점수는 내신에 비해 높은 등급을 받았다. 정시전형은 무기력했던 연구참여자들이 다시금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유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영미는 내신점수가 안 좋았지만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말이 영향을 미쳤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모의고사 점수가 높고 외고는 내신점수가 조금 안 좋아도 수시에서 전형을 잘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선생님들의 말에 걱정을 놓기도 하였다. 정영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내신등급을 산출해보고는 좌절을 하였다. 수시전형도 찾아보았지만 본인의 성적에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내신을 올리기보다는 수능을 위해 모의고사 공부에 집중하였다.

약간 그때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던 거 같아요. 왜냐면 하도 선생님들이 너희 내신은 걱정하지 마라 모의고사 높으니까 그리고 꼭 내신만 보는 전형이 아니고, 뭐 외고는 못해도 5등급 까지는 뭐 그런 전형 있잖아요, 자기소개서랑 면접 이런거로 들어가는 그런 전형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신점수를 올리긴 올려야겠지만 그렇게 내신에 연연해하지 마라 이랬던 거 같아요. (중략) 3학년 때는 일단 제가 하던 활동들을 다 안 하게 되잖아요, 동아리도 2학년까지만 하고 학생회도 2학년까지만 하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공부만 해야 됐었는데 이제 내신을 산출을 하고 보니까 자괴감, 그니까 현실에 이제 닿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전형을 찾아보고 해도 그게 그렇게 선생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쉽지만은 않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내신을 올리려고 하긴 했지만 높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위해 좀 더 했던 거 같아요, 수능을 위해. (정영미)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정시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공부에 대한 능력이 오르고 자신감이 돌아오기도 하였다. 내신점수와 모의고사 점수 모두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한 가지

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이 부담을 줄여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보람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무기력감이 심해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다가 2학기에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공부도 잘 되고 성적도 올랐다. 내가 공부해야 하는 것의 범위가 축소되니까 ‘할 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 공부도 더 잘 되었다.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거의 공부에 집중을 못했어요. 해도 안 된다는 무기력함이 너무 심해서 공부 자체를 아예 잘 못 했고 효율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아예 내신을 포기를 하고 정시 공부를 해봐야 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아예 태세를 바꾸니까 그 때부터 조금씩, 뭐라고 해야 하지, 자신감이 돌아오고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정시공부랑 수시공부랑 되게 성격이 달라요. 근데 제가 정시랑 수시를 다 잡지는 못 했고 정시에만 아예 집중을 하고 저한테 주어진 과목들이 제한적 이니까 좀 할 만하겠더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더라고요. (이보람)

김소현의 경우는 우연히 3학년 첫 모의고사를 매우 잘 보면서 정시는 해볼 만 하다는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났다. 그래서 내신점수 올리기를 포기하고 수능에 집중하였다. 원래부터도 내신은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점수만 받고 수능을 목표로 하긴 했었지만 3학년이 되면서는 아예 내신을 “버렸다”. 그러자 스트레스도 줄고 자신이 스스로 커리큘럼과 목표량을 설정하여 공부하니까 “할 맛”이 났다.

하필이면 그 때 3월 모의고사를 되게 잘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연한 근자감이라고 해야 되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가지고... 자신감이 꽤 붙었어요. 왜냐면 더 이상 학교성적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전까진 학교성적이 주로 스트레스를 줬는데... 고3 때는 전 아예 내신을 버렸어요. 애초에 성적을 받을 때 전 수능에 올인한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받아 놓을 것만 받고 스스로 공부만 해서 고3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제 개인플레이로 돌아가니까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연구자: 개인 플레이라는게?) 저 스스로 커리(큘럼)를 잡고 저 스스로 목표량을 채우고 그거에서 오는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는 그런 거죠. (김소현)

류승희는 극심한 무기력으로 공부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영어에

서 많은 좌절을 경험했다. 그래서 애초에 외고에 오기로 결정했던 시작부터가 잘못이었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러던 중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은 것이 자신이 “시험형 인간”이라는 생각이었다. 초·중학교 때의 경험을 통해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하는 수행평가보다는 시험에서 강한 유형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평소 모의고사 점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 내용 뿐 아니라 방법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자신의 공부 방식을 정립해가며 공부하자 그렇게 어려웠던 영어도 성적이 올라 최종 수능에서 결국 한 개만 틀리는 성적을 냈다.

(연구자: 성적에서 좌절되는 순간을 어떻게 견뎌낸 것 같아요?) 내신을 접고 제가 시험형 인간이라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시험을 통해서 가름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시험에 강했어요. 특히 초, 중 때도 평소 보는 수행평가 이런 건 취약했고 시험에 좀 강한 타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고(모의고사)를 해봐도 성적이 좀 되니까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엔 최상위권 대학 아니면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인강을 통해서 많이 도움 얻었던 거 같아요. (류승희)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내신 점수가 좋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는 내신보다는 수능시험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몇몇의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이 잘 되고 성적이 오르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 외고 내에서 내신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학업 서열은 낮았지만 모의고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전국 학생 기준의 서열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에 자신이 더 잘 하고 있는 모의고사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시전형을 통해 수시전형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대학에 도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져온 것을 보인다.

3) 주변인의 사소한 관심과 소통

연구참여자들이 고등학교 때 자존감이 하락하고 무기력해지는 등의 힘들었

던 상태를 견딜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 사람의 사소한 관심과 소통의 도움도 있었다고 하였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단순히 그 사람이 그 곳에 존재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견뎌낼 힘을 얻기도 하였다. 김소현은 전반적으로 학업에서 힘들었지만 세계사는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ebs 인터넷 강의의 세계사 선생님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를 반복해서 보고 후기를 쓰고 선생님의 서명이 있는 교재를 받는 것은 김소현의 힘든 고3 생활에 활력소가 되었다.

고3 때는 제가 인강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ebs만 주구장창 봤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거 때문에 안 힘든 것도 있었어요. 저 그 때 세계사 쌤을 좋아해서 세계사를 엄청 좋아했죠. (웃음) 그래서 수능 끝나고 실제로 봤었어요, 따로 연락해서. 그 때 되게 좋았는데... (웃음) 야자 시간에 제일 좋았어요. 야자시간에 인강 보고 그 쌤이 이벤트도 했었거든요. 수강 후기를 꼭 올려주면 5등까지는 수능완성 교재를 보내 준다는가... 쌤 싸인 있는거... 매 번 야자가 10시에 끝나잖아요? 9시에 인강을 봐요. 그리고 끝나고 집 가면 바로 후기 올리고 자고 그랬었어요. 그게 활력소였어요. (김소현)

김소현은 또한 2학년 2학기 때 너무 힘든 나머지 자퇴를 심각하게 고민했을 때 지금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을 주었던 체육선생님과의 관계와 그 간의 도움을 생각하며 자퇴를 하지 않고 남은 기간을 버틸 수 있었다.

그 때 전학을 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때 전학을 못 간 이유가 같이 친하게 지냈던 쌤 때문에 못 갔어요. 왜냐면 제가 고1 때 너무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해서 체육쌤한테 많이 찾아갔었어요. 그 쌤이 힘든거 있으면 부담 없이 찾아오라 해가지고 계속 찾아가고 야자시간에도 감독이시면 따로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가지고 그게 쌓인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학을 가면 그 선생님과 지금까지 쌓아 온 것도 있고 힘써주셨는데 이게 무너지는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선생님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 생활을 보냈거든요. (김소현)

류승희는 학교에서 힘든 부분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하지 못 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모습에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었고 주위에 그런 깊은 얘기를 나눌만한 친구도 없었다. 그나마 학교의 경비아저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었다.

그나마 경비아저씨와 친하게 지냈어요. 친절하셨거든요 엄청. 두 명 계셨는데 그나마 경비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며 기분전환을 하고... (연구자: 어떤 대화를 나눴어요?) 한 분은 마냥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재밌으시고 한 분은 심오하시고 삶의 철학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의 과거에 살아왔던 일화를 들으면서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고...(웃음) (류승희)

이보람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경우이다. 이보람은 성적이 저하되면서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하였는데 2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 심리상담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난 진짜 한심하다”처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많았는데 상담을 통해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잘 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상담사의 정서적 지지가 도움이 되었다.

(부모님이) “너 그렇게 하면 정말 망한다.” 그러면서 모의고사 하나 변화에도 되게 예민하게 하시고 저의 상태를 이해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약해서 그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약간 제가 정서적으로 지지 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선생님이 약간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게 그 때의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 힘으로 사실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보람)

이보람은 학교에서는 성적과 내신으로 학생들을 보지만 상담선생님께서 자신에게 수능이나 내신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다른 재능을 가졌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학교에서도 성적보다는 현재의 경험을 강조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간혹 가다 되게 인간적이신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교가 기독교 학교다보니까 믿음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간혹 가다가 ‘대학보다는 너네 지금 경험이 중요한거다’ 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서 그나마 제가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보람)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

누거나 조언을 해준 준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당시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직접 만나지 못 해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었으며 선생님들이 지나가듯 하시는 말에서도 위안을 얻었다. 특히 자신을 성적이 아닌 고유한 모습 그대로 봐주고 지지해 주는 것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업서열의 하락으로 자신의 존재가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존재가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VI. 대학 생활: 학업서열의 변화 혹은 유지

1. 대학적응의 모습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외고에 입학하면서 학업적 서열이 하락하고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사이에서 불일치감을 경험하며 학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에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입시의 과정을 거쳤고 모든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못하게 되면서 다시금 자신의 학업적 위치에 있어 이상 및 현실 사이에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였으나 대학입시가 끝난 뒤 입학한 대학에 적응하고 학업을 수행하는 모습에서는 연구참여자들 간에 차이를 보였다.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평판의 대학에 진학하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과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에서 좋은 수행과 성취를 내는 데에도 연구참여자마다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에 대한 의욕 및 성취에 있어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연구참여자들을 3가지 유형으로 묶어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1) ‘내가 원했던 공부를 하면서’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는 현재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나 성취도도 높은 상태이다. 이미나, 이보람의 대학생활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학 입학 당시에는 현재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지만 정착하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해 나가고 있으며 학업에도 열정을 가지고 좋은 성취를 내고 있다.

이미나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으로 비추어보아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 스스로도 기왕이면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수능 점수가 너무 낮으면 재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수능을 치렀다. 그래서인지 긴장을 안 하고 수능시험을 보았고 점수는 모의고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다. 하향도 상향도 아닌 수준으로 대입원서를 넣었고 원서로 넣은 대학에서 다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재수를 결심하던 중에 추가합격이 되어 현재 대학에 오게 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 가장 맞는다고 생각했던 대학은 떨어지고 추가합격으로 붙은 현재 대학의 전공은 흥미와 아주 잘 맞지는 않았다.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한 번 수능에 도전해보자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추가합격이 된 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추가합격 발표 난 하루만 좋았고 거의 한 학기 내내 별로 좋진 않았던 게 거의 마음을 비우고 재수학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김에 아예 이제는 그동안 열심히 안했으니까 이제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붙으니까... (중략) 입학 이후에는 내가 그냥 재수를 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적응을 좀 못 했어요. (이미나)

이미나는 고등학교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대학이나 전공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기에 망설였지만 일단 합격을 했으니 진학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막상 입학을 결정하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로 잘 알고 들어온 게 아니었기에 애교심도 부족하고 점점 아쉬운 것들이 눈에 띄었다. 전공 커리큘럼도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 보니 아쉬움이 더 커졌지만 1학년은 휴학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재수는 접고 다른 학교로의 편입을 생각했다. 학업에 의욕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도 멀다보니 늦잠 자면 수업을 그냥 빠졌고 출석의 영향을 받아 학점도 매우 낮았다. 당시에는 어색해서 전공 모임에도 잘 안 나갔었는데 그러다보니 더욱 학교에 흥미를 못 느껴서 자주 빠지는 악순환이 되었다.

약간 회피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그 때까지만 해도 편입도 생각을 하다보니까 굳이 뭐 내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한 거 같아요. 사실 거리가 먼 것은 지금 학교에 큰 부분이긴 한데, 더 좋은 학교였으면 신경 안 썼을 것 같기도 해요. 제 동기들이 당시에 ○○대를 이례적으로 되게 많이 갔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멀지 않아서 자주 놀러가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부러움이 컸던 거 같아요. ○○대를 가고싶다기 보다는 다들 좋은 학교를 많이 갔으니까... 아쉽죠. (이미나)

이미나가 학교에 적응을 하게 된 것은 학교 친구들과 다른 전공으로 전과를 하게 된 영향이 컸다. 처음 마음을 다잡게 된 계기는 1학기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다. 출석의 영향으로 매우 낮은 학점이 나오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출석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방학 동안 구성원 모두가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학회 애틀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편입보다는 전과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원래는 외고에서 전공이었던 일본어과로 전과를 생각했었으나 당시 다니던 과가 통폐합되면서 이과로도 전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원래부터 관심이 있던 컴퓨터 관련 학과로 전과를 알아보게 되었다. 2학년 2학기에 전과가 결정되고 나니 학교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였다.

그게 사실 생각보다 안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더 좋은 학교 가야 이런 아쉬움이나 이런 게 해소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과 결정하기 전에도 가면 확실히 더 학교에 대한 생각이 좋아질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결정했을 때 기대감도 더 생기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연구자: 그 기대감이라는 건?) 가서 좀 더 내가 원했던 공부를 할 수 있고, 더 재밌을 거 같고, 미래를 생각해서도 나중에 경영학과에서 취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이젠 진로 방향이 잡혀가는 느낌이라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미나)

이미나는 컴퓨터 관련해서 일본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며 진로 목표가 구체화되니 편입에 대한 생각도 거의 사라졌다. 1학년 2학기 들어서부터 출석도 챙기고 과제도 성실히 제출한 이후에는 확연하게 학점도 좋아졌다. 첫 학기에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며 학업에 열심을 안 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지금은 성적이 오르니 공부에 대한 의욕이 더 생긴 상태이다. 평소에는 과제나 시험이 있어야만 공부를 했었지만 지금은 진로 준비를 위해 일본어공부도 틈틈이 하려고 한다.

이보람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정시에 몰입하기로 결심하고부터는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기 시작했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 상태로 유지하면 최

상위권은 아니어도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수능 1주일 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 공부를 아예 하지 못 했고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 수능 당일에 너무 긴장을 하여 수능을 망치는 결과를 낳았다. 일단 나온 점수로 대학교 입시 원서를 쓰기로 하였고 평소에 상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대학원 진학을 생각해 상담심리대학원이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해당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였다. 현재 대학에는 점수에 맞추어 국어국문학과로 지원을 하였고 다른 곳은 모두 불합격 하고 현재 대학에 추가합격이 되어서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 이후에도 부모님께서서는 재수를 강력하게 권유하셨고 스스로도 불안한 마음에 반수를 결심하였다.

부모님께서 “너 이런 대학을 나와서 할 일이 없을 거다.” 라고 걱정하셨어요. 진로, 취업이나 이런 게 사실 힘들긴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함이 저 스스로도 많았고 그래서 반수를 선택한 것이기도 했었는데 안 했고... 그리고 자꾸 집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사실 전공 수업이 모두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몇몇 수업은 괜찮고 몇몇 수업은 또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너무 아닌 수업을 들을 때는 내가 정말 이런 학교에 와서 이런 수업을 들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막 혼란스럽긴 했었는데... (이보람)

“이런 학교에 와서 이런 수업을 들어야 하나?” 라는 이보람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학 초기에는 자신이 현재의 대학에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여기에는 부모님의 걱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막상 1학기를 마치고 반수를 위해 여름방학에 재수학원에 들어가고 보니 자신이 더 이상 수능공부에 대한 미련이 없음을 깨달았다. 또한 하고 싶은 진로가 확실했고 수능공부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공부라니 생각이 들어 재수를 안 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재수학원을 그만 두었다.

다시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싶더라고요. 저는 또 이미 대학에서 교수님들이나 선배들한테 제 진로에 있어서, 상담 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한테 필요한 공부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수능 공부. 그래서 좀 더 그만둬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보람)

재수를 포기하고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

고 생각하였고 열심히 공부하여 매우 좋은 성적을 받아 장학금도 받았다. 또한 진로가 보다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교사가 되기 위한 교직과목들을 이수하고 장학금도 놓치지 않고 받으면서 부모님도 점차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 심리상담에 뜻이 있었지만 입학한 전공은 국어국문학이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을 배운다는 회의감도 있었지만 심리학과 복수전공 후에 심리교직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국문교직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전공에 계속 남아있기로 하였다. 그렇게 결정한 이후에는 전공수업에서 흥미를 느끼는 과목도 생겨나고 현재 전공이 아예 적성과 맞지 않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또한 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에 와서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였고 대인관계에 많은 가치를 두는 개인 특성상 이러한 점이 학교 적응에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대한 환상이 있었지만 막상 주변에서 좋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느 대학에 가든 대학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의 대학에서 장점을 찾게 되었다. 자신의 학업적 서열이 높았을 때는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았던 반면 현재 대학을 들어오면서는 그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느끼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는 것에서 더 자유롭게 느끼게 되었다.

주변에 ○○대를 간 친구나 □·△대를 간 친구들은 다 사실 거기서도 경쟁이 있잖아요,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거나 공기업에 취업을 한다거나. 근데 저는 오히려 어차피 거기는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보람)

이보람은 전문상담교사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원래 교사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전문상담교사로 진로를 생각하게 된 데에는 고등학교 때 힘들었지만 학교에서 도움을 줄 만한 상담선생님이 없었던 게 아쉬웠던 것이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이미나와 이보람은 입학 초반에는 재수를 생각하고 재수학원을 알아볼 정도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고 원했던 공부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학교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미나는 처음 들

어쨌든 과가 생각과는 달라 전공을 결심하였고 우연히 좋은 기회로 이과에 컴퓨터 관련 학과로 갈 수 있게 되면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컴퓨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보람 역시 예전부터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싶었고 비록 들어간 과는 이와 관련이 없는 전공이었지만 심리학과 복수전공을 하고 교직 이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꿈을 꿀 수 있게 되면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 이처럼 둘 다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자신의 진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자 학교에 대해 아쉬웠던 마음이 바뀌고 정착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자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한 의욕도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대학에서의 적응 과정에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미나와 이보람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바라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에서 자기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겪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며 현실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2)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요’

이 유형은 앞의 사례와 대비되는 상태로,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학업에 대한 의욕도 높지 않아 고등학교 때와 유사하게 부정적 정서와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경우이다. 김소현과 류승희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김소현은 평소 모의고사 점수와 비슷하게 수능점수가 나왔다. 딱히 목표로 한 대학은 없었지만 예전에는 막연하게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었고 전공은 역사를 좋아해서 관련 학과를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재 대학에 오게 된 것은 당시 수능 점수로 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중 지리적 여건과 종교가 맞는 곳이었기 때문이었고 전공도 외고의 전공을 살려 차선으로 중국어과를 선택했다. 합격 당시 부모님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본인은 만족스러웠다. 고등학교에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다 보니 대학 이름과 상관없이 단지 내가 공부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자체

가 기뻐다. 하지만 주변의 선생님들과 부모님은 재수나 편입을 권유했고 자신도 미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현실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친구들의 대학생활을 보니 어떤 대학에 가든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평판이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에 대한 미련이 없지만,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외고 출신이어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좋은 대학에 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대학 이름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 더 좋은 대학에 대한 미련이 생기기도 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학교에 왔으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자는 생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았다. 하지만 1학년 2학기 때 부모님들이 다툼이 잦아졌고 거기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마음 붙일 곳이 필요해 동아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마저도 동아리 내 사람들 사이의 갈등으로 2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나오게 되었다. 이후, 계속 공부를 놓은 상태로 지내다가 2학년 2학기부터는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당시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학년 2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또 뭐냐면 1학기 때 2점대를 처음 찍었다고 했잖아요. 제 스스로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공부 안하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싶어 충격 받아서 조금이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하게 됐고 그 영향이 쭉 가서 3학년 때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학교공부는 아니고 토익을 판다거나, HSK를 판다거나 이런 거 했거든요. 졸업 요건이여서 스펙 쌓는 김에 겸사겸사. (중략) 그 때 제가 1학년 1학기 때를 항상 동경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니까 다시 한 번 잘해보면 장학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엄마아빠가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느낌. (김소현)

하지만 취업준비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한 공부였고 스스로 즐기면서 한 공부는 아니었다.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을 돌이켜보면 재미있었

다고 생각되는 수업은 별로 없고 학점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들은 수업이 많았다. 전공인 중국어도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수업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어 수업이다 보니 현지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따라가는 것이 힘이 들었다.

스케줄에 맞는 수업을 찾다가 학점 채워야 되니까 그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 100퍼센트 중에 6~70프로만 알아들었나? 알아듣는 것도 듣는 건데 대답도 안 나오니까 진짜... (중략) 저 저번 학기는 제가 복수전공이 국제학부인데 이 수업이 너무 빠서 ‘아씨 이거 공무원시험에도 안 나오는거’ 이러면서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1년을 연달아서 전공에 대한 회의가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김소현)

대학에 그나마 정을 붙이게 한건 친구들이었다. 공부를 놓았을 때에는 동아리로 그것을 대신한 느낌도 있었다. 하지만 학교 축제나 개강총회, 종강총회 같은 학교생활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과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군대를 가서 친한 친구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동아리에서 나오면서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학교생활을 더 안 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인관계는 김소현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의 경험으로 인해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데 스트레스가 컸다.

대인관계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뭔가 사람을 사귀는데 있어서 좀 힘든? 그런 시스템을 마주하는 게 어색해서 그런 것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천차만별의 수준과 더 다양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지켰었던 거예요. 중·고등학교 지내면서 친구들 사귀는 게 힘들니까 ‘아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오히려 혼자가 더 편했어요. 이제 팀플하면 스트레스가 극도로 오는 거예요. ‘아 누구랑 하지... 독강이면 이제 사람들한테 말 걸어야 되고 힘든데...’ (김소현)

김소현의 본래 꿈은 외교관이었다. 지금도 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처음보다 목표의 크기가 작아졌다. 중학교 때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목표로 하는 공무원의 급수가 낮아지고 있다.

맨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 꿈은 외교관이었잖아요. 이거 해야지 하다가 ‘어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다가 7급 외무관 내려가서 알아보다가 5급이었던 외교관 시험이 7급으로 들어와서 그럼 9급으로 할래, 9급으로 내려오고... 뭔가 제가 자신이 없는 경쟁에 부딪히게 되면 그걸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차선을 계속 선택하게 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9급 출입국관리직 아니면 교육행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소현)

김소현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적 서열이 하락했던 경험 이후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느낀다. 주변 사람에게서 제발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나에게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로 생각의 로직이 바뀐 것 같다고 느낀다.

류승희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를 거의 놓았었지만 3학년 때는 진로를 탐색하다가 한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도 생기고 고등학교를 탈출해서 원하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동기부여가 되어 공부를 했고 모의고사 성적도 올랐다.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또 하는 건 싫었기 때문에 재수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수능점수는 평소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왔고 원하던 한의예과는 못 갈 성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맞는 곳을 생각해야 했는데 대학은 몰라도 과만큼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곳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지했던 학원 선생님께서 공직이 적성에 맞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셨고 합격 한 대학 중 더 평판이 높은 대학도 있었지만 영어로 수업한다는 것이 싫어서 법학과인 현재 대학을 선택하였다. 대학에서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었다.

합격한테가 ○○대 글로벌 무슨 학과? 백퍼센트 영어수업 진행하는... 그래도 △△대 보다는 위인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다 안정지원이어서 셋 다 붙고 부모님이 ○○대 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외고가 떠오르는 거예요. 백퍼센트 영어수업을 어떻게 버티냐고 그래서 △△대 법학과 가겠다고 이것만은 제 뜻대로 하겠다고 부모님께 얘기 드리고... 똑같이 고등학교 때 그 짓 하기 싫다 하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됐죠. 부모님은 언제나 반수, 재수해라 했지만 저도 야망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대학교 그냥 왔어요. 목표 없이 공부하는 거 싫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어요. (류승희)

지금도 재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입학해서 공부해보니 법학과도 자신에게 잘 맞는 학과는 아닌 것 같아 미리부터 하고 싶은 진로를 찾아봤으면 지금 고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후회가 된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온 대학이었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탐색과 방향을 시간이 길었고 이제 와서 생각하면 본인에게는 법학과보다 오히려 행정학과가 더 맞다는 생각이 든다. 전과나 복수전공을 생각했었고 그래서 과 활동에 참여를 안 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현재 과에 남아있기로 했다.

대인관계적인 면에서는 대학에 와서 변화가 있었다. 대학에 같은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가 없었기에 혼자 잘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싸(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교우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수동적으로 남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던 것을 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업 첫 날에 팀을 짜라는 교수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첫 도전이 성공적이었던 이후로는 늘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학업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대학에 와서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공부를 조금 놓았다. 여전히 목표가 없는 것은 같았고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성적도 좋지 못했다.

학업에 있어서는 처음에 왔을 때 많이 풀어졌어요. 제가 좀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대학교에 와서도 목표가 없는 것은 똑같았어요. 제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동안 방황의 시간이 있었던 거 같아요. 보통 제가 초, 중등 때는 상위권에 있었는데, 대학교 오니까 그러질 못했거든요... 제가 법학과에 대해 더 흥미를 갖고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못 느꼈던 거 같아요. 대학교는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랑 똑같이 주입식 수업이더라고요. 법학과는 오히려 더 약간 경직된 게 있었어요. 집, 학교의 반복 느낌... (류승희)

대학생활도 고등학교 때와 비슷했고 막상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해도 안 해보다보니 못 해서 스스로 답답하게 느껴졌다. 마치 고등학교 4학년의 느낌이었다.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고 잠을 좀 더 자는 정도였다. 하지만 선배언니를 통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넓어졌고 그러면서 대학생활이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3학년 1학기 때 자취를 하면서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다. 처음으로 혼자 하는 생활이 힘들었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수업 출결이 안 좋아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나를 그냥 놔두면 바닥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진짜 그 때 상황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자취생활 7개월 겪어보면서. 1,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학업하며 지내왔지만 깊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제대로 각을 잡고 대학교가 마지막 내 배움의 기회의 장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막연하게 지내왔는데 3학년 1학기 때 출결 때문에 학점이 진짜 안 나왔거든요. 상상 초월 할 정도로 안 좋게 나와서 진짜 놔두면 사람이 바닥까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제 한계를 크게 맞았던 거 같아요. (류승희)

이 일로 인해 부모님이 많은 실망을 하셨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해 말씀하시며 공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밖에 없고 안 할 거면 취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철없이 이상을 좇으며 지내다가 현실을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다가 부모님을 돕기 위해 경제적인 기반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기로 했다. 예전부터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간 과정으로 공무원시험을 봐서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분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 이후로는 학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동적으로 해오던 것이 남아있어서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스터디 동아리를 맡아 운영하면서 사람을 뽑고 일을 맡기는 것이나 발표 능력 등에서는 향상되었다고 느끼지만 학업적인 면에서는 대학에 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오히려 더 자신감이 떨어진 느낌이다.

대학교 와서는 역시 비교라는 게 사람을 되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a와 b가 있는데 완전히 같은 삶을 살 수 없잖아요. 능력치가 다 다르고 잘 하고 못 하는게 있는데 한 가지만 두고 비교를 하니깐 내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대학 왔을 때는 단순히 학업적인거 보면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생각하고... (류승희)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휴학해서 최대 2년 동안은 원하는 분야로 가는 것을 목표로 고시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합격하면 남은 대학 기간 동안은 나를 위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중국어나 영어공부 외에도 해보고 싶은 공부가 많지만 여전히 학업적으로 몰입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김소현과 류승희는 수업이나 과 활동 등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학업적으로도 좋은 성취를 내고 있지 못하다. 다만 류승희는 대인관계적인 면에서의 발전이나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학에 와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학업이나 진로 등에서 자신이 바라고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배경에는 두 연구참여자 모두 집안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압박감이 있으며 현재의 전공에 흥미를 크게 느끼지 못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과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이는 대학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둘 다 진로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라는 목표는 잡았지만 자신의 흥미보다는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고 있다. 진로방향과 동떨어진 전공은 학업에 영향을 주어 대학 공부의 목표가 졸업을 위한 학점 채우기에 불과하게 하였다. 이는 마치 대학에 가기 위해 원하는 않는 공부를 해야 했던 고등학교 때와 비슷하게 느껴진다. 김소현과 류승희는 가정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모습이 존재하고 이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대학생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나보다 잘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유형은 대학에 잘 적응하여 좋은 성취를 보이고 있는 첫 번째 유형과 적응과 학업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번째 사례의 중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목표하지 않았던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서 경험하는 자기불일치감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내적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유형은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대학생활에는 적응을 잘 하고 있는 편이나 학업에 있어서는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학업에 대한 성취도는 높은 편이지만 현재 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태이다.

박주형과 전가영은 교내 활동,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등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그에 비해 학업적 자신감과 실제 성취는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박주형은 수능점수가 모의고사보다 2등급씩 떨어지면서 수시를 넣었던 대학에서 모두 떨어지고 어차피 이 점수로 대학에 못 갈 것 같아 정시 원서를 넣는 것도 포기하고 재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재수학원을 등록하고 돌아오던 날 어머니에게 대학에 붙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불합격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어머니가 박주형에게 알리지 않고 대학에 원서를 넣으셨는데 그것이 합격을 한 것이다. 두 개의 대학에 합격했었는데 박주형은 망설임없이 현재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재수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담감 땀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무래도 컸던 것 같고 고3 때 계속 고생했던 것을 일 년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일단 가면은 반수라는 것도 가능하니까... (박주형)

입학을 결정하고 나서는 마음이 편했다. 당시에는 수능 등급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에 점수에 맞춰서는 대학을 잘 온 편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입학하고 초반에는 흔히 말하는 “아싸(아웃사이더)”처럼 지냈다. 고등학교 때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단체생활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탓이 컸고 1학년은 학부제로 운영이 되다보니 아직 과에 진입하기 전 이어서 그럴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다. 1학년 말에 과를 정해야 했는데 인문학부에서 갈 수 있는 3개의 과 중 자신과 가장 맞다고 생각되는 과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다 국문학과로 선택하였다.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복수전공

을 선택할 때에도 다양한 전공의 수업을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경로로 정보도 취합하면서 스스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다. 관련 수업을 들었을 때 매우 재미있었고 교수님도 좋으셨기 때문이다. 고민을 치열하게 했지만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언제나 나의 흥미에 맞춰져 있었다.

진로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내가 더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더라고요. 어차피 피로워서 공부 할 바에는 좋아해서 공부 하는 게 낫지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만약 저랑 안 맞는 거면 계속 끌고 가봤자 금방 지친다고 해야 하나? 그나마 좋아해야 덜 지치더라고요. (박주형)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신 적이 없던 아버지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것을 반대하셨다. 공무원이시기에 현장일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모님 말씀에 따라 전공을 바꾸는 대신 전공을 선택한 2학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부모님을 설득했다.

그냥 부모님께 2년 간 세뇌시켰던 거 같아요. 세뇌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꼭 해야겠냐?’고 하시면 ‘할게요.’ 하고, 어딜 가나 힘든 건 똑같고 복지 현장 아니어도 회사에 가서 일하나 복지 현장에서 일하나 어차피 똑같다고... 그럴 바에 차라리 보람이라도 더 있고 좀 더 내가 흥미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설득했어요. (박주형)

박주형이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 실습도 나가고 관련자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 길이 정 안 맞으면 그 때 다른 것을 찾아봐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중학교 때 과학을 좀 더 좋아했지만 외고에 왔고 외고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지만 책이 좋아져서 국문학과에 온 것처럼 길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경험해본 뒤 바꾸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1학년 중간에 반수를 할까 생각한 적도 있지만 더 좋은 대학을 간다 해도 준비와 적응의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이 부담으로 느껴져서 이 학교에 남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후회하지 않는다. 또한 단체생활 보다는 개인생활에 집중하며 소수의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의 시간을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학년부터는 반복되는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소모임도 하고 동아리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혀갔다. 학교 성적은 1, 2학년까지는 평균 정도를 유지했지만 3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당시 돈이 필요해서 시급이 센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니 일주일에 4일을 멘토링을 가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공부에 소홀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어 전공공부가 세분화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자기와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것이 학업에 스트레스를 더했다.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 대학공부는 고등학생 때와 달리 노력과는 다른 센스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자신은 그 부분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수능점수가 낮게 나와서 현재 대학을 올 때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던 것도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었다.

대학을 오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도 정말 특출하게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략) 대학 와서 보니까 머리 자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약간 센스라고 해야 되나? 좀 과제를 해도 노력을 한 70밖에 안 하는데 100이상의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 이게 그거구나...’ 나는 100을 하려면 120을 해야 되는데... (박주형)

전가영은 자신의 진로목표와 맞는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학교 만족도가 높아진 경우이다. 전가영은 첫 번째 대학 입시에서 수시원서를 넣었던 모든 대학에 떨어지고 수능 점수도 낮게 나오자 바로 재수를 택하였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학원도 안 다니며 독학으로 재수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였다. 하지만 수능 날 평소에 쉽게 생각하던 영어듣기를 놓치면서 영어시험을 망쳤고 결과적으로 또 다시 전 년도와 비슷한 수능 점수가 나왔다. 부모님 보기도 죄송하고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좌절감이 컸지만 대학을 어디든 가야겠다는 생각에 정시전형으로 원서를 넣었고 다른 대학은 떨어지고 안전지원으로 넣었던 현재 대학에 오게 되었다. 점수가 많이 남는 상태로 현재 대학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자만심과

창피함이 컸다.

일단 되게 자만심이 진짜 넘쳤어요.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중략) 일단 고등학교 동창들한테는 창피했었죠, 쪽팔리고... 일단 조금 지내보고 수능을 또 볼지 말지 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입학했는데 제일 처음 친해진 동기가 무슨 상업고 나와서 이상한 전형으로 들어왔는데 수학도 할 줄 모르고 영어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개를 보면서 나는 수학 하나 틀려서 들어 왔는데, 나는 외고 나왔는데, 내가 이런 애랑 같이 학교를 다녀 이러면서 진짜 황당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랑 학교 못 다닌다 이러고 수업도 안 듣고... 어차피 나 반수할거야 이러면서 1학년 1학기를 엉망진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기를 휴학하고 또 수능공부를 했어요. (전가영)

전가영은 삼수를 준비하였지만 이미 재수 때 열심히 했던 공부를 다시 하려니 새롭지가 않았고 전보다 열심히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또 이전과 비슷한 점수가 나와서 결국 대학을 못 옮기고 복학을 하게 되었다. 반수를 하고 돌아와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에 현재 대학에 정을 붙이고 열심히 다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어릴 때부터 꿈이 기자였지만 이 대학에 오게 되면서 학벌이 중요한 주요 언론사에는 취직하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에 꿈을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학을 하고 얼마 안 있어 학교신문사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고 지원서를 넣어 합격을 하여 학부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래는 기자활동까지는 자신이 없고 편집부를 하려고 했으나 모두가 기사와 편집을 함께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기사를 쓰게 되고 자신감도 조금씩 붙었다. 또한 언론사 취업이라는 큰 틀만 있었다면 그 안에서 세부적인 진로 방향도 잡게 되고 무엇보다도 학교에 정을 붙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교에 내가 갈 곳이 있고 머물 곳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일단 학부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웃음) 관심을 억지로라도 가져야 되니까 애교심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의 장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게 진짜 내가 다닐 학교고 내 최종학력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렇게 애정이 가더라고요. (전가영)

전가영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와 달리 자신에 대해 겸손해지고 주변 사람의 훌륭한 점에 주목하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서 현재는 80~90% 정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느낀다. 삼수를 하며 최선을 다해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자신의 그릇이 이 정도라고 인정하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인식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전가영은 원래 경영학과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신문방송학과나 정치외교학을 생각했었는데 상황에 맞춰 경영학과에 오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정치외교학은 오히려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경영학처럼 수학을 활용하고 결과가 딱 떨어지는 공부가 나에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아서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다. 수능성적과 대학에서의 성적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수업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면서 의욕적으로 공부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능 점수랑 학점이랑 되게 다르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제가 공부를 진짜 막 열심히 한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여기를 진짜 엄청 점수 남기고 들어왔어. 너희랑 달라.’ 이랬는데 학점은 다른 애들이 훨씬 잘 받으니까... 입학성적과 학점은 전혀 비례하지 않는 거 같아요. (중략) 제가 한계를 느낀 게 참여수업 있잖아요, 수업이 교수님이 지켜보시고 저희끼리 토론하는 거거든요. 하라는 것만 하면 B+이고 말을 해야 A인데 발표해서 A 받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손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들어보면 ‘되게 똑똑하다,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전가영)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박주형과 전가영은 현재 자신의 대학과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수능점수가 자신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하거나 목표했던 대학에 가지 못 해 좌절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여서 현재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박주형은 평소보다 떨어진 수능점수로 인해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하락했고 이것이 현재 대학으로 만족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학업적인 면에 있

어서는 위축감을 가져와 대학에서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가영 역시 목표로 한 대학에 가기에는 수능점수가 낮게 나왔고 삼수까지 하면서 이를 만회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자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전가영은 특히 예전부터 관심 있던 학교 기자로 활동하면서 학교의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가영은 처음부터 자신의 학업능력에 자신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삼수를 거쳐 현재 대학에 오게 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현재 대학에서의 학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학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나 자신이 학업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도전하거나 열심히 해보려는 의욕이 부족한 상태이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학업성취도는 낮은 박주형과 전가영과는 조금 다르게, 정영미와 장윤희는 학업성취도는 나쁘지 않으나 현재 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별로 높지 않다. 정영미는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학업과 자기개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현재의 삶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고 더 평판이 좋은 대학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장윤희는 학업이나 활동 등에 있어 대학생활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이 있으며 흥미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큰 편이다.

정영미는 수시를 썼던 대학의 최저점수를 못 맞추는 수능점수를 받아 정시 지원을 해야 했다. 당시 아버지가 지인으로로부터 지방에 있는 대학의 프로그램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곳을 적극 추천하셨다. 지방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계속 그 곳을 권유하자 반발심으로 그 대학의 원서만 썼고 합격하여 진학하게 되었다. 원서를 한 군데만 쓴 것이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는 부분이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멀어지는 느낌이었고 주변에 외고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꺼려졌다. 대학 이름을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신경이 쓰였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수나 교환학생 등의 혜택이 많았으나 대학교 이름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남아서 2 학년을 마치고 편입을 결정하였다.

저는 제가 외고 나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거를 아는 애가 한 명이었어요. 근데 걔도 외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됐는데... 거기 학교에서 하는 해외연수나 교환학생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솔직히 다 누렸어요. 근데 계속 다니면 다닐수록 밖에 나가서 제가 어디 대학 다닌다고 말을 잘 못하고 말 하게 될 때도 사람들이 약간 '아...' 이런 반응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쉬움도 남기도 했고 그래서 편입을 결심하게 됐어요. (정영미)

편입은 서울 최상위권의 대학을 생각했고 현재 대학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지만 편입영어 공부가 부족했고 시험도 생각처럼 잘 안되어서 현재 대학에 오게 되었다. 불만족스러웠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 편입을 다시 할 수도 없고 대학보다 중요한건 취업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편입 준비를 하면서 눈을 낮춰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쨌든 내가 서울 오게 되서 기뻐던 건지 처음에 ○○대(현 대학)를 붙었다는 사실이 되게 기뻐어요. 그냥 '내가 중위권에 왔네', '왜 나는 이거밖에 못했지' 이런 생각 보다는 처음에는 기뻐어요. 그런데 다니다보니까 약간 취업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애매한 위치인거예요, ○○대가 막 상위권도 아니고 아예 하위권도 아니고 마지노선이란 얘기도 아니까. 근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남 얘기 하는 것만 들을 수도 없고 시선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편입을 또 한 번 하자니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취업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내가 댈 수 있는 건 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으로 다니고 있어요. (정영미)

정영미는 자신의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대학에 못 간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있었지만 그 생각에 빠져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을 바꿔 현재 대학에서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고 실제로 열심히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높은 학력수준의 학생들과 경쟁하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하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 벅차고 힘이 든다.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길 때면 더 평판이 높은 대학에 가기위해 재수를 하는 게 더 나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제가 만약에 재수를 했으면, 그 때 내가 겁을 먹고 안하지 말고 그냥

아예 편입 아니고 재수로 틀었으면 나왔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사기업이 원하는 스펙이나 조건도 되게 높고 이러니까 힘들게 이것저것 막 찾아서 하고 있긴 한데 가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영미)

정영미는 편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스펙이 뒤쳐진다고 생각해서 복수전공을 하며 학점도 최대한으로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아서 참여하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기존 재학생도 모르는 활동까지 참여하고 있다. 학점도 4.5점 만점에 4점에 조금 못 미치는 좋은 점수이지만 더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는 없다. 하지만 생활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지려면 스펙을 쌓고 능력을 끌어올려야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좋은 성취를 보이고 있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장윤희는 현재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대학생활은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면에서 부침이 있는 편이었다. 장윤희는 외고에 다니던 중, 학교에서 개최한 일본 와세다대학의 대학설명회를 듣고 와세다대학으로 유학을 결심했다. 어렵게 준비하여 원서를 넣고 면접까지 봤지만 결국 최종 합격에 실패했고 그것에 실망을 느낄 새도 없이 다가오는 수능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고 싶은 대학이 없다보니 목표의식이 없었고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했고 수능점수도 매우 나쁘지는 않았지만 원서를 넣은 모든 대학에 불합격을 했고 이는 장윤희에게는 처음 겪는 목표 달성의 실패였다. 이렇게 된 김에 미련이 남은 와세다대학에 다시 도전해 보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재수 준비를 시작했고 역시 목표의식의 부재로 공부는 잘 안되었다.

재수할 때도 약간 목표가 없는 거 같아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많이 잤어요. 졸리면 자고... 졸리면 깨서 해야 되는데 딱히 목표가 없으니까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때에는 나는 그냥 대학생만 되도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아무 대학이나 간다고 하더라도 정외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

때 웬지 모르겠는데 했던 거 같아요. (장윤희)

다시 본 수능 점수는 전 해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 재수가 생각보다 힘들었기 때문에 삼수는 생각하지 않았다. 원서를 써서 붙은 대학 중 그래도 가장 괜찮았던 현재 대학에 진학하였다. 나중에는 나아졌지만 초기에는 이 학교에 오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약간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가 재수생이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서는 거의 다 ○○대 이런데 가는데 저는 □□대(현 대학) 오니까 어디 갔냐고 물어볼 때 좀 말하기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음)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약간 그랬던 거 같아요. (장윤희)

입학 초반에는 친구들에게 대학 이름을 말할 때 내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반수도 잠시 생각하였지만 재수를 해보니 공부를 다시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수를 할 때는 대학에만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자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에 비해 대학생활의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 불만족스러웠다.

되게 생각과 달랐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 좋은 대학이랑 □□대(현 대학)를 비교 한다고 치면 좋은 대학은 학교 앞에 대학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좀 되게 싫었어요. 제가 △△대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거기는 신촌이라 ○○대 사람도 만나고 여러 대학 사람들과 밥 먹는데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대학은 여기에 아파트랑 대학밖에 없으니까 내 대학생활이라 할 만한 범위가 줄어드는 느낌이라서 그게 좀 싫었어요. (장윤희)

전공 공부는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지만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만 밤을 새서 공부하는 정도였지만 성적은 좋았다.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해야 할 공부의 양이 많아지면서 공부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공부가 싫어졌다. 그리고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헤어지며 4.5점 만점에 4점정도 나오던 학점이 2.9점 까지 떨어졌다.

2학년부터는 공부양이 많아지다 보니 그걸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약간 좀 확 싫어졌어요, 노는 게 더 재밌는데 이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때 약간 친구들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막 친구랑 싸우고 이런 적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좀 더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때 완전 바닥을 찍고... (장윤희)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생활이 재미없어져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를 갔다. 영국에서 1년의 어학연수 기간 동안에는 마음이 치유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그 때 찾은 자존감이 다시 학교에 돌아왔을 때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거기서 혼자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스스로 다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녀오고 나서는 공부도 중학교 때처럼 누가 안 시켜도 하고 과제가 있으면 그 전에는 ‘과제 왜 해야 되지’ 하면서 하기 싫어했는데 갔다 와서는 ‘한 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공부를 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쉬니까 이대로 쉬다가 바보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성적도 되게 잘나왔어요. (장윤희)

휴식기를 가진 이후에 학업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성적도 다시 많이 올랐고 계속 그 상태로 3학년을 보낸 뒤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하지만 일 년 뒤 4학년으로 복학했을 때는 웬지 모르게 다시 공부에 대한 흥미가 반감되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했던 광고홍보학과 복수전공 수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과는 달랐고 어차피 자신의 진로와 상관없는 것인데 왜 이것을 배워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진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 한 상태이다.

대학에 오면서도 갑자기 세상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외국에도 진짜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렸을 때 막연히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대학 와서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엄청 드는 거죠. 근데 또 외교관이 그렇게 좋아보

이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도 여전히 정치외교 쪽 일하고 싶은 한테 일단 외교관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장윤희)

이처럼 정영미와 장윤희는 현재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정영미는 편입을 통해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현재 대학으로 오게 됐지만 취업을 생각했을 때 평판이 더 좋은 대학에 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장윤희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비교되는 대학 환경과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학교에 온전히 정을 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둘 다 학업 성취는 나쁘지 않은데 정영미는 취업을 위해서는 현재 대학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학업에 최선을 다 했기 때문이고 장윤희는 목표와 재미의 유무에 따라 학업수행에 부침이 있긴 했지만 자신이 하고자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 다 진로와 관련하여서는 학벌이나 능력면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에 위축된 면이 있으며 뚜렷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림이 부재하다. 이러한 점은 대학생활과 학업을 즐기면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자기불일치감과 대학적응

앞 절에서 유사한 고등학교 생활과 대입 과정을 거쳤지만 서로 다른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 성취를 보이는 연구참여자들을 크게 3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처럼 서로 다른 대학 적응의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성격적 특성, 주변 환경, 진로 발달 단계, 흥미와 적성, 대인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었겠지만 목표하지 않았던 대학에 가게 되면서 발생한 자기불일치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 하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발생한 자기불일치감과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연구참여자들의 대학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대학생으로서의 삶은 고등학생 때보다 자율적이지만 여전히 학생으로서의 정체감이 주요한 시기이고 학업에서의

자신감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학업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1) 대입결과에 따른 자신감 하락

우리나라에서 외고입시에 성공했다는 것은 곧 대학입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고에서 학업서열의 하락을 경험했던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서의 성공은 이를 한 번에 보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목표하지 않았던 혹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평판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를 “실패”로 묘사하였다. 이들은 인생에서 첫 번째 입시였던 외고입시에서 성공했었기 때문에 대입의 경험은 최초의 입시 “실패”의 경험이 된 것이다. 비록 외고를 다니며 학업서열의 하락을 경험하고 자신의 성취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학입시는 이러한 자신의 학업서열의 최종 성적표의 의미로 다가온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고등학생일 때에는 서열의 하락을 일시적이거나 가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약간 성적이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마지노선까지는 도달하지 않으니깐 마음을 놓았던 거 같아요. (연구자: 마지노선이 뭘였어요?) ‘인서울만 가능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봤을 때, 그 정도 가능하면 좀 그렇게 엄청 불안하고 안 그랬던 거 같아요. 또 제가 수학을 잘하니깐 다른 친구들이 수학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래서 안심하는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이미나)

이미나는 고등학교 때는 서울 내에 있는 대학만 가면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점수로 가능한 목표이기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나는 막상 서울 내에는 있지만 친구들보다 낮은 평판의 대학에 들어가게 되자 만족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에 아쉬움을 느껴 재수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던 수학성적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다

른 과목에 노력하게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가영은 재수를 하면서도 힘들지 않았는데 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갔기에 본인도 막연하게 잘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과 비슷한 성적의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소홀한 면이 있었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갔으니까 나도 막연하게 잘 갈 거라는 생각? 진짜 전교권에 있던 애들은 어차피 나는 서울대 가고 싶지도 않고 못 갈 대학이니까 개네는 별로 상관도 안 했어요. 근데 나보다 조금 잘하거나 비슷한 애들이 어느 정도 좋은 대학에 가니까 나도 그 정도는 가겠거니 이런 생각? 내 친구들 다 좋은 대학 다니니까 나도 잘 갈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전가영)

이처럼 외고에서의 학업서열의 저하는 학업적 자기개념에 있어 자기불일치를 경험하게 하고 학업에 대한 동기와 의욕 저하에 영향을 주었지만 자신이 외고에 속해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안도감과 대입에 대한 현실감의 부족으로 학업적 자기개념이 완전히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또한 대학은 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출구처럼 느껴졌기에 학업적으로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역할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 하게 된 것은 이러한 낙관적인 미래가 무너지는 경험으로 다가왔다. 연구참여자들의 내부에는 여전히 중학교까지 잘 하던 나의 이미지가 존재했고 비록 성적은 안 좋았지만 외고생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생각보다 낮은 평판의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은 심리적으로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예전에는 외고라는 같은 울타리 내에서 친구들과의 학업적 위치를 비교하였다면 이제는 아예 속하는 울타리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자신이 속한 울타리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가 인생의 마지막 입시라고 할 수 있는 취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주는 충격은 매우 컸다.

대학 친구들과 가고 싶은 어느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거기는 ○·△대가 다 잡고 있대.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비비지도 못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좀 긴가민가하기는 해도... (정영미)

(재수 실패의) 충격이 제일 컸던 게 저는 메이저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그 쪽에서는 전공은 안 중요하고 굉장히 학력위주의 사회잖아요, 연줄도 있고... 여하튼 메이저는 학교를 진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 꿈까지 다 잃어버린 느낌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정해놨었는데 대학부터 무너지니까 그 이후로도 완전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 같은 기분... 내 꿈도 잃은 거예요, 대학을 좋은데 못 갔으니까. (전가영)

이처럼 대입 실패는 진로와 관련이 되고 본인들이 앞으로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을 가져와 불안, 좌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가게 된 대학에 대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이러한 정서를 더욱 증폭시켰다.

주변에 쌤들이 “재수 해보는 게 어떠니”, 친한 쌤들은 “너 너무 아깝다”, 엄마는 “편입 해보는 거 어때” 얘기하시고... (김소현)

부모님은 언제나 반수, 재수해라 했지만 저도 야망이 부족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대학교 그냥 왔어요. (류승희)

일단 부모님이 재수를 하라고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가지고 제가 실제로 반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는 제일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면서도 부모님이 항상 걱정을 하시니까... (이보람)

아빠가 ‘내가 뭐 지금 ○○대 가라고 재수를 하게 했냐’ 하면서 논술 하라고.... 재수도 못하게 하셨던 분이 막상 결과 안 좋으니까 이럴 거면 한 번 더 해라.... (전가영)

이처럼 나에게 중요한 인물인 부모님과 선생님의 강력한 재수 권유는 ‘그래야만 하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곧 나에게 오는 인정과 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 더욱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8명의 연구참여자 중 5명은 재수를 하지 않고 바로 대학에 입학했고 1명은

재수, 1명은 재수와 반수, 1명은 편입을 하였다. 바로 대학에 입학 한 5명 중 2명은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에 지쳐서 자존감이 많이 하락한 상태였고 이런 생활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컸다. 또 다른 2명은 대학을 붙은 상태에서 포기하고 재수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어 일단 대학에 가서 안 맞으면 반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합격한 대학의 전공이 예전부터 자신이 하고 싶었고 진로로 생각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자는 생각에 재수를 포기하였다. 이 중 고등학교 생활에서 자존감이 많이 하락한 상태였던 두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에 간다는 것 자체에 만족했고 입시공부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생활에서도 기대했던 것만큼 여유나 보람을 느끼지는 못했다.

원하는 것보다 평판이 낮은 대학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초기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에 비해, 그리고 외고 출신으로서 기대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느껴지는 자신의 대학교가 당혹스러움, 창피함, 불만족 등의 불일치감을 불러일으켰고 미래의 진로와 관련하여서는 불안감도 가져왔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의 대학 만족도, 학업 의욕, 대인관계, 진로 선택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은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개선되기도 하고 지속되거나 심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처음 겪은 입시의 “실패”였던 만큼 자신에 대한 인식과 학업적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2) 외고에서의 경험

목표하지 않았던 대학에 가게 된 대입 결과와 외고에서의 경험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지만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고에 진학 한 것이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그와 별개로 외고에서의 경험 그 자체가 현재 대학생활에 주는 영향도 많다. 이러한 영향은 외고에서의 경험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거나 그 형태가 달랐을 수도 있는 것들이며 현재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과 자신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외고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한 경험은 열등감을 느끼게 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그런 그룹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기도 했다. 전가영은 채수의 실패로 많이 힘들었고 만약 일반고를 갔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갔을 것 같지만 다시 선택해도 외고를 갈 것 같다. 외고에서 훌륭하고 뛰어난 친구들과 3년을 지내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 많이 넓어졌는데 만약 동네의 일반고를 나왔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미 외고에서 잘 하는 아이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느꼈을 열등감을 미리 느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그 외고에서의 경험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그 좋은 친구들이랑 그렇게 같이 붙어서 진짜 훌륭하고 뛰어나고 괜찮은 애들이랑 3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경험은 유년시절에 외고를 가지 않으면 힘든 거니까... 생각하는 거나 경험하는 게 되게 많이 넓어졌으니까... (중략) 만약에 제가 동네에서 일반고를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갔다면, 만약에 내신 열심히 해서 예쁨을 받고 그래서 대학에 갔다면 또 거기 가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외고 다니면서 열등감을 먼저 겪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전가영)

정영미는 외고를 다니며 자신이 꼬리가 되는 경험도 해봤고 편입 전 대학에서 머리가 되는 경험도 해 본 결과,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본인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었다. 외고에서 자신이 잘 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있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자신에게 더 자극이 되고 동기 유발을 시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높은 사람” 그룹에 속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때론 힘들지만 나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 나쁜 부담감은 아닌 것 같다.

이 전(편입 전) 학교에서는 시너지효과 이런 게 없고 자극을 받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고에 있을 때는 제가 굳이 따지면 머리는 아니었고 꼬리였잖아요, 근데 전 대학에서는 제가 꼬리가 아니고 머리에 속했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와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의 차이? 그래서 편입을 하게 된 게 제가 외고에 있어왔기 때문인 거 같아요. 예전에는 이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요만큼만 하면 될 거 같은 제 모습이 싫었고... (중략)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

는 그룹에 있어야 좋은 거 같아요. (정영미)

이보람은 외고에서 워낙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 보니 열심히 한다는 것의 기준이 높아졌고 이러한 점은 외고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뭐랄까, 건문이 넓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대학에 와 보니까 저희 대학이 인서울권이 아니니까 학생들이 공부 하는 수준? 열심히 하는 수준이 제가 외고 때 비해서 조금 아닌 거예요. 정말 뭔가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기준을 보게 된 계기? 지금 대학 친구들이 저한테 너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고등학교 때를 돌아봤을 때 아니거든요. 그런 열심의 기준이 높아 졌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보람)

이 같은 부분은 외고에서 학업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에 있으면서 얻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워낙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강조되는 환경에 있다 보니 항상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기도 했다. 김소현은 어디서 무얼 하든 공부라는 요소를 빼놓고는 생각하지 못 하는 자신이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보니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다.

공부를 해야 한다, 취업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어딜 가든 공부라는 요소는 빠지지 않는다는 느낌이어서 되게 싫긴 한데... (웃음) 왜냐면 제 스스로 되게 융통성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그거밖에 해온 게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저도 다른 거를 생각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김소현)

이보람은 외고에서 친구들과 경쟁하던 습관이 남아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달려들 때가 있다. 이것이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 욕심만 차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저도 모르게 외고 때 습관이 나와 가지고 뭔가 악착같이 달려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외고 때는 예를 들어 발표를 한다, 그럼 애들이 다 손을 들거든요. 정말 다 해요. 왜냐하면 해야 점수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을 와서도 가끔씩 선착순으로 뭘 해야

하고 이럴 때에는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하면 배려를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약간 내 욕심만 차리는 것 같다고 가끔 자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보람)

이와 같이 학업과 뭐든 열심히 하는 것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낮은 학업서열에 머무르는 경험은 자신감을 하락시켰다. 수업 시간에 나보다 잘 하는 친구를 보며 순간적으로 느끼는 열등감도 있었지만 3년 내내 낮은 학업서열이 지속되면서 점차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는 못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미나는 외고를 다니며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 오히려 대학에 와서는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상승되었다. 고등학교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나는 못 한다’는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에 오니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특별하지 않게 느껴졌던 수업이나 활동들이 대학에 와서 보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을 깨닫고는 자신감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등학교가 되게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게 컸는데, 대학교 오고 나니까 그게 약간 전화위복이 된 게 자신감이 되게 떨어져 있었어서 오히려 ‘아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상승 됐어요. 제가 워낙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는 것에서는 잘 한다는 걸 경험하고 또 활동에 있어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 외고만의 활동 같은 거? 원어민 쌤들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토론회를 참여했다든지 이런 게 그 때는 사실 다들 하는 거라 그렇게 특별함을 못 느꼈는데 대학교 와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해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내가 많은 경험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미나)

이처럼 외고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은 자신의 학업 능력에 자신감을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학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실제적인 장점은 특히 외국어 구사 능력에서 두드러진다. 장윤희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외고를 가기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영어 이외에 다른 여러 외국어를 접하고 배우면서 다양성을 잘 받아들일게 된 것 같기 때문이다. 정영미 역시 외고에 가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게 된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와 중국어 덕분에 대학에 와

서 해외 교환학생 기회도 얻고 어떤 활동에 참여할 때에도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교(외고)에 7개의 언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에 친근감이 들잖아요. 일반고 갔으면 프랑스어에 관심을 하나도 안 가졌을 텐데 내가 거기 가서 영어 말고 다른 말도 배우고 제3외국어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도 배우고 애들하고 놀면서 스페인어 조금 듣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잘 받아들이게 된 거 같아요. (장윤희)

고등학교 때 중국어랑 영어도 배우면서 그거 때문에 이득 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편입 전) 학교 있을 때도 제가 중국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지역학교에 복수전공하면서 갔다 오고 뭐 이런 경험도 있었고 여기 와서도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내가 어디 가서 뒤에 있지 않고 앞에 나가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지원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있고요. (정영미)

외고에서의 경험은 공부에 대한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보람은 외고를 다닌 경험으로 인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칭찬 받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만약 외고에 안 갔더라면 여전히 성적이 나 자신이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며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 같다.

예전에는 성적을 잘 받는 게 제 자존감이었는데 고등학생 때 성적을 너무 못 받으면서 ‘이게 별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성적이라는 거 자체가 엄청난 힘을 주고 그런 건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져 보니까 이게 별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수능도 망해보니까 인생이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공부를 잘 하는 애로 인정해줬는데 ‘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볼 것 같은 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던 것 같은데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보람)

또한 이보람은 외고 생활을 통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변하였

다. 주변에서는 대학생할 동안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스트레스가 매우 컸고 이로 인해 공부가 더 안 되는 경험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여가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 전까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새 제 주변 친구들이 진로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뭐 해야 하지?’ 막 이런 생각. 근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고민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스펙을 쌓아야 하나 토익을 공부해야하나 이러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해 이렇게 생각 하는 게 있거든요. 외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면은 취업을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스케줄이 안 짜이니까 그거를 생각해봤을 때 그게 외고 때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보람)

박주형도 고등학교 때 틀에 짜인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자신의 자유대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대인관계, 진로선택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진로도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하시지만 자신이 원해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고 만약 자신과 잘 안 맞으면 그 때 다시 생각해보자는 주의이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중학교까지 합쳐 6년을 남이 정해준 대로 살다보니 대학 생활만큼은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저는 중학교 때 학교, 학원, 집 정말 이렇게 틀에 짜인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더 그런 생활이었잖아요, 기숙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삶에 염증을 느낀 게 약간 있어요. 원래 성향이 틀에 박힌 그런 게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저는 6년 간 그렇게 틀에 박힌 삶을 살다 보니까 대학은 정말 자기가 틀에 박힌 삶을 살던가 아니면 원하는 대로 살던가 하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만큼은 조금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원하는 거 계속 찾으면서... 그런 건 있던 거 같아요. (박주형)

마지막으로, 외고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현재 나의 학업적 자기개념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외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한데 이는 자신이 외고까지 나와서 현재 대학에 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외고를 나오면 영어도 매우 잘 하고 뭐든지 잘 해낼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 부담스러운 것도 있다. 하지만 외고에 다녔다는 자체가 중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업에 대한 능력이 있고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재수 할 때, ○○대(현 대학) 와서도 제 친구들도 그렇고 외고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SKY 같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고라고 말하기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나 외고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 안하고 조그맣게 말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장윤희)

원래는 친구들한테도 외고 나온 거 말 안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외고 나왔다고 하면 좀 뭐든 잘할 거 같다고 기대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부담이고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있기도 해요. 제가 외고를 나와서 거기서 한 활동, 외국어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런 게. 제가 외고 나와서일 수도 있고 제 특성일수도 있는데 외국어 좋아하고 많이 배우려 노력하는데 그런 걸 친구들이 신기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고를 나오고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워낙 좋았어서 더 그런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이미나)

이처럼 외고에서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의 가치관 및 삶의 태도가 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대학에서의 수행과 성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요약하면, 외고에 다니면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경험 자체가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더 자극이 되기도 한다. 또한 외고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의 기준이 높아져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자기의 능력과 수행에 있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준을 높이고 이로 인해 공부와 노력에 대한 강박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학업적 능력이나 노력에 있어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하는 현실의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외고에서 경험한 다양한 활동들

이 자신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히 외국어 능력의 향상은 학업과 진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교에서 학업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을 통해 공부가 주는 의미가 변하고 인정을 받기 위한 공부보다는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고자 노력하며 공부만큼 여가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면서 얻게 된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교에서의 경험은 대학에서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 흥미에 대한 파악과 진로발달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비교적 학교생활을 잘 하고 만족도가 높은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흥미에 대한 파악과 학교생활과 진로목표 간의 관련성이었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는 대학생활이나 학업을 하는데 있어 주도성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학교생활에서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전공 공부가 자신이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이거나 적성에 잘 맞는 분야일 때 학업성취도도 높았다. 이는 자신이 이 분야를 공부해서 장래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여겨질 때 동기가 향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기가 있으면 비록 어렵거나 흥미가 가지 않는 과목이어도 목적성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보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심리상담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도 비록 상대적인 기준으로는 좋은 학교가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는 유명한 학교이기에 선택했다. 하지만 점수에 맞춰서 국문학과로 진학했고 현재는 심리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다. 심리학과 수업은 재미있지만 국문학과 수업은 어렵기도 하고 재미가 없다. 하지만 나중에 전문상담교사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직 이수가 필요해서 과를 바꾸지 않고 남아있다. 나중에 꿈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끔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대학에 와서 까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배워야 하지? 이런 생각. (중략) 근데 들어놓은 게 있고... 그리고 제가 국문학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직을 국문교직으로 하고 있어서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국문교직이 나와야 심리교직이 나와요. 제가 복수전공이 그거라서. 그래서 가끔 재밌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이보람)

이보람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학업성취도 매우 좋은 편이다. 고등학교 때는 학업의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으로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았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경험이 오히려 바탕이 되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상담공부에 도움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지만 학교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선생님이 없던 것이 아쉬웠던 경험 때문에 학교의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현재 전공은 그 길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공부이다.

이미나도 일본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전공도 컴퓨터관련 학과로 전과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보니 굳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일본어공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공과목에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가 생겼다.

확실히 제가 일본어를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학점을 내야 하는 게 아닌데 공부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방학 때나 시간 남을 때 좀 하지... 근데 이제 진로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도 틈내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컴퓨터 쪽 과목도 확실하게 더 지금보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쪽으로 확실히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나)

이처럼 자신의 진로와 현재 전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자신이 진로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경우에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학업 성취도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김소현은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 했다. 중학교 때 외국어가 좋아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거 말고는 항상 눈 앞에 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못 했다. 집안의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
에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래서 공무원을 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 않았다. 우연히
듣게 된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지만 부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말도 꺼내지 않았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시공부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전공인 중어중문학은 고시공부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

하고 싶은 공부라... 음...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 못해봤거든요. 맨날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었으니까... 아 뭔가 이
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당장은 그냥 주어진 것만 해가지
고... 예전에 수업을 듣다가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말이 수업 중에 나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인문학적 통찰이 되게 필요한 직업
이라는 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 때 꿈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 해볼까?”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
데 지금 얘기하면 엄마, 아빠 싫어하실 테니까 공무원 되고나서 얘기
해” 그래서... 그게 그나마 지금 제가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지
만 관심이 생겼던 것인 거 같아요. (김소현)

류승희 역시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는 성공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깊이 고려해본 적이 없다. 생각이 많은 타입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
신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은 많이 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거나 결론을 내려
본 적은 없다. 당연히 행동으로 옮기거나 결과를 낸 것이 없고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는 전공이 법학이 아니라 행정학이 더 잘 맞았을 것 같다.

저의 꿈은 어렸을 땐 막연하게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 밖에 안 했었는
데 그래서 대학 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 해야 할까
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고 대학교 올라와서도 방향 많이 했
어요. (중략)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게 진짜 괜찮은 길인가, 단
지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막연하게 시간을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내가 얼마나 제대로 생각을 하고 살
았나... 제가 그냥 늘 언제나 막연히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

는데 되고 싶다 해도 그에 대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류승희)

이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진로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목표하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한 것에서 오는 불일치감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원하고 흥미 있어 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진로목표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깊을수록 학업에도 동기를 심어주어 수행과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공부가 어렵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에도 자신의 진로목표가 뚜렷하면 그 상황을 견디거나 의미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여기에는 자신이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 목표, 구체적인 진로 계획,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이 적절히 조화가 될 때 성공적인 대학적응과 학업에서 좋은 성취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업서열 변화에 따른 생각의 변화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중학교까지 높은 성취도를 보이며 높은 학업적 자기개념과 자신감을 유지하다가 외고에 입학한 후에 학업 서열이 하락하는 경험을 하면서 학업성취와 관련한 이상과 현실 간에 불일치를 경험하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도 하락하면서 그것이 다시 학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하였다. 대입에 있어서도 결과가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면서 외고출신으로서 기대되었던 모습과 그렇지 못한 현실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대학생살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좌절, 불안, 불만족감, 동기저하, 자신감 하락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학업서열 하락의 경험과 자기불일치감이 연구참여자들의 학업적 능력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나아가 공부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어

떻게 작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1) 나의 능력에 대한 생각의 변화

‘중학교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는 질문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중학교 시절까지 자신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했고 현재는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적인 맥락의 답변을 하였다. 박주형과 류승희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박주형은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잘 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외고에 와보니 내가 따라가지 못 할 정도로 잘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슬럼프가 올 정도로 나의 능력에 한계를 느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잘 하는 것이었지만 외고 안에서만 생활하다보니 같은 그룹 내의 친구들과만 비교하게 되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다.

중학교 때는 제가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잘 하는 애들이 모인 외고입시학원에서도 잘 하는 편에 속했거든요. 근데 외고에 왔는데 정말 잘 하는 애들이 모여 있으니 진짜 넘사벽인 애들도 있었어요. 공부해도 못 따라갈 만한 애들도 있었고 해서 슬럼프도 왔었어요. ‘공부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솔직히 주변 인문계 다니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 때는 그 안에서만 생활하니까 공부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 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박주형)

박주형은 현재 대학에서도 자신감이 크지 않은데 수능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의 대학에 오게 된 것이 영향을 주었다. 내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 보니 노력 이상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에 비해 ‘나는 노력을 하는 만큼만 성과가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한 편으로는 뭐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노력 이상의 성과를 낼 정도로 “특출나진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현재는 특출나진 않은 거 같아요. 대학에 좀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들어오긴 했어요. 수능이 많이 망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 실력이 안 좋았구나... 근데 대학 와서 과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나는 정말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나는 노력하면 된다, 어느 수준까진 된다 라는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하면 100까지는 아니어도 80에서 70까지는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100의 성과를 내려면 120을 해야 되는 인간이구나 하는 게. (박주형)

류승희 지금 생각하면 비록 “우물 안의 개구리”였지만 초·중등 시절까지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외고에 들어와서 성적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서울의 최상위 대학을 목표로 했을 정도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목표에 비해 성적은 낮았는데 류승희는 그 이유를 나의 능력에서 찾기 보다는 목표의식의 부재로 인한 동기 저하에서 찾았다. 목표의 부재, 부정적 자기개념, 공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공부에 대한 의욕이 낮아졌다. 하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물 안의 개구리? 나이 대마다 크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 중 때는 좀 더 우물 안 이었던 거 같아요. 동네이기도 했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크다고 인식 했었죠. (웃음)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떨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1, 2학년 까지는 서울대 외에는 바라보지 않았을 정도로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목적을 두고 공부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3 때 의욕이 떨어졌어요. 갈 필요가 있나 하면서. 저에 대한 인식도, 공부에 대한 가치관도 안 좋아져서 의욕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제 능력에 대한 인식,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늘 있었어요. (류승희)

류승희는 고등학교 때 심각한 무기력을 경험했고 그런 자신에 대해 자책하며 더욱 무기력해지는 등 악순환을 경험했지만 능력에 대한 믿음은 놓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대학에 와서 자신감이 낮아졌는데 이는 대학에 와서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자: 누구랑 비교를...?) 그냥 학점이 4학년 내내 4.0 넘어 졸업했던 아까 말한 언니... 제가 좀 내신에 약한 거 같아요. 언제나 보면 내신에 약해요. (연구자: 그럼 오히려 대학에 와서 고등학생 때보다 자신감이 더 떨어진 건가요?) 음... 네, 그런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보니까... (중략) 내 능력에 대해서는 하면 된다 생각하려 하고 있어요. **안 해서 안 된 거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기 오기 전에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활동 가는 프로그램을 보고 왔는데 그거 보고 깨달은 게 저는 제가 늘 부족하고, 못나고,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사지 멀쩡하고 잘 걸어 다니고 교통사고도 안 당했고 건강하니까 이 몸을 가지고 하면 못할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류승희)

류승희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류승희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자신의 능력이 크다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 현실에서의 낮은 성적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기인식과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크게 저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은 오히려 대학에 와서 더 떨어진 편인데 박주형과 비슷하게 대학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 자신감 하락이다. 성적이나 학업서열의 하락과 상관없이 자신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감은 부족하다는 것은 일면 모순되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하기만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내가 하기만 하면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류승희 뿐 아니라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등학교 때 공부에 있어서 능력은 이해는 다 하는데 꾸준히 이렇게 막 독하게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하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 내가 독하지 못하니까 ‘내가 게으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대학 와서는 **그냥 하면은 다 되는데 안 해서 문제인 그런?** (장윤희)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성적을 좀 올리고 ‘아 그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라

는 생각을 했으니까... 아예 그냥 내려놓은 건 아니죠.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마음잡고 했으면 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근데 하기는 싫고 약간 이런 느낌. (김소현)

장윤희와 김소현은 내가 학업적인 것은 하기만 하면 할 수 있지만 “하기는 싫고”, “안 해서 문제”라고 하였다. 특히 장윤희는 어릴적부터 학업에 있어 흥미와 자율성이 중요했다.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성취도 좋았다. 반면 남이 억지로 시키거나 못 한다고 지적을 하면 흥미가 떨어지면서 수행과 성취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과목과 상황에 따라 학업성취의 갭이 컸다. 김소현은 대학에 와서 공부를 아예 놓은 적도 있었고 다시금 마음을 잡고 해보기도 했다. 그러자 성적이 올랐고 “그래도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중국어 전공을 하다 보니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와의 외국어능력에서 줄일 수 없는 격차를 느낀 적이 많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내가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무기력과 스트레스가 컸고 이러한 점이 공부가 하기 싫다는 생각을 증폭시켰다.

이미나와 이보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차이점은 공부가 하기 싫다는 마음보다는 공부에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실제로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보람은 우울증을 경험했었고 대학에서 받았던 상담에서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학에서 학점도 매우 좋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울하지만 않으면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초반엔 제가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안 한 것도 있고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영어나 일본어과목 들었을 때 잘 나오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나중에 전공과목 들어봤을 때 제가 하는 거에 비해 학점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냥 똑같이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잘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할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열심히 했는데도 못 할 거라는 생각은 아직 없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열심히 안했는데 잘 할거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이미나)

현재로서는 **우울하지만 않으면 잘 할 수 있다?** 내가 학업적인 것은

상황만 괜찮으면 어느 것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보람)

연구참여자들의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배경에는 자신이 외고 입학에 성공하고 외고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학업적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영미는 중학교 3학년 때 외고 입학을 목표로 부족했던 과목의 점수를 끌어올려서 결국 외고에 합격한 것이 자신감을 갖게 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선발의 과정을 거쳐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하지만 수능을 망친 것이 자신감을 반감시키는 요소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해 “반반”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학업 쪽 가치관에 대해서는 약간 반반이에요. 이걸 제가 수능을 망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외고 오기 위해서 그 때 영어점수가 약간 간당간당했기 때문에 엄청 공부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제가 나중에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때만큼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생각도 있고 어쨌든 **나는 그런 집단(외고)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정영미)

이와 유사하게 전가영도 외고에 있을 때는 비록 성적이 안 좋더라도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 낙관적으로 판단했지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하락하였다. 채수를 준비하며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경험 때문에 수능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노력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기도 했다. 어차피 본인의 능력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것은 애초에 도전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잠재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머리 좋은 거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갖고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 그게 다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패하니까 그 전에는 막 ‘해보지 뭐’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일단 그렇게 좋은 지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가영)

요약하면,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이다. 중학교 때까지는 학업성취가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잘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외고에 들어와서 자신보다 뛰어난 친구들을 보며 이전의 자신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고 느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 변하면서 자신감이 하락하는 경험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외고에 속해 있었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대입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더욱 심화된 형태의 자기불일치감과 자신감 하락을 경험하며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연구참여자에 따라 애초에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충격이 되기도 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킨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진행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며 이러한 생각은 조금씩 변주되었고 그 결과 현재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에 대해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이 괜찮다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것은 성적이나 주변인의 진술처럼 현실적인 증거에 기반 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그래야만 한다는 연구참여자의 이상적 자기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공부에 대한 생각의 변화

중·고등학교와 대학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더불어 입시의 경험을 거치면서 공부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질문하였다. 류승희와 이보람이 자신의 초·중학교 경험에서 진술한 것처럼, 학업성취도가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여전히 힘들고 좋은 성적을 받아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절에서는 공부와 배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이 학업서열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공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김소현은 이제 4학년이 되다보니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일단은 고시 준비를 생각하다보니 이와 관련 없는 학교 공부를 가능하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중어중문학과이다 보니 고시공부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싫어도 대입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과목을 억지로라도 해야 했다면 대학에서의 공부는 그보다는 자율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이기에 학교공부를 놓을 수는 없다고 느낀다. 김소현은 만약 사회적인 압박에서 자유롭다면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학원 강사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다.

아마 중학교 때까지만 했어도 공부는 **하면 재밌는 거**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시험 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 **그만 좀 했으면, 안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웃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되게 공부 꼬박꼬박 했었어요. 밥 먹고 방에 바로 들어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공부를 바로 하냐고 쉬었다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오면서 최대한 쉴 땐 쉬고 싶다고 바뀌었어요. 공부하긴 싫지만 일단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결로 바뀌었어요. 지금 대학교 때는 **안 할 수 있으면 안하면 안 될까** 약간 이런 느낌? (웃음) 왜냐면 저는 4학년이니까 취업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저는 공무원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교 수업과 관련이 없고 고시공부를 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학벌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면 전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지금 고시공부를 했을 거예요. 고시공부를 하고 아니면 지금 하는 학원알바가 잘 맞아서 강사 쪽으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소현)

이미나 역시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진 경우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주어진 자율권이 공부에 대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컴퓨터 관련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부가 어렵고 중학교 시절과 같은 느낌의 재미는 찾기 어렵지만 지식을 쌓아간다는 데서 보람찬 느낌은 든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 공부는 사실 거의 재밌어서 한 거 같거든요. 어려움 없이 막히는 부분이 없었다 해야 하나, 계속 새로운 거를 배우니까 되게 **아는 게 늘어난다는 게 좋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는 걸 더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배운 걸 더 어렵게 배우는 느낌이고 제 지식이 늘어난다는 느낌 보다는 **그냥 스킬만 늘어난다는 생각**만 들고... 공부에 있어서 되게 흥미가 많이 떨어졌죠. 대학교에 와서는 제가 선택해서 원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더 배울 수 있고... 근데 대학교 공부는 쉽진 않아서 공부가 재밌고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좀 **보람찬 느낌**인거 같아요. (이미나)

장윤희에게 중학교까지 공부의 의미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배운다는 느낌이 갖게 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수능과 대입이라는 큰 목표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공부를 해야 했다. 장윤희는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한다는 선생님의 말에 반발심이 들기도 했다. 대학에 와서는 공부에 대한 느낌이 “반반인” 상황인데 이는 학점제도 안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조건이 있고 이에 따라 과제와 시험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지만 세부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의 내용을 정할 수 있기에 강제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느낌이다. 내가 알아가고 싶은 주제의 공부를 할 때에야 장윤희는 비로소 “공부하는 느낌”을 받는다.

공부란 것이 어렸을 때는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고 배우는** 느낌이 강했던 거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해야 되는 느낌이 강해지니까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알아간다 이런 느낌보다 **수능 봐야 되고 해야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했고... 대학 와서 그래도 재밌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약간 반반인** 거 같기도 해요. 왜냐면 과제를 주는 거잖아요.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선택권이 있고 이러면 내가 알아가고 싶은 세부주제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내가 공부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장윤희)

전가영은 어릴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자신이 공부를 잘 하고 공부가 자신과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이는 외고에서 성적이 안 좋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심도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

로 공부에 흥미가 있었지만 재수를 실패하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와 공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학원 생각을 완전히 접었다.

재수할 때까지는 공부에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진짜 좋은 대학을 간다면 로스쿨 갈 생각도 했었거든요. 재수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게 공부**이지 않을까, 그나마 공부가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재수를 실패하면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뀐 거 같아요. **나랑 공부가 별로 안 맞는구나...** (웃음) 고등학교 때 그렇게 못했지만 나는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 이런 생각은 전혀 안했거든요. 그냥 항상 꾸준히 나는 그래도 공부를 잘 하고 공부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개차반 성적 받은 거랑 상관없이. 근데 그런 생각 바뀐 건 재수 실패하고 나서예요. (전가영)

이처럼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공부에 대해 갖는 생각도 변하였다. 공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4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공부가 재미있고 자신이 알아간다는 것이 즐거워서 스스로 공부를 했었다고 하였다. 부모님이 “쉬었다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는 것이 늘어나는 게 좋아서 공부하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오면서부터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는데 이는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고 지식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스킬을 배워야 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수능을 위해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느낌이 지식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었다고 했다. 대학에 와서는 연구참여자마다 다른 공부의 의미를 구축하고 있는데 재수 실패의 충격이 컸던 전가영은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공부가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대학에 오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처럼 내가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공부의 내용과 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과 공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여부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II. 생애사 재구성

이전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초·중등, 외고, 대학 생활을 거치면서 경험한 학업서열의 변화에 따른 자기불일치감이 학업과 학교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번 장에서는 학업서열 변화와 자기불일치감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사회·교육적 제도, 삶의 기회, 전환점 등의 일련의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고 무슨 선택을 하였으며 이것이 현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3명의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대표로 생애를 재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보람의 생애사

이보람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공부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으나 고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원래 잘 못하는 애니까 이번에도 성적이 잘 안 나올 거다.” 라고 하신 말이 마치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져 반발심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공부를 하자 성적이 많이 올랐고 이제는 이것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에 사로잡혔다. 중학교에서도 내내 전교에서 1, 2 등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곧 “내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 특히 자신이 공부를 잘 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시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만 할 것처럼 느껴져 공부가 힘들게 느껴져도 열심히 하였다. 이렇게 중학교 내내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다보니 부모님과 주변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권유하였고 본인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보다 해서” 고민 없이 사는 지역에 있는 외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외고에 입학 할 당시 느낀 첫 인상은 “내가 제일 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잘 하는 애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입학 하자마자 본 배치고사에서 매우 하위권이었고 “전학을 가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첫 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는 어림없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적이 계속 안 오다보니 해도 안 될 것 같은 학습된 무기력이 생겼다. 성적은 9등급 중 7,

8등급이 제일 많았고 제일 높은 것이 6등급 정도였다. 시험성적이 나오기 이전부터도 주변 친구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기에 성적을 받았을 때 충격보다는 부모님께 크게 혼날 것이 걱정되었다. 특히 영어는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와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며 열등감을 많이 느꼈다. 이미 선행학습도 많이 해오고 뛰어난 실력의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굉장히 “막막했고” “그럼 나는 대학을 좋게 갈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했다. 실제 부모님이 떨어진 성적으로 인해 혼내기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부모님의 반응에 영향을 받기 이전에 “나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 “압도적”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적에 대한 압박이 고등학교에서의 성적하락으로 인해 우울로 변하였다. 외고의 특성 상 3년 내내 반 친구들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 때문에 대인관계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우울증이 심해졌다. 열심히 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동기와 집중력 등 “학습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가끔 집중이 잘 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잘 하는 다른 친구들로 인해 상대적인 성적이 낮게 나오는 적이 많아 “공부에 대해서는 되게 절망적”이었다. 또래 관계 역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시작 전에 부모님께 “제가 많이 우울하다”고 말씀드리고 심리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님은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셨고 “상담을 왜 하냐”고 하셨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부모님을 설득했다. 부모님은 “공부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상담에 데리고 가셨고 약 1년간 상담을 받았다.

이보람이 다닌 학교는 “전형적인 특목고 시스템”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 앉아만 있다 보니 공부의 효율, 능률이 떨어졌고 실내에만 있다 보니 계절의 변화도 느끼지 못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학을 가지 않은 이유는 외고를 다니면서 형성된 “나는 이제 어디서든 적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장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외고에라도 있어야 이 내신으로 대학을 갈 때 수시로 갈 수 있을거

다”라고 말했던 것이 영향을 주었다. 이 학교에 온 것이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다.

학교는 학업을 매우 강조하는 학교 분위기였지만 간혹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다. 자신이 우울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해준 것도 학교에서 기도모임을 주최하던 선생님이었다. 상담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에 “이것도 못 하니까 난 진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상담을 통해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의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친구와의 관계들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담선생님께서 해주신 “너는 수능과 내신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다른 재능을 가진거다”라는 말씀과 무조건적인 지지가 많은 힘이 되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해도 안된다”는 무기력감이 심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 했고 효율도 떨어졌다. 그러던 중 과외선생님이 모의고사에 “생각보다 재능이 있다”고 하시며 정시를 하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수능에 집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는 내신을 아예 포기하고 정시에 집중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정시에 집중을 하면서는 신경을 써야 하는 과목이 제한되다 보니 “좀 할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3 때 공부가 온전히 마음에 들게 되지는 않았지만 항상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고 서울의 상위권의 대학을 갈 수 있을 만한 점수였지만 수능 1주일 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던 것이 변수가 되어 수능 당일에 긴장을 하여 수능을 망치는 결과를 낳았다. 일단 나온 점수로 대학교 입시 원서를 쓰기로 하였고 평소에 상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대학원 진학을 생각해 상담심리대학원이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해당되는 학교에 모두 지원을 하였다. 현재 학교에는 점수에 맞추어 국어국문학과로 지원을 하였고 추가합격이 되어서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 이후에도 부모님께서 재수를 “강력하게” 권유하셨고 고등학교 친구들의 많은 수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재수학원에 들어가 다시 공부를 하려고 보니 공부에 대한 후회가 없음을 깨달았고 원하는 진로를 위해 “나한테 필요한 공부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재수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

재수를 포기하고는 “너 이런 대학은 나와서 할 일이 없을거다”라고 걱정하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이런 학교에서도 잘 하면 괜찮다”는 것을 보여드리자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았다. 또한 진로가 안정적으로 생각되는 교직과목들을 이수하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부모님도 점차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상담심리에 뜻이 있었지만 입학한 전공은 국어국문학이었기 때문에 “내가 대학까지 와서 원치 않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회의감에 “전공을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심리학과 복수전공을 하고 있고 심리교직을 받기 위해서는 국문교직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기로 하였다.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에 버티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수업을 들을 수록 흥미를 느끼는 과목도 생겨났고 현재는 전공이 나의 적성과 아예 맞지 않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대학에 와서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없었다. 개인적인 성향이 인간관계가 안정되면 다른 것도 괜찮아지는 스타일이라 대인관계가 안정된 것이 학교 적응에도 도움이 되었다. “대학에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게 재미있고” 교수님들도 친근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져서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요소이다. 학교를 “좋게 보려고 하니까 좋게 보이는” 경험을 하였다.

진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문상담교사를 생각하고 있다. 처음에는 상담 공부를 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니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전문상담교사로 진로를 생각하게 된 데에는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지만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선생님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던 것이 영향을 주었다.

현재 대학에 오게 되면서 좋은 점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를 안 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진로와 취업을 위해 경쟁을 하는데 자신은 “탄탄대로를 갈 것이라는 기대치가 낮아져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길이든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 좋다. 이처럼 사람들의 기대를 받지

않는 것이 자유를 주고 있다. 또한 외고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뀌어서 이전에는 “성적을 잘 받는 것이 나의 자존감”이었지만 막상 성적이 떨어지면서 “이게 별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지금은 “스스로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공부하게 되었고 또한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변화가 생겼다. 주변에서는 취업을 위해 대학생활 동안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대학 졸업 전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에 와서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은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직도 가끔 부모님이 보고 계시니 잘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또한 외고 때 뭐든 악착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꺼렸던 태도가 습관처럼 남아있다. 대학에 와서 성적이 좋다보니 이것이 다시 “굴레”가 되기도 한다. 1등을 지켜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스스로 “그렇게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기대에 부응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부담이 들 때도 하다. 대학에 와서도 가끔 우울감을 경험할 때가 있어 교내 상담센터를 찾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울한 것에 비해 학업 기능이 좋다는 말을 듣고 나는 “상황만 괜찮으면 어떤 것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만약 외고를 가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겪지 않았으면 지금도 중학교의 그 상태 그대로 “성적이 나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 만약 그랬다면 여전히 “내가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또한 외고를 거치면서 나와 맞는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고 그것이 현재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당시의 내적 갈등과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의 도움을 받고 자신에게 집중했던 것이 삶의 태도와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이것이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하고 갈등이 생길 때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는 ‘내 아이는 외고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공부의 압박이 심한 것이 너무 힘들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행복을 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류승희의 생애사

류승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고 영재교육 같은 것이 있으면 참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꼈다기 보다는 머리를 믿고 벼락치기로 공부에서 “순간 점수만 맞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공부가 힘들어졌다. 중학교 때는 이미 선행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자만심이 있었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흥미도 못 느끼고 목표도 없었다.” 중학교 때 성적은 2등급 정도였고 전교 10위권 이내였지만 1등급을 하지는 못 했다. 목표가 없으니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은 타입이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호기심도 없어지고 “객관식 정답만 찍는 공부”를 하면서 성격도 소극적, 내성적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에 잘 맞지 않았던 것 같고 “해외에서 태어났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당시 류승희가 경험하던 주입식교육은 류승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부할 뿐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하지 못했다. 또한 ‘좋은 성적’을 위한 선행학습은 수업에서 더 나아가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목표의 부재는 공부를 더욱 힘들게 했는데 이는 추후에도 계속 공부에 더욱 몰입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보니 가까운 고등학교는 가기 싫었었고 부모님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권유하셨다. 성적이 아주 최상위권이 아니라서 자사고까지는 쉽지 않다고 판단해 그 아래를 알아보다가 외고를 지원하였다. 외고를 선택한 것에는 “공부를 잘 하는데 일반고 가기는 그렇지 않나”하는 자존심도 작용한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원래 본인은 이과 과목이 더 잘 맞고 영어는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외고에 가면 잘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외고를 간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와 본인 스스로도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 현실적인 적성과 흥미를 무시한 것이 나중에 ‘시작이 잘 못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선택이 되었다.

입학 당시에는 “자립심이 약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강제적으로 공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적응하기 힘들었다. 1학년 때 전학 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친했던 친구가 전학을 가면서 류승희도 전학을 생각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겨우 버텼다. 학교에서 내신점수를 따기가 힘들고 특히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에서 성적을 따기가 어렵다보니 수시전형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 “이상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의 최상위권 대학을 생각했었지만 내신이 3~4등급이 나오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정시에 몰입하였다. 특히 영어에서 좌절을 많이 느꼈고 이 때문에 자사고가 아니라 외고를 간 게 “큰 실수”였다고 느꼈다.

스스로를 “시험에 강한 타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신을 접고 정시준비를 하면 최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인강을 들으며 나름의 방식대로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처음에는 서울대 경영을 목표로 공부하였다. 하지만 이내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억지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고 영어가 나와 맞지 않는데 영어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다. 또한 외고 다니면서 성적으로 사람이 판단되는 경쟁 사회에 염증을 많이 느꼈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애들을 모아놓다 보니 이기적이거나 은근하게 따돌리는 것도 있었다. 고등학교에 가서 상대적으로 못 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 이상이 높은 편이다보니 경쟁에서 밀리니까 놓아버리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다. 류승희에게는 이 때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온전히 느낀 시기였고 그로 인해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고 공부를 놓아버렸다.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고 느끼자 동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류승희는 고3 때 이렇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학교를 그만두거나 다른 길을 걸을 용기는 없었다. 1년 동안 “정시에 올인”해서 그냥 빨리 벗어나 대학에 가서 원하는 것을 이루자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건디는 것이 쉽지 않았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는 자살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힘들다고 느꼈는데 목표가 없으니 억지고 해야 하고 억지로 하기 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하는 모습이 스스로에게 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힘든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따로 짐을 얹어드리기가 싫었으며 그런 깊은 얘기를 나눌만한 친구도 없었기에 경비아저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통해 기분 전환을 하면서 그 시기를 버텼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공부를 더욱 못 했고 아무 목표 없이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공부를 “안” 했다. 목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의사라는 목표를 만들고 “그래도 해야지”하며 공부를 했지만 수능점수는 잘 안 나왔다. 이처럼 류승희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만들어 준 이상도 있었지만 ‘목표 있는 삶’, ‘꿈이 있는 삶’ 등 스스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모습을 만들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의 자신에게 불만족감을 느끼고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집중하지 못 했다.

수능 성적이 한의예과는 못 같 점수였기에 “성적에 맞춰서 가야되겠다는 루트를 또” 따라야 했다. 자신을 잘 아시던 학원선생님께 조언을 얻어 공직이나 올 것 같다고 하여 법학과를 선택하였다. 부모님은 재수 하라고 하셨으나 더 이상 목표 없이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현재 대학으로 진학하였다. 이제 와서 보면 법학과도 나에게 잘 맞는 학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재수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 최근에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건 나에게 행정학과가 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류승희도 스스로 진술했 듯 ‘점수에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그럴수록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꿈이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지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객관적인 조건과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와서는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생각 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활동하는 거니까 잘 하고 싶다고 생각” 했고 재수는 하기 싫었기에 잘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여태까지 못 해왔던 것을 해보자는 생각에 수업시간에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다가가는 등 이전까지는 소극적이었던 대인관계 패턴을 바꿔보려 시도했다.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동아리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대인관계적으로는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학업적으로는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많이 풀어졌다.” 대학에 와서도 여전히 목표가 없는 것은 같았고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방향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보니 성

적도 좋지 못했고 자신의 전공인 법학에 흥미를 많이 못 느꼈다. 또한 대학 수업은 다들 줄 알았는데 주입식 수업인 것은 고등학교 때와 똑같다고 느꼈다. 고등학교 때 원했던 것처럼 대학에 와서 막상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해도 “안 해보다보니 못 해서” 답답했고 마치 “고등학교 4학년의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선배 언니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에 와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잡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1학년 때는 즉각적으로 변하지 못 했고 2학년 때는 과가 안 맞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으며 비로소 3학년에 와서야 학과수업을 좀 활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류승희는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인관계와 학업에서 모두 ‘잘 해보려고’ 노력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학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등학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학업에 있어서 여전히 ‘목표의 부재’가 큰 걸림돌처럼 다가왔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과 전공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류승희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고민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비해 실천으로는 잘 옮기지 못했는데 이는 너무나 큰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 지속적인 실패의 경험이 무기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류승희는 3학년 1학기 때 자취를 하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학교와 집이 멀어서 7개월 정도 자취생활을 했는데 “완전히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힘들었다. 특히 잠이 많은 타입인데 스스로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수업 출결이 안 좋아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를 그냥 놔두면 바닥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것을 경험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크게 느꼈고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중 류승희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 크게 실망을 하셨고 그 동안 하지 않으셨던 마음에 품었던 말씀들을 하셨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우니 학업을 지속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셨다. 부모님과 대화 이후 류승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느낌”을 받았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였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기에 나중에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반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류승희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때 정치와 제도의 영향이 큰 것을 보면서 막연하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정치계로 진입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공무원시험을 봐서 인사직렬 쪽의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번 학기 초에 다시금 결심을 하였고 지금은 수업을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고” 과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동아리도 새로 시작하여 책임자로서 스테디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팀플, 발표 등의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끼지만 학업적으로는 “아직” 주체적이기 보다는 ‘수동성’이 남아있고 그것을 “깨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류승희는 대학에 와서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동아리활동과 같은 학업 외 활동에서는 좋은 수행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학업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승희는 돌이켜보면 초·중등 때는 “우물 안 개구리”였던 것 같다고 느낀다. 실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모님도 스스로도 크게 인식했었다. 고등학교 와서 학업 성적이 크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1, 2학년까지는 “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최상위권의 대학을 목표로 했었고 고3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행이 좋지 않자 자기 자신과 공부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목표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류승희는 오히려 대학에 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자신의 비교하다 보니 학업적으로 “난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남과 나의 인생을 단순하게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아직 미운오리새끼이고 나중에 백조가 될 대기만성형이다.”라고 생각을 전환 하려고 노력한다. 예전에는 사회에서 비교의 기준이 되는 ‘돈’ 같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외에 나에게 숨겨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류승희의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3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해서 최대 2년 동안은 원하는 공무원을 목표로 고시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만약 합격하면 남은

대학 기간 동안은 “나를 위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공부가 내가 하고 싶은 공부이다.

3. 전가영의 생애사

전가영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곧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스스로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중학교에서는 전교 5~10등 정도를 꾸준히 했다. 당시 주변에서 공부를 잘 하면 의례히 외고를 간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가영도 막연히 “외고를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전가영의 집 근처에도 외고가 있었지만 모교인 외고가 거주지가 속한 권역에서 가장 대입 실적이 좋다는 것을 알고는 집과의 거리는 멀지만 지원하여 진학하게 되었다.

전가영은 중학교 영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외고에 쉽게 붙었지만 해외를 다녀온 적은 없어서 막연하게 외고에는 “나보다 잘 하는 애들이 많겠지”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입학하고 보니 학생의 반 이상이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어서 특히 영어수업이 너무 힘들었다. 전가영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라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공부에 있어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꼈다. 특히 외국어수업에서 너무 위축되다 보니 부모님이 유학을 안 보내준 것을 원망했을 정도였다. 기숙사 생활도 적응이 안 되었고 공부도 힘들고 부모님도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하였다. 그렇게 1학년 동안 “격정의 시간”을 보내다가 2학년이 되면서 내신은 해봤자 안된다고 판단하고 정시에 몰입하기로 결정하고 논술학원 다니면서 수능공부만 하였다. 내신 공부를 아예 놓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나 하지 않았을 때나 등수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내신은 단지 “정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고 생각했다.

전가영은 어릴 때부터 Y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진학해서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죽 해왔다. 이러한 진로를 위해서 외고를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외고에 왔고 막상 와보니 학업적으로 힘들었지만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했다. 당시에 “낙관주의에 찌들어

있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학교가 대입 실적으로 해당 권역에서 1등을 하는 학교였기에 학생들도 “눈이 높아서” 상위권의 특정 대학 아래로는 수시를 안 쓰는 분위기였다. 전가영은 형제가 많아서 다자녀 전형으로 원서를 넣으면 합격확률이 매우 높은 수시전형이 있었지만 당시 대학이 보통 전가영의 학교 친구들은 수시원서를 쓰지 않는 학교였기에 원서를 넣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수능 점수가 원하는 수준보다 낮게 나왔고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할 정도로 워낙 학교 친구들의 재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가영도 자연스럽게 재수의 반열에 끼게 되었다. 하지만 재수학원이 잘 안 맞기도 하고 고등학교 내내 학비로 돈을 많이 쓴 것에 대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어 독학으로 재수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 그런데 수능 날 평소에 쉽게 생각하던 영어듣기를 놓치면서 영어시험을 망쳤고 영어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서 또 다시 전 해와 비슷한 수준의 최종점수가 나왔다. 최선을 다 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 부모님 보기도 죄송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한계를 느끼며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힘든 재수기간에도 밝은 미래를 예상하며 견뎌지만 재수에 실패하고 나니 이것이 한 동안 큰 트라우마가 되었을 정도로 충격이 되었다. 제일 컸던 것은 꿈까지 다 잃어버린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메이저 언론사는 학벌을 많이 보기 때문에 대학부터 무너지니 “그 이후의 내 꿈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전가영이 입시 과정을 돌아보았을 때 후회되는 것은 내가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잘 한다고 “나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내신을 다 버리고 수능에만 몰두했던 것도 후회가 된다. 내신과 비교과도 좀 챙겼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원서를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가영은 어쨌든 대학을 어디든 가야겠다는 생각에 안전지원으로 현재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점수가 많이 남는 상태에서 지금의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입학 초기에는 “난 너희랑 달라” 라는 자만심이 있었다. 지금 대학에 갔

다는 것이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는 창피했다. 그리고 대학에서 친해지게 된 동기가 수학과 영어를 잘 못 하는 것 보고 “나는 수능 수학 1개 틀려서 왔는데 이런 애들이랑 같이 학교 못 다니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전가영은 외고 출신으로서 자신의 학업능력 수준에 비해 진학한 대학이 낮다고 여겼고 그래서 이 곳은 내가 있을 학교가 아니고 이 학교에 다니기에는 내가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엉망진창으로” 다니고 2학기를 휴학해서 다시 수능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반수는 재수 때처럼 열심히 준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삼수에서도 비슷한 점수가 나와 대학을 못 옮기고 복학을 하게 되었다.

반수를 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정을 붙이고 열심히 다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대학에 오면서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을 포기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복학을 하고 얼마 안 있어 학교신문사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넣어 합격하게 되었다. 그 전부터도 대학에 가면 학부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학교에 정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기사를 쓰는 것이 자신 없어서 기자생활까지는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학교신문사 체계가 모두가 기사를 쓰는 것이어서 얼떨결에 기사를 쓰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학부사 활동을 하는 것이 학교에 정을 붙이는데 “100%” 도움이 되었고 기자라는 직업에 있어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일단 “학교에 내가 머물고 갈 곳”이 있고 학부사이다 보니 학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서 억지로라도 관심을 갖다보니 애교심이 생겼다. 대학에 다니면서 “겸손”해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여 현재는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나는 이 학교를 다닐 레벨이 아니더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은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다니는거다” 라고 생각을 바꾸고 학교 내에 훌륭한 사람들을 보는 쪽으로 시야를 틀었다. 고등학교 때 까지는 사람의 역량을 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수 때 최선을 다하고 실패해보니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는데 “내가 내 그릇에서 넘치게 큰 것을 바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현재 대학에 적응하는 것과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지나

치게 낮추고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역할도 하였다.

전가영은 원래 경영학과는 절대 안 가겠다고 생각하고 사회과학대학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경영학과에 와서 보니 경영학도 본인과 잘 맞는 것 같다. 정치외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보았지만 자신과 잘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경영학과와 과목들이 흥미와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 생각하는 것과 경험해보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나쁘지 않은 것도 학교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중학교 때는 모든 과목을 다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다 못 하는 경험을 하면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안 하면 대학을 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때 수학공부를 열심히 해놓았던 것이 지금 수학에 자신감을 갖게 된 데 도움이 되었다. 비록 대입에는 실패했지만 수학 한 과목에서는 성취를 했다고 생각해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학에 수능점수를 많이 남기고 들어왔어도 학점은 다른 애들이 훨씬 잘 받는 것을 보며 수능성적과 학점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야 하는 참여수업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는데 발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느낀다. 대학공부의 뚜렷한 목표는 취업이고 그래서 학점을 잘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재수를 했기에 공부와 취업에 있어 “나이의 압박”을 느끼고 재수를 안 한 친구들과 속도에서 차이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빨리 졸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일반고를 갔다면 대학을 더 잘 가고 이런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외고를 선택할 것이다. 외고에서 뛰어나고 훌륭한 친구들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 많이 넓어졌는데 동네 학교를 나왔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일반고를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갔다면 외고를 다니면서 먼저 경험한 열등감을 대학에 간 이후에 느꼈을 것이므로 미리 경험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고에서의 경험으로 이제는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하는 게 아니라 배울 점을 찾고 인정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삼수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현실을 맞닥뜨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한 자기의 모습과

향후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삶에 있어 만족감만을 주고 있지는 않다. 또 다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위축되고 안정된 수준의 목표만 잡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부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가영에게 공부는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하나, 더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다. 공부 잘 하는 사람은 그러한 재능을 타고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일단은 그렇게 좋은 지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대학교 이후에 전문대학원 진학도 고려했었지만 지금은 대학만 졸업하고 이후에는 공부를 더 할 생각 없이 무조건 취업을 할 생각이다.

VII. 논의 및 제언

1. 학업서열의 변화가 자기불일치감에 주는 영향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물에서 놀아야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하고 모두가 명문학교와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입시경쟁체제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서열화가 빈번히 일어난다. 작게는 학급의 등수에서, 크게는 대학의 순위까지 학생의 학업성취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서열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는 상위권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는 졸업생 비율이 높을수록 명문 고등학교로 인식되고 마찬가지로 좋은 직장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취업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대학일수록 명문 대학교로 인식된다. 이러한 명문 학교에 대한 열망은 자신의 학업성취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목표하는 것, 예를 들어 또 다른 명문 학교의 진학이나 원하는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성취도의 상위 집단에 들어갔을 때 경험하는 것은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고등학교라는 높은 학업성취 집단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은 학업적 서열⁴⁾이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와 인식을 경험하였고 이는 다시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르면 외고에 입학하기 전인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자신이 학업적으로 ‘못 하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배치고사나 중간고사와 같은 시험을 통한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 되었지만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비교하며 주관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는 대부분 입학 직후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4) 김영빈(2008)의 학업우수 고등학생의 학업서열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업우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 95%의 아이들이 학업서열의 하락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학업서열의 하락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충격적인 경험으로 다가왔다. 이는 김소현과 류승희가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가 세상에 나가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그 동안 자신의 학업적 능력을 크게 인식하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높은 학업성취 능력이 자기개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으며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였던 연구참여자들에게 급작스러운 학업서열의 하락은 ‘그래야만 하는’ 자기와 현실의 자기 간에 큰 불일치를 느끼게 만드는 경험이 되었다. 자기불일치(self-discrepancy)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자기(ideal self) 혹은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여기는 자기(ought self)와 실제 가지고 있는 모습의 표상인 자기(actual self)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Higgins, 1987). 이러한 자기간의 불일치는 우울, 불안, 타인 예민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심리적 불편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일모 외, 1995). 연구참여자들은 ‘그래야만 하는’ 자기와 실제 자기 사이에 불일치로 인해 ‘위축’, ‘열등감’, ‘박탈감’, ‘우울’, ‘불안’, ‘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자기불일치감은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쳐서 공부에 대한 ‘거부감’, ‘의욕 상실’, ‘무기력’, ‘회피’ 등의 학업태도를 가져와 낮은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교육기관의 학생이 성적 하락을 경험할 때 자기불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험불안, 열등감, 낮은 자신감, 낮은 학업성취도 등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신혜린, 2002; 조두영, 1985; 박찬원 외, 1999).

이처럼 환경의 변화로 인한 급격한 학업서열의 하락과 이로 인한 자기불일치감의 경험은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비교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 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본능에 의한 것으로,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념이나 선호들은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들과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됨을 의미한다(Kruglanski & Mayseless, 1990; 한덕웅, 장은영, 2003). 사회비교이론은 처음 제안한 Festinger(1954)는 사람들의 자기평가의 동기로 인해 사회비교가 이루어지며, 이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평가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의견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하는 주관적 평가가 사용된다고 하였다(장은영, 2004). 이러한 사회비교이론 중 개인의 학업과 관련된 자아개념이 개인의 학업적 성취 뿐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의 성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을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Big-fish - little-pond effect)’라고 한다(Marsh, 1987).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학업적 능력에 대해 중학교 때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성취도를 가진 그룹에 있을 때에는 높은 학업적 자기개념을 가졌지만 외고와 같이 평균 성취도가 높은 그룹에 속할 때는 자신이 가진 고유한 특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기개념의 변화는 두 시점 간의 짧은 시간적 거리로 인해 학업서열의 변화에 맞추어 학업적 자기개념도 서서히 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 하였고 자기개념 간에 불일치감을 크게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외고에서 경험한 학업에서 반복된 실패의 경험은 ‘해도 안 될 것’이라는 학습된 무기력과 더불어 학업에 대한 자신감 하락, 공부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학업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정서적 변화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높은 평균 성취수준을 가진 외고에 진학함으로써 대학입시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능점수의 비중이 높은 정시전형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제도적으로 대입에서 정시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적어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상대적으로 선발 비율이 높은 수시전형은 낮은 내신점수로 인해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적인 어려움과 대입에서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외고를 떠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 이유에는 사회비교이론 중 후광효과(Basking in the Reflected Glory)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외고에서 학업적으로 낮은 서열에 있었지만 외고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자부심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학업 자기개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특목고의 타이틀은 능력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중 김소현은 외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채용에서 혜택을 받는 경험을 하였다⁵⁾.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중학생 대상 외고 입시설명회에서는 졸업생들의 뛰어난 성취도와 최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을 보여주고, 특목고가 상위권 대학의 진학에 유리함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⁶⁾는 특목고라는 배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대입에서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한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중 전가영은 외고에 다니면서 “주변 애들이 다 잘하니까 나까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사회비교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김보연(2012)과 김희란, 이진희(2017)의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보다는 후광효과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도 지지하는 바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외고에서 학업서열이 하락했을 때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와 후광효과가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학업적 자기개념이 하락하였지만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외고에서 낮은 학업서열에 위치하였고 부정적 정서와 대입에서의 불이익을 경험했음에도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으며 후에 자신의 외고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업실패의 원인에 대해 자신의 능력 등 내부적 요인에 귀인하기 보다는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목표가 없어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 외부적 요인에 귀인 함으로써 학업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학업적 자기개념을 지키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학업보다 잘 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이나 남들은 잘 못 하는

5) “(학원) 원장님께서 외고나왔다고 해서 다른 경쟁자들 다 물리친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온 것만으로도 이정도인데 대학교 차라리 잘나왔으면 더 다른 거 하고 있지 않았을까....” (김소현)

6)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의 올해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21%p 낮은 데 반해 특목고 출신 비율은 11%p나 높아 대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소재 상위 10개교의 경우 일반고 비율은 55.3%로 전체 평균 대비 20.9%p 낮았다. 반면 특목고 비율은 15.3%로 평균보다 11.1%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2018.06.29.). “주요대학(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 신입생 ‘특목고 쏠림’ 여전”에서 발췌

과목에 몰입함으로써 학업실패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를 피하고 자기 가치를 지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대입에서 경험한 서열 하락은 고등학교에서의 경험과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목표로 했던 대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대학을 위해서 온 참여자는 없었으며 모두 수능점수 혹은 편입점수에 맞춰서 진학하였다. 황매향(2002)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하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더 많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참여자들이 특히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것에 큰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이유는 특목고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성취도 면에서 고등학교 중 상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외고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신이 기대한 수준의 상위 집단에 진학하지 못한 경험은 상대적인 박탈감을⁷⁾ 가져오고 기대했던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계획했던 미래가 무너지는 경험으로 다가오기도 했다⁸⁾. 이는 또한 학업적 자기개념과 자신감이 완전히 하락하는 계기가 되어 “내가 그렇게 좋은 지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전가영)”거나, “내 실력이 많이 안 좋았다(박주형)”처럼 내적이고 안정적인 원인인 자신의 능력에 귀인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확실히 고등학교에서 학업서열이 하락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해왔기 때문에 미래에도 실패하리라고 예상하여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가 저하된 사람들의 특징이다(Weiner, 1971). 실제로 박주형과 전가영은 대학에서 학업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해보고자 하는 열의가 높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원하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학교 적응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를 중도탈락하거나 학업수행에서 낮은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연보라, 장희원, 2015; 김현철, 2005; 노혜림, 2015). 이상우와 박기범(2018)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시험 성적, 출신 고교 등의 변수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7) “친구들이 다들 좋은 학교를 많이 갔으니까 (나는 못 간 것이) 아쉽죠.”(이미나)

8) “나는 이제 이 정도 좋은 대학에 가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정해놨는데 대학부터 무너지니까 그 이후로도 완전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 내 꿈도 잃은 거예요.”(전가영)

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모든 특목고 출신 입학생이 일반고 출신의 입학생보다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특목고 학생들이 대학 혹은 학과에 불만을 가지고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입학 초반에는 대학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재수나 편입을 생각하면서 대학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⁹⁾ 자신이 외고 출신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 재수를 시도했다 실패했거나 어떠한 계기로 인해 학교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기까지 지속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학업성취는 진로성숙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진로성숙이란 특정 단계에서 당면한 진로 발달과업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심리적 자원을 의미한다(김봉환 외, 2013). 선행연구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대학 및 전공 선택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진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계획한 전공으로의 진학에 성공한 경우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윤수경 외, 2015).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자신의 흥미를 잘 파악하고 있고 진로목표가 뚜렷하며 현재 전공과 진로목표가 합치할수록 적응을 잘 하고 대학이름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공에 더 초점을 맞추어 대학이름에 대한 실망감을 상쇄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이미나와 이보람이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데 이들은 뚜렷한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전공, 흥미, 진로가 합치하고 있어 비록 입학 초반에는 재수와 편입을 고려했었으나 결국 대학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정영미의 경우에는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 없이 단순히 생활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기에 막연하게 진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좋아 보이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대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가영의 경우와 같이

9) “그 때까지만 해도 편입도 생각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굳이 뭐... 내가 열심히 막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한 거 같기도 해요.” (이미나)

“이런 애들이랑 학교 못 다닌다 이러고 수업도 안 듣고 실제로... 어차피 나 반수할거야 이러면서 1학년 1학기를 엉망진창으로 보냈어요.”(전가영)

‘기자’라는 진로목표가 뚜렷한 경우에도 주요언론사는 최상위권 대학에 가야 취업에 유리하다는 통념 때문에 대학 서열에 중요한 의미를 두게 되어 자신의 대학에 불만족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대학입시의 결과가 단순히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나 취업으로까지 연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학생들로 하여금 대입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고 목표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 했을 때 실망감을 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느끼게 한다. 전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르고 진로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할수록 고등학교 때와 유사한 부정적인 정서와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김소현과 류승희의 경험이 이 경우에 속한다. 또한 대학공부를 취업의 도구처럼 여기는 경향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진로 방향과 전공이 맞지 않으면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⁰⁾.

이와 같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입시과정에서 학업서열의 오르내림을 경험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적 자기개념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의 형태로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초·중등 시절에 보였던 높은 성취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외고 입학이 이들에게 큰 성공경험으로 인식되며 그로 인해 비록 그 이후 외고와 대입과정에서 학업성취의 하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학업성취의 결정요인으로 ‘노력’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외고에서 자기불일치감으로 인한 무기력으로 인해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심리내적인 작용으로 인해 그런 정서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막연한 자책과 아쉬움¹¹⁾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강조하

10) “아씨 이거 공무원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이러면서 막 내가 왜 듣고 있어야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년을 연달아서 전공에 대한 회의가 오니까 살짝 힘들더라고요. (김소현)”

11) “(고등학교 때)공부를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정영미)

“이렇게 된(정시에서 대학에 다 떨어진) 김에 아예 이제는 그동안 열심히 안했으니까 이제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학원에) 들어간 건데 갑자기 붙으니까 별로 좋진 않았어요.”

는 주변의 분위기¹²⁾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교에서의 학업에 있어서는 목표와 동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고등학교와 비교해서는 자율성이 확보되는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시키는 개인적인 학업목표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는 진로목표와 연결된다. 실제 연구참여자들도 진로목표가 뚜렷할수록 학업에 의욕이 높고 공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으며 학업성취도 또한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업의 목적이 되는 진로목표가 연구참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경험하는 자기불일치감을 극복하고 이상보다는 현재의 자기에 집중하며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것은 진로목표가 자신의 흥미, 적성, 현실적 조건 등을 바탕으로 형성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전히 부모님의 바람, 사회적 선호, 과거의 자신에 바탕을 둔 진로목표는 이상과 현실의 자신 간에 괴리감을 유지시키고 학업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¹³⁾.

이 외에도 외교에서의 학업 경험은 학업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외국어 활용에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발표와 토론 같은 학업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대학에서의 학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 중 특히 외교의 본래 설립목적인 외국어 영재 양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외국어 관련 교육과 활동들은 외교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외교가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에 유리한 학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본래의 취지를 되찾아 외국어 교육에 특화 된 환경을 조성한다면 외국어에 강점과 흥미를

(이미나)

12) “약간 양치기라고 하잖아요. 공부시간이 길어야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류승희)

“고등학교 때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부모님이 ‘나약해서 그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나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고 정서적으로 지지받는다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이보람)

13) “오빠한테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오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집안의 형편 문제나 부모님이 좀 연로하시니까 빨리 먼저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하라는 의미였거든요. (중략) 제가 복수전공이 국제학부인데 이 수업이 너무 빠서 ‘아씨 이거 공무원시험에도 안 나오는거’ 이러면서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김소현)

가진 학생들에게 유익한 외국어교육의 경험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2. 우리나라 교육에서 학업서열의 의미

학업성취는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및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99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간 청소년의 상담경향을 조사하였을 때 중·고등학생의 호소문제 중 학업 및 진로가 1위를 차지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학업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대학생에게도 학업은 중요하다. 학업성취는 대학생활의 적응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박소연, 2016; 노해림, 2015; 조영아, 전우택, 2004) 개인의 중요한 성취경험으로서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학업동기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혜영, 2018). 이처럼 학업은 ‘학생’의 정체성을 가진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업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인지 및 정서는 학생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현장에서 서열화와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 한다’는 뜻은 ‘남보다 잘 한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는 곧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못 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패배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학업서열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개인이 공부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¹⁴⁾ 대부분의 경우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공부에 대한 목적도 함께 사라진다¹⁵⁾. 한 편으로는 좋은 성취를 보였을 때 따

14) 이미나는 중학교 때 “아는 게 늘어난다는 게 좋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였다. 장윤희는 “어렸을 때는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고... 배우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다고 했다.

15) 최선주(2013)의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시험형 자기주도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라오는 주변의 칭찬과 인정이 공부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서열경쟁에서 졌을 때, 다시 말해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런 경우에 나의 흥미와 적성 등 학업적인 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객관적 고려는 중요하지 않고 등수가 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과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만이 공부의 동기가 된다¹⁶⁾. 이 때는 학업에 있어 ‘그래야만 한다’는 의무적 자기가 크게 작용한다.

내가 못 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러한 의무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간에 간극이 생겼을 때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자기불일치감 중 하나가 열등감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외고입학 이후 자신이 ‘못 하는 사람’이 되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 4명은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당시와 대입 이후의 감정을 설명했으며 나머지 4명은 “자존감이 떨어졌다”, “좌절”, “기가 죽었다”, “창피”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유사한 정서를 표현하였다. 열등감이란 타인과 나를 비교하였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가치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오는 정서를 의미한다.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을 발전시킨 Adler는 열등감이란 매우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고 보상하려는 노력이 자기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열등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신적 에너지가 되지만 때로 이런 열등감이 과도할 때에는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자아정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권석만, 2012). 연구참여자들이 그 동안 형성했던 학업에 대한 자기개념은 자신이 학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 능력 자체에 기인하여 형성되었다기보다 ‘남보다 잘 한다’와 같은 사회적 비교와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적 모습에 부합

입시공부에서는 분명했기에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학이라는 목표의 소멸과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목표가 다 풀어져버린 대학에서는 공부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균열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16) “나도 뭔가 잘 하는가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되게 잘하게 됐고 되게 잘하게 된 이유에는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뭔가 강박? 이런 걸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컸던 이유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해주시고 인정해주시니까 약간 제 자존감이 그걸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어느 순간부터 이 성적이 떨어지면 뭔가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이보람)

하여 형성된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좌절됐을 때 경험한 열등감은 자기 발전에 동력을 제공하는 건강한 불일치감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적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차단해 버리거나 공부 이외의 것으로 도망치는 등 현재 상황을 회피하고 혹은 다른 이유로 합리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경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공부 자체에 거부감을 느꼈으며 때로는 심각한 무기력과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할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이는 ‘못 한다’, ‘서열이 하락 한다’, ‘열등하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학생에게는 자기발전의 동기가 되기보다는 우울과 불안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학생으로서의 자아정체감과 삶의 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공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를 변화시켜서 본인이 흥미가 있어서 재미있게 공부하던 과목도 못 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영어를 좋아했던 연구참여자들이 외고에 입학하여 다른 친구들보다 영어를 못 하는 사람이 되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이 학업적으로 못 하는 위치에 처했을 때 매우 큰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수준이 높은 그룹에 속하고자 하는 열망은 지속되었다. 정영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외고에서 학업경쟁과 못 하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에 가서 다시 잘 하는 위치로 갔을 때 그것을 즐기거나 만족하지 못했고, 평소 원했던 진로인 해외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결정함으로써 다시 ‘용의 꼬리’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정영미는 잘 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있을 때 힘들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더 자극이 되고 시너지 효과도 있어 좋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좋지 않고 항상 높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쟁이라는 사회적 구조에서 오는 불안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의 목적이 되고 있으며 당장의 삶의 질이나 만족감보다는 정서적으로 힘들더라도 무조건 높은 평균을 가진 그룹에 속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우리나라 교육현장

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현재의 흥미와 행복을 희생해 가면서 무작정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서열화와 경쟁이 중심이 되는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해결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학업은 학생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만큼 자신의 학업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학생 개인의 정체감과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자기개념은 ‘특정 영역을 잘 한다’ 보다는 ‘남보다 잘 한다’는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 형성되는 학업자신감은 조건적이고 가변적이어서 학생들이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정서와 수행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또한 부모님과 같은 중요타인과 사회·교육적 분위기를 통해 주입되는 가치가 학생들의 학업목표를 형성하고 있고 이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행복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부가 목적이 아닌 도구가 되는 현실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체제와 제도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가 있다.

3. 상담 및 교육에서의 시사점

선행 연구들은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아개념과 정서가 긍정적이고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자아개념과 정서가 건강하다는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예: 박춘성 외, 1995; 정운경, 2007; 김영빈, 2008). 이 때문에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하여 상담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았고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Moon,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으로 우수했던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경험하는 학업서열의 하락으로 인해 자기불일치감을 경험하고 이것이 학업수행과 정서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객관적인 학업 성취 수준과 상관없이 학업적 실패 상황은 학생 개인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주고, 특히 학업성취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형성했던 학업우수 학생의 경우 그 영향

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최근 한 기사(매일경제, 18.11.30)에서 공개한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방안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 중 ‘불안 및 우울 정도’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46.5%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난으로 인한 과열경쟁 분위기가 미래와 연관된 정서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학업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는 학생일지라도 성취의 비교대상이 바뀌고 경쟁의 상황에 처하면 객관적인 학업능력과 상관없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외고에 진학하면서 경험한 학업서열의 하락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과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당시에 자신의 심리내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정서를 완화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수월성 좌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기에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들을 가까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도움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일하게 고등학교 시절에 심리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았던 이보람의 경우, 상담을 통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자기가치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자기불일치감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은 자기불일치의 간극을 줄이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이상적 자기의 모습이 현실과 달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원하는 것 보다는 부모님과 같은 중요 타인이나 사회적 가치에 더 치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적 자기의 수준을 잘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므로 자기탐색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자기불일치는 자기개발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자기불일치를 아예 없애려는 노력보다는 이로 인한 부정적 정서

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며 이를 위해 상담사가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의 태도를 보여주어 학생이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에 위로가 되었던 요소로 선생님이나 경비아저씨 등 주변 어른들과의 소통을 꼽았는데 이는 주변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의 존재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당시의 연구참여자들처럼 자존감이 낮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주변 어른들의 관심은 그래도 여전히 본인은 가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보호요인이 된다. 이는 반드시 형식적인 상담이 아니더라도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의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이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부를 묻는 사소한 인사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힘을 얻을 수 있다.

자기불일치감으로 인해 학교 적응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에 있어서는 그 이면에 있는 부정적 정서를 다루고 학업과 진로목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적응과 학업에 있어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성공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처럼 학업 성공에 필요한 개인내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학습전략의 활용 같은 부분보다는 공부의 의미와 목표의 설정을 도움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자기불일치감을 다룸과 동시에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대학에서의 학업과 연결시키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상담과 진로상담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교에서도 자기불일치감을 극복하고 현실에 적응하는데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학교에 ‘갈 곳’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정을 붙이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대학교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물리적으로 소속되는 공

간이 없기에 타인과 소통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다. 때문에 소속감의 부족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대학 적응 뿐 아니라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대학 내 공간과 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대학상담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상담이나 그룹코칭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대인관계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대학적응과 학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중(2009). 평생학습 연구 방법으로 학습생애사의 의의와 가능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1), 201-223.
- 강상진, 장원섭, 김주아, 장지현, 김양분, 윤중혁, 류한구, 남궁지영, 남영호(2005). 고교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연구보고 RR 2005-02.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 박소영, 정현철, 박진아(2007). 특수목적 고등학교 정책의 적합성 연구. **RR 2007-05. 한국교육개발원**.
- 강숙희(2013). 국내 학위논문을 통해서 본 생애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교육연구**, 28(1), 1-21.
- 강민수, 문용린(2007). 생애사 연구의 교육심리학적 고찰. **인간발달연구**, 14(1), 1-19.
- 공춘옥, 김봉환(2014).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thriving)” 경험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409-431.
- 권석만(201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서울: 학지사.
- 김경선, 정일환(2003). 고등학교 평준화 보완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연구**, 21(4).
- 김경옥, 조윤희(2011).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197-218.
- 김계현, 황매향, 선혜연, 김영빈(2005). 대학생 학교생활 적응검사의 예언 타당도 연구. **상담학연구**, 6(4), 1103-1117.
- 김기석, 이종재, 강태중, 류한구, 최길찬, 김성식, 남명호(2005). 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RR 2005-03.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23(2), 35-52.
- 김도진(2011).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입학동기

- 및 개인배경 비교연구. **교육연구논총**, 32(2), 55-80.
- 김보연(2012). 집단 수행과 개인 수행의 상대적 차이 양상에 따른 상대 자존감의 변화.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강은희, 강혜영, 공윤정, 김영빈, 김희수, 선혜연, 손은령, 송재홍, 유현실, 이제경, 임은미, 황매향(2013). **진로상담**. 서울:학지사.
- 김석례, 손민호(2011). 초등학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교육문화연구**, 17(1), 163-194.
-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 김성식(2008).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1), 227-249.
- 김순택(1978). **정의적 특성과 학업성취**. 서울:교육출판사.
- 김승연, 이영희(2003).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위기대응에 대한 문화지향적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95-612.
- 김승호, 이학주, 유한구, 송경현(1997). 초등학교 교직문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11(1), 185-212.
- 김아영(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 1-19.
- 김영빈(2008). **학업우수 고등학생의 학업서열 변화와 자아개념, 정서, 실패내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천, 정정훈(2003). 잔인한 3월: 한국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3월의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0(2), 49-78.
- 김영천, 한광웅(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성격과 의미. **교육문화연구**, 18(3), 5-43.
- 김영철(2003).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체제연구. 연구보고 **RR 2003-02**. 한국교육개발원.
-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85-114.

- 김은정, 이정운, 오경자(1992). 자기 지각, 사회적지지 및 대처 행동이 대학생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6개월간 추적 연구.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25-534.
- 김정남(1991). **자아개념과 지능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1992). **행동 및 상태지향적 학습자의 목표설정원 및 목표난이도에 따른 학업성취 수행수준과 실패이후의 반응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원, 김옥인(2007).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수준과 진로성숙도와 관계. **아동교육**, 16(4), 75-82.
- 김주아(2009). **특목고·특성화고 학교선택 행위와 학교의 특성화 전략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2017). **학습생애사 사례연구: 세 할머니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수(2001). **대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과 대학 생활 인식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함은혜(2014). PISA 2012 수학 교과의 정의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7(5), 1311-1335.
- 김혜정(2012). 재미 1세 한국 이민 여성의 영적 여정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59-90.
- 김효원(2005).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란, 이진희(2017).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Big-fish-little-pond effect)에 대한 종단적 탐색: 중학생의 수학의 정의적 성취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869-887.
- 노해림, 김희경, 박승희, 양지연, 이우재, 전지혜, 조민경, 심은정(2015). 군 복무 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혼합적 연구: 학업, 대인관계, 진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4), 621-642.
- 노종희(2001). **고등학교체제의 다양화 확대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9(1), 27-45.

류태호(1999). **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매일경제(18.11.30). “‘최고대학 들어왔지만...’ 서울대생 절반 우울증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50994>

메트로신문(18.07.02). “특목고 출신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순으로 많아... 주로 수시특기자전형·학종으로 입학”.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d=2018070200149>

문성운(2000). **영재의 정의적 행동특성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화일보(07.07.18). “4개 외고 ‘서울大 < 외국大’ 역전됐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718010304271500061>

민경화, 김계현(2001). **대학생활적응도테스트 개발. 미발표자료**.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박소연(2016).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요인이 학업성취도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소영(2009). 일반계와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차이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4), 225-245.

박성희(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원미사.

박신영, 이동형(2013).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한국직업교육학회**, 32(1), 23-38.

박지선(1999). **자기초점화 주의, 신경증적 경향성 및 자기불일치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희, 김홍석(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박찬원, 박상학, 조용래(1999). 의과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학업 성취도와 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38(5), 985-996.

박준성, 남정현, 권선방, 박명숙(2007).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 학

- 생과 성적부진 학생의 특성. **교육실천연구**, 6(1), 93-111.
- 박현선(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 박현주, 조궁호(2003). 고등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우울, 불안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심리**, 24, 1-22.
- 박현희(2006). 자기 불일치 및 자기 통제력이 대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2018). 대학생의 개인, 학습경험, 대학환경 및 진로준비도가 학업성취도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4(3), 55-75.
- 배수옥(2006). 한 중산층 전업주부의 교육생애사: 백화점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대한질적연구학회 학술대회**, 5, 23-45.
- 백혜정, 황혜정, 김현희(2005).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12), 1-71.
- 변수용, 김경근, 황여정(2012). 위세 높은 대학 진학에서의 외고 효과. **제6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71-296.
- 변애경, 윤창국(2017).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본 여성 노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에 나타난 경험학습의 의미 탐색. **평생학습사회**, 13(3), 51-80.
- 부진희, 서용원(2002). 경쟁상황에서 성공실패환류와 통제소재가 내적동기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63-368.
- 서상환(1992). 학업자아개념 및 지능과 학업성적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경제(2018.12.08). “‘불수능’과 N수생 양산하는 ‘바늘구멍 정시’”.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DVK6JV0>
- 서은선, 정경아(2015). 일 대학 안경과학과 재학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

- 한시과학회지, 17(3), 213-225.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 송인섭(2013). **자아개념**. 서울:학지사.
- 송호열(2018). **특수목적고 교육정책 인식에 대한 고찰: 외국어고 관점에서 연구**. 경상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중(2012). **대학생의 성별 및 대학입학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린(2002).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 자의식에 따른 성적하락과 시험 불안의 관계 모형 검증: 영재교육기관 고등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희(2005).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관련 심리적 특성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35-262.
- 양민석, 이호준(2018). 외국어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생활의 관계 분석: 4년제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2018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63-84.
- 양민숙(2018). **북한이탈여성의 중년기 이후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 Mandelbaum의 분석 방법론 적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연보라, 장희원(2015). 대학생의 중도탈락 시기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129-155.
- 염주열(2017). **고등학생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선옥, 박혜영(2016). 대학-학생 공중 관계, 대학생의 학업 열의, 학업 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홍보학연구**, 20(3), 173-200.
- 윤수경, 한유경, 임소현, 김화영(2015). 대학 및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교육**, 42(2), 87-107.
-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2008). **간편 대학생활적응척도 개발 및**

-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9(2), 739-754.
- 이경희, 박성희(2006).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애사연구: 사례재구성을 통한 중년여성의 학습개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2(3), 73-95.
- 이동성(2015). **생애사 연구**.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이동훈(2015). 세월호 재난상담에 참여한 여성상담자의 성장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369-400.
- 이복녀(2017). **취업좌절 청년구직자의 심리안정지원 스트레스 상담 경험**.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명(2017).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17(2), 1-27.
- 이상우, 박기범(2018). 대학 입학 전형별 학생의 대학 학업 성과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131-154.
- 이수진(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25(4), 903-926.
- 이숙정, 유지현(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8(2), 35-64.
- 이원영, 이태영, 전우경, 강정원(2017). **부모교육**. 서울:학지사.
- 이종태, 강태중, 성기선, 이윤미, 김기은, 구영실(2006). 특목고의 중장기 운영방향 및 발전 방안연구. **정책 2006, 지정37. 교육인적자원부**.
- 임수영(2014).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 타협유형과 적응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1995). 자기 불일치와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자기 불일치 이론의 경험적 검증. **신경정신의학**, 34(5), 1416-1431.
- 임형신(2008). **일반고와 특목고생의 자아탄력성에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과 정서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계영, 김봉환(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2),

- 장경호, 신혜원(2010). 고등학교 계열 선택에 따른 사회과 학업 성취도와 흥미도 변화. **시민교육연구**, 42(4), 55-77.
- 장은영 (2004). **사회비교 동기와 충족수준이 비교대상의 선택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보영(2015).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30~40대 기혼여성의 생애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정원(2017). **학업우수고 학생들의 성적하락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현영, 손은령(2014). 두 50대 남성 직장인의 진로전환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 생계와 자아실현 사이. **상담학 연구**, 15(2), 675-694.
- 정미숙(2011). 비서과 학생의 진로의식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수도권 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비서·사무경영연구**, 20(3), 117-143.
- 정소희, 양성은(2011). 부모의 성취압력과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3), 23-37.
- 정애리, 유순화, 류남애(2011). 전문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535-558.
- 정윤경 (2007). 목표 지향성이 실패 후 아동의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2), 185-203
- 정지은(2017). **대학생 진로역량과 학생 및 대학 특성의 다층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호정(2017).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반복적 학사경고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두영(1985). **임상행동과학: 종합병원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조선일보(2017.06.16). “특수목적고인가 입시목적고인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1053.html
- 조영아, 전우택(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6(1), 167-186.
- 조원기(2015).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생의 대학 생활 및 대학전공 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혜정(2012). 대학생의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대학생활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1(3), 407-421
- 중앙일보(2018.09.12). “청년실업률 10%, 99년 이후 가장 높아. ”체감 실업률은 23%””. <https://news.joins.com/article/22965496>
- 장경호, 신혜원(2010). 고등학교 계열 선택에 따른 사회과 학업 성취도와 흥미도 변화. **시민교육연구**, 42(4), 55-77.
- 진학사(16.12.01). “2017학년도 외교, 국제고, 자사고 지원 총평”.
<http://www.jinhak.com/Middle/IpsiInfo/IpsiAnalysisDetail.aspx?EnterYear=0000&LocationCode=80&CategoryCode=00&SubCategoryCode=000&Page=1&HiTypeCode=&SearchMode=0&SearchString=&Region=00&ContentID=9406&Num=274>
- 채진원(2013). 세계화시대 대학교육의 이념과 시민교육적 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 39, 6-42.
- 최라영(2014). 평생교육계 원로들의 ‘지혜로운 나이 들’. **평생학습사회**, 10(4), 29-60.
- 최선주(2013).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시험형 자기주도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섯별(2001). 한국 상류계층 학연 연구를 위한 제언. **사회과학연구논총**, 7.
- 최송미(1999). **한·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아, 고희일(2012). 성인학습의 관점에서 본 생애사의 역할: 김지혜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35, 119-144.
- 최정원, 김영호(1998). 실제자기 수준, 이상적 자기 수준 및 자기불일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0), 69-87.

- 표경식, 조용래, 이무석, 김학렬, 박상학, 김상훈(1998). 성취관련 자기 불일치와 평가위협 스트레스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정신의학**, 37(6), 1174-1185.
- 하정혜(2014).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혜(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30.
- 한덕웅(1999). 사회비교의 목표와 성공/실패 경험에 따른 비교 대상의 선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11-329.
- 한덕웅, 엄광은(2002). 사회비교에서 실패와 향상가능성에 따른 부정적 자기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2), 75-87.
- 한덕웅, 장은영 (2003). 사회비교가 분노경험, 주관안녕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85-112.
- 한덕웅, 전검구, 탁진국, 이창호, 이건효(1992). 대학생의 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 불안, 우울 및 신체형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47-462.
-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 **연구보고 RR 2013-25**.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마이스터고 성과 분석: 재학생의 학교 만족도와 진로 계획을 중심으로. **KRIVET Issue Brief**, 128호.
- 한국청소년상담원(2009). **2008 상담경향보고서**.
- 허재홍, 조용래(2005). 자기 불일치와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5(2), 85-100.
- 형정은(2015). **전문대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우울, 진로미결정,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중도탈락 의도 간의 구조관계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계옥, 강혜원(2010). 대학생의 부모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13, 133-144.
- 황갑진(2006). 교육현상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가정환경의 영향: 대학서열과 입시교육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13(3), 69-92.
- 황매향(2002). 대학입시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과지도*, 37, 173-190.
- 황매향, 박혜영(2005).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8(2), 157-176.
- Allport, G. 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arcourt College Pub.
- Amabile, T. M. (1982).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A 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5), 997.
- Baker, R. W. & Sirk, B.(1989).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nual*.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ecker, M., Neumann, M., Tetzner, J., Böse, S., Knoppick, H., Maaz, K., ... & Lehmann, R. (2014). Is early ability grouping good for high-achieving students' psychosocial development? Effects of the transition into academically selective schoo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6(2), 555.
- Becker, M., & Neumann, M. (2016). Context-related changes in academic self concept development: On the long-term persistence of big-fish-little-pond effects. *Learning and Instruction*, 45, 31-39.
- Bloom, B. S.(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Bouchey, H. A., & Harter, S.(2005). Reflected appraisals, academic self-perceptions and math/science performance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4), 673-686.
- Brownfain, J. J. (1952). Stability of the self-concept as a dimension of

- personalit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3), 597-606.
- Calsyn, R. J., & Kenny, D. A.(1977). Self-concept of ability and perceived evaluation of other: Causes of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136-145.
- Caplin, L.(196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37, 13-16.
- Cialdini, R. B., Borden, R. J., Thorne, A., Walker, M. R., Freeman, S., & Sloan, L. R. (1976). Basking in reflected glory: Three (football) fiel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3), 366.
- Cialdini, R. B., & De Nicholas, M. E. (1989). Self-presentation by assoc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26.
- Cooley, C. H.(1930). *The development of sociology at Michigan*. In Angell, R. G. (Ed.), *Sociolog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Henry Holt.
- Covington, M., & Omelich, C.. (1979). Effort: The double-edged sword in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169-182.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CA: Sage.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unpath, R.(2000). Life history methodology: 'Narradigm' regained.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3(5), 543-551.
- Dweck, C. S., & Molden, D. C.(2005). *Self-theories: Their impact on competence and acquisition*. In A.J. Elliot & C.S. Dweck

- (Eds.), *The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pp. 122 - 140). New York: Guilford Press
- Elaine, M. J., Larry, L. L., Suzanne, F. M.(1999). The relation of self perceptions to achievement among african American preschooler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5(1), 48-60.
- Epstein, J. A., & Harackiewicz, J. M. (1992). Winning is not enough: The effects of competition and achievement orientation on intrinsic intere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2), 128-138.
- Erickson, E. H.(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eather, N. T. (1968). Change in confidence following success or failure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38.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reud, S.(1923). *The ego and the id*. (Standard Edition, Vol. 19).
- Freud, A.(1946).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ce*.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
- Gage, N.L. & Berliner, D.C.(1984). *Educational psychology*.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Gerdes, H., & Mallinckrodt, B.(1994). Emotional,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of reten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3), 281-288.
- Glaser, B. & Strauss, A.(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3-33.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R., Takata, T., Ide, E., Leung,

- C., & Matsumoto, H.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4), 599.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91-340.
- Higgins, E. T. (1999). When Do Self-Discrepancies Have Specific Relations to Emotions? The Second-Generation Question of Tangney, Niedenthal, Covert, and Barlo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313-1318.
- Huguet, P., Dumas, F., Monteil, J. M., & Genestoux, N. (2001). Social comparison choices in the classroom: Further evidence for students' upward comparison tendency and its beneficial impact on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5), 557-578.
- James, W.(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 Kruglanski, A. W., & Mayseless, O. (1990). Classic and current social comparison research: Expanding the perspective. *Psychological bulletin*, 108(2), 195.
- Marsh, H. W.(1987).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280-295.
- Marsh, H. W., Chessor, D., Craven, R., & Roche, L. (1995). The effects of gifted and talented programs on academic self-concept: The big fish strikes agai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2), 285-319.
- Marsh, H. W., Trautwein, U. ,Ludtke, O., Baumert J., & Koller, O. (2007).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Persistent Negative Effects of Selective High Schools on Self-Concept After Gradu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4.

631-669.

- Marsh, H. W. & Hau, K. T. (2003). Big fish little 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A crosscultural (26country) test of the negative effects of academically selective schools. *American Psychologist*, 58, 364-376.
- Mead, G.(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rriam, S. B.(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Mcglynn, R. P., Gibbs, M. E., & Roberts, S. J. (1982). Effects of cooperative versus competitive set and coaction on creative respond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8(2), 281-282.
- Moon, S. M. (Eds.) (2004). *Social/emotional issues, underachievement, and counseling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Thousand Oak, CA: Corwin.
- Nagengast, B., & Marsh, H. W. (2012). Big fish in little ponds aspire more: Mediation and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of school-average ability effects on self-concept and career aspirations in sci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4 (4), 1033-1053.
- Olaf, K. & Jurgent, B. (2006). Self-esteem, academic self concept and achievement: How the learning environment moderates the dynamics of self 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2), 334-349.
-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li: Sage.
- Purkey, W. W.(1970).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aina, M. K. (1968). A study into the effect of competition on

- creativity. *Gifted Child Quarterly*, 12(4), 217-220.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MA: Houghton Mifflin.
- Rogers, C. R., & Dymond, R. F. (1954). *Psychotherapy and personality change*.
- Seaton, M., Marsh, H. W., & Craven, R. G. (2009). Earning its place as a Pan-Human theory: Universality of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across 41 culturally and economically diverse countr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2), 403-419.
- Seligman, M. E.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A series of books in psychology*. New York, NY: WH Freeman/Times Books/Henry Holt & Co.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41.
- Song, I. S.(1982). *The dimensionality and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self-consept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New England.
- Snyder, C. R., Lassegard, M., & Ford, C. E. (1986). Distancing after group success and failure: Basking in reflected glory and cutting off reflecte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382.
- Strauman, T. J. (1989). Self-discrepancy in clinical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cognitive structures that underlie emotional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4-22.
- Sullivan, H. S.(1953). *The collected works of Harry Stack Sullivan*. In *'The Colleceted Works of Harry Stack Sullivan. Vol.1* Ed by Perry H. S. and Gawel M. L., New York: Norton.

- Trautwein, U., Lüdtke, O., Marsh, H. W., & Nagy, G. (2009). Within-school social comparison: How students perceive the standing of their class predicts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4), 853-866.
- Weiner, B., Frieze, I. H., Kukla, A., Reed, L., Rest, S., & Rosenbaum, R. M. (1971). *Perceiving the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부록 1> 연구참여자유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유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학업우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위권 이외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안지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학업우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위권 이외의 대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학업우수 고등학교(특목고 및 자사고) 졸업자이며, 현재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재학중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안지영(T: 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속적인 연구참여를 위해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학업우수 고등학교(특목고 및 자사고)에서 수학하고 상위권 이외의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진학의 과정을 거치면서 했던 경험들이 현재의 자신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유사한 경험을 한 학생들의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학업우수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현재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들이 참여하며 대략적으로 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의 승인 이후인 00년 00월 말부터 00년 00월 말 이전까지 연구자와 만나서 1회기 당 1~2시간이 소요되는 개인면담

(인터뷰)을 2회 실시하였고, 추후 00년 00월 이전까지 필요에 따라 유선 면담 혹은 보충 면담이 1회 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충 면담이 이루어질 시,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또는 참여자 위치 근처에서 개인 면담이 가능한 조용한 공간을 섭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담 내용은 1차 면담 내용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의미가 모호하여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추가 인터뷰 역시 녹음이 실시됩니다. 모든 녹음 자료는 가명으로 정리되어 전사(글로 기록)되고 분석되어 연구자와 지도교수의 협의 하에 연구물로 정리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의 총 진행기간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 승인 이후인 00년 00월 말부터 00년 0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면담은 총 연구 기간 (00년 00월말)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연구 참여자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면담 중, 그리고 면담 후 부정적 정서(예: 슬픔, 자괴감)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부정적 기억이나 정서로 더 이상의 인터뷰 진행이 어려울 시에는 즉시 인터뷰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편한 경험을 하시게 되면, 면담 후 1회 예정된 개인 상담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 및 기록 철회를 언제든지(논문 출판 직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유사한 경험을 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장

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연구자 본인인 서울대학교의 안지영(010-0000-0000)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면담 진행 시 귀하의 이름, 나이, 연락처, 출신학교(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제공한 개인정보(이름, 나이, 연락처)는 면담자를 식별하고 연구자와 면담자가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이름, 출신학교 등)는 모두 가명 또는 부호로 처리됩니다. 면담자의 개인식별정보는 면담(자료수집) 완료 후 폐기되며 면담 녹음자료는 전사 완료 후 즉시 폐기됩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는 연구 종료 후 최소 3년 이상 보관되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연구 데이터는 연구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관, 코딩데이터는 가능한 영구 보관됩니다. 연구 데이터는 연구자의 개인 이동 저장장치 1개 및 가정용 데스크탑 컴퓨터 1개에 자료를 저장한 후 각 기기별(USB, 컴퓨터) 및 문서별 암호를 설정하여 타인의 열람을 방지합니다. 또한 녹음자료를 전사할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자 본인이 진행할 것이며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 전사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동의서에 서약하도록 한 후 전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사 자료는 이메일이 아닌, 일대일로 만나 직접 전달받으며, 전사를 위임받는 자는, 전사 자료를 연구자에게 전달 후 그 즉시 컴퓨터 및 저장장치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감독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인터뷰 1회당 2만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유선으로 인터뷰 진행 시 동일한 사례금이 제공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
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안 지 영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000-0000

<부록 2> 연구 참여자 모집 글

연구참여자 모집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학업우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위권 이외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안지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 **연구 목적** : 국내의 학업우수 고등학교(특목고 및 자사고)에서의 생활과 상위권 이외의 대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것과 이러한 경험이 현재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참여자 선정조건 :

- 특수목적 고등학교(영재고/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하나고, 민족사관고, 용인부고, 상산고, 동산고 등) 졸업생.
- 현재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

참여 내용 :

- 본 면담 전 연구 참여자 확정을 위한 전화 면담 20분 내외 진행.
- 이후 본 면담 총 3회, 각 회당 1~2시간 내외로 진행.
- 연구자가 추가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2회의 추가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가 인터뷰는 회당 1~2시간 내외로 진행.

참여기간 및 장소

1) 기간 : __년 __월 __일 ~ __년 __월 __일 이전까지(추가 인터뷰 필요 시 __년 __월 이전에 요청 가능).

2) 장소 : 참여자가 소속된 학교 또는 참여자 위치 근처의 개인 면담이 가능한 조용한 공간

참여 시 사례 :

- 본 면담 : 인터뷰 1회당 2만원(매 회 1~2시간 소요, 3회 실시 예정)
- 추가 면담 진행 시 본 면담과 사례를 동일하게 제공
- 면담내용을 기반으로 한 학습상담 1회 제공(50분)

참여 방법 : 인터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안지영 (010-0000-0000)에게 연락 바랍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이름: 안지영 전화번호: 010-0000-0000

Abstract

A Study on Change of Academic Ranking and Self-Discrepancy experienced by Female University Students Graduated fro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hn, Jee Young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change of academic ranking and self-discrepancy affect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during high school and college years. To accomplish the abov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er tried to examine the changing academic confidence of university students who went to a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experienced decline in academic ranking and, after all, went to an university to which he or she did not want to go. Specific research question is how academic confidence changes

through experience of study in a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nd failure to go to desired university, and how this experience affects university life?

To answer this question, life history method has been used. Research participants are 8 female students who graduate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went to middle-ranked universities in the capital area. Participants' life history from their childhood until interviews had been collected through 2 times of in-depth interviewing to focus the life-historical change of academic confidence.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life history change patterns of forming, falling and changing periods of academic confidence formed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academic ranking that resulted from the admission process

During thei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participants developed high academic confidence with high grades, recognition around them, and interest and talent in foreign language, and thus succeeded in applying for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However, they experienced negative emotions such as lethargy and depression due to their falling academic ranking and unchanged grades after entering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lso, the school system that emphasizes only study and the difficult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ue to fierce competition strengthened these negative emotions, so they experienced a decline in academic confidence. This decline in self-confidence also affected actual academic performance, causing students to lose motivation and avoid to other areas where they could protect their self-esteem. However, being a foreign high school student helped maintain some level of academic confidence, and some participants appeared to be trying to maintain confidence in their academic ability by replacing the cause of the low-achievement

with an effort not an ability.

All of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clearly showed a decline in academic confidence as their academic standing remained low throughout high school and then went to university, to which they did not want to go. And this had a negative effect on early college adaptation. However, those who are well aware of their interests, have clear career goals, and whose majors are correspond with their career goals have shown good results i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re lack of insight into their interests, lack of specific career goals, and have low-integration with majors showed similar negative emotions and low levels of achievement such as in high school.

Through this experience of success and failure in university entrance process, the researcher confirmed that academic confidence in the participants was formed as “I can do it even as long as I work hard”. Therefore, the role of goals and motivations becomes mo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studying at a university, which is related to the setting of career goals. Also, experience at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has changed attitudes and values about studying, which is affecting current academic performance in an univers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d as a base material to help students who experience a decline in academic achievement or university students who are having difficulty adapting to university life.

keywords : academic ranking, self-discrepancy, social comparison, high-ranked school, college adaptation

Student Number : 2014-30481